

박종찬(25회) 제37대 총동창회장 체제 출범

2020년 이사회·정기총회 통합회의 개최

1수석부회장 박성철(29회), 2수석 김대욱(29회) 동문
송규정(16회) 상임고문,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 추대



박종찬 총동창회장

역사의 길에 서는 언제나 위기를 만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 역시 바로 그 위기의 도래이다. 지구촌이 응전 중이다. 바이러스의 도전에 맞서는 일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일 또한 응전의 한 양태라 말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부산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경남중고 총동창회 2020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통합회의’는 시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 응전이였다. 코로나19사태라는 비상사태에서 필요불가결한 사안의 승인절차를 위한 임기응변과 응

통성의 묘수가 펼쳐졌다.

대다수 동문들이 행사 참여를 꺼려하는 상황이었다. 동창회관 개관에 따른 회칙 변경과 총동창회장 임기 수정 등 제37대 총동창회장의 정상적 임기수행을 위한 합법적 절차의 요구가 절실했다. 정부의 단체모임 관련 지침에 따라 50인 이하의 동문만 참석케 했다. 사무국직원, 집행부 부회장 및 부회장단, 26회 이하 각 동기회장, 대형단체 회장 중 참석 가능한 동문 등 모두 42명이 참가했다. <정기총회 상보 등 관련기사 2345면, 결산·예산서 67면, 회칙 8면 게재>

행사는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사전에 유인물을 이메일로 숙지하고 참석토록 했다. 먼저 도시락 식사를 하고 옥동훈(25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



코로나19사태로 소수인원으로 조촐하게 치른 제57차 정기총회 모습.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회를 했다. 결가지는 빠고 핵심만 신속하게 처리했다. 개회 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총동창회장 인사, 감사보고, 주요안건 상정, 교가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예정됐던 참석자 소개, 축사 및 격려사도 생략했다. 예년의 행사에선 포함됐던 합창단 공연, 만찬 이후 여흥 시간 등은 아예 일정에 잡히지도 않았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행사 진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회칙 변경안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5월말 마무리되고, 6월 20일 개관을 갖는다. 코로나19사태도 진정돼 총동창회가 예전처럼 활력 있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보고에서 윤인태(30회) 감사는 “적정한 집행·운영으로 내실을 다졌다”고 보고했다.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2019년 결산보고와 만장일치 박수 승인에 이어 동

창회장 연임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절차의 합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천을 받았다. 제37대 총동창회장으로 현재의 박 총동창회장이 단독 추천받아 전원 일치의 박수로 통과됐다. 올해 사무국 운영 예산안 및 동창회보 운영 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승인됐다. 회칙은 일부 자구(字句) 수정을 거쳐 통과, 승인됐다.

이 자리서 변경된 회칙에 따라 박 총동창회장은 1수석부회장에 박성철(29회) 법률자문담당부회장을, 2수석부회장에 김대욱(29회) 재정담당부회장을 각각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또 ‘상임고문’제를 신설했다.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추대를 거쳤다. 이 자리서 송규정(16회) 동문이 상임고문으로 추대됐다. 이날 남 자문위원장은 동창회관 초대관장으로 선임됐다.

행사는 언제나처럼 교가 제창에 이어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오는 6월 20일 개관될 동창회관 조감도. 단아하고 스마트한 위풍으로 정겨운 분위기를 주고 있다.

‘용마의 공지’로 회관 리모델링

관련 업체 동문들, 열성적 참가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새 지평을 열 동창회관 개관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코로나19의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용마인 동문들의 참여정신과 열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동창회 산하 건축·건설 분야 직능단체인 용건회 회원들이 공사의 많은 부분을 담

당하고 있다. 주요 공사와 세부 전문 분야, 그리고 자재 공급까지 포함하면 약 25명의 동문이 동창회관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경남중고인으로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기사 2면에 계속>

400명 앓던 곳 42명 ‘거리두기’ 착석, 초스피드 회의

최고의 핵심 요원들 참가

○…지난 3월 25일의 이사회 및 정기 총회는 사실 공표는 안 됐지만 한 차례 연기된 행사였다. 원래는 예정처럼 3월 초순인 4일로 예정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기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날 참가자는 총 42명. 경남중고 동문 중 최고의 핵심 요원들인 셈이다. 사무국, 자문위원장, 집행위부회장, 운영위부회장, 일반위부회장, 동기회장 또는 국장(25~53회), 직능·동호회장 중 참석 가능한 동문들을 확인하여 초대했다. 밴드 공지를 통해 초대받지 않은 동문은 참석을 만류하기도.

행사장은 영주동 코모도호텔 그랜드 볼룸.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정기총회 때는 300~400명이 운집했던 곳이다. 이날은 대형 테이블 12개에 42명이 나뉘어 앉았다. 상호 ‘거리두기’였다. 식사 외에 행사 시간동안 마스크를 쓴 동문도 많았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행사 진행은 초스피드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날 행사는 식사 포함, 1시간 30분이 소요됐다. 공로상 시상,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는 아예 없었다. 총동창회는 오는 12월 3일 롯데호텔 개최가 예정된 ‘용마의 밤’ 행사 때로 미뤘다.

약수에서 ‘주먹키스’로 신인사법

○…이날의 ‘인사법’은 코로나19 영향으

로 약수에서 ‘주먹 키스(터치)’로 바뀌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문 상호간의 약수는 마음만으로 ~’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경남중고 용마인 ‘남자의 세계’라 자연스러운 인사법이 되었다. 주먹키스가 새로운 문화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분과위원장에서 집행위부회장

○…신설 집행위부회장은 기존 분과위원장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일각에서 “분과위원장이 서열상으로 마치 부회장 아래에 있는 것 같다. 연회비는 배로 내는데…”라며 우스개삼아 화자되곤 했었다. 이참에 호칭도 ‘격’을 갖춰 ‘○○담당 부회장’이라고 했다.

“자기희생 감수해야 하는 자리”

○…박성철(29회) 1수석부회장은 “엄청난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이다. 열심히 배워서 생각을 다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옥(29회) 2수석부회장은 “박 1수석부회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두 사람이 차기회장, 차차기회장이다. 가능하면 나와 같이 움직이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선배배들의 스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두 분이 지갑을 잘 여는 방법을 많이 실습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혀 참석동문의 폭소를 자아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건배 모습.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코로나 시름’은 잠시 잊고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건배하는 동문들.

“동창회관 제대로 자리 잡아놓겠다”

○…남진현(19회) 초대 동창회관은 “지난 38년 동안 총동창회 임원장은 “지난 38년 동안 총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선배로서 밀알이 되고자 한다. 동창회관을 제대로 자리 잡아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

다. 2~3년 동안 열심히 제대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남 동창회관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요즘 거의 매일 오후 현장을 방문, 작업 내용과 진척 상황을 세세히 챙기고 있다.

<기사 1면에서 받음>

“경남중고 동문 역량 과시 기회”

총동창회관이 얼마나 번듯하고 실용적이며 재정적으로 ‘화수분’이 될 ‘용마의 새 보금자리’로 둔갑할지 여부는 이들 용마의 동문애와 모교사랑의 깊이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여겨온 경남중고 동문들의 역량을 과시해볼 기회이기도 하다.

총동창회관 개관일을 오는 6월 20일로 잡아둔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는 5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기획,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이 감독, 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이 건축설계·현장감리·허가업무 등 지휘부 중임을 각각 맡았다. 옥동훈(25회) 사무총장, 신승렬(36회) 사무국장이 실무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1월 16일 동

문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에 이어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심사 및 협의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3월 3일 오후 리모델링 공사의 핵심인 건축 내외부 인테리어 작업 담당 동문업체가 선정되었다. 그 사이에 기존 요양병원 시설 철거공사가 진행됐다. 우선 실내철거작업은 사전에 건물 내 석면검사부터 해야 한다. 공사 시일이 지체될 상황이었는데 정현상(32회·미주건설) 동문이 거래업체인 한국석면기술연구소에 의뢰해 빠른 검사를 마치도록 도움을 주었다. 석면검사 완료 후 전문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박철웅(34회·아성산업) 동문이 맡아서 깨끗하게 사전작업을 완료했다.

리모델링 공사 참여업체 선정에서 용건회 이영학(건축사) 회장과 김인수(41회·전기통신소방 설계) 사무국장이 마련한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

동문업체들이 시공계획서와 견적서를 제출했다. 박 총동창회장, 남 자문위원장, 이 용건회장 등 지휘부는 거의 매일 동창회 사무국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접수 서류를 검토하고 조정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밟았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주계약 대상인 중요 3공정(파트별 집중)과 각종 세부 공정으로 나뉜다. 가장 핵심 작업은 내부 및 외관 인테리어 부분이다. 지하, 1, 2층과 계단복도, 건물 주출입구 인테리어 그리고 외관 공사는 이양걸(41회) 동문의(주)이노아이디가, 3~6층 인테리어와 옥상공사는 전삼록(41회) 동문의(주)그린아이디가 컨소시엄(공동) 형식으로 맡았다. 이는 동문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전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문시공이 필요한 전기 및 통신 부분으로 전기는 이태환(46회·(주)대원전력) 동문이, 통신인터넷은 김정현(50회·SCL이노베이션) 동문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음은 소방설비부분으로 이원용(30회·현대소방) 동문이 각각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리모델링 공사 세부 공정에서 여러 동문들이 참여 하고 있다. 각 부문별 참여 동문은 다음과 같다. △조명기구-정순길(30회), 서석진(50회) △철거공사-박철웅(34회) △대리석-양호진(36회) △부대토목자문-김정곤(38회) △외부도장-김근홍(38회), 김종엽(39회) △보안공사-백기현(39회) △벽면공사-이원영(39회) △포장공사-서은식(39회) △금속창호-배병훈(40회) △데코타일-이종우(41회) △준공청소-황정후(41회)△모교모형 미니어쳐-박형규(43회) △조경공사-안병규(44회) △간판&사이니지-권우일(45회) △블라인드-김진수(45회) △타일도기-조창래(45회) △인조대리석-진상영(45회) △썩크가구-김종배(49회) △유리공사-신현식(51회) △안전용품-최우영(51회) △위생도기-김권우(53회) △방화문-남승태(54회) △전기작업-곽명원(62회).

*기사 도움말=이충현(49회) 용건회 사무차장.

회관 개관 대역사 '유종의 미' 의지에 회장 연임 승인



정기총회 의안을 심의 중인 동문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윤원옥 영상편집위원(39회)>

회관 보유로 회칙 개정, 내용 구체화로 지향점 확실히 회장 임기 2년→1년 축소... 집행위부회장제로 변경 2019년 결산서·2020년 예산안 박수로 통과 승인

경남중고 총동창회 2020년 이사회 및 제57차 정기총회는 코로나19사태가 빚은 비상시국 하에서 용마의 비범한 기지로 실리를 챙긴 초간소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요한 사안들이 많았다. 동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사안들을 분류해서 소개를 한다.

<총동창회장 연임 승인>

박종찬(25회) 제36대 총동창회장이 2년 임기가 만료돼 후임인 제37대 총동창회장의 선임이 필요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자신의 연임 의지를 줄곧 피력해 왔다.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 동창회관 구입과 개관이라는 대역사(大役事)를 진두지휘해 온 입장에서 자신이 종결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였다. 개인적으로는 회장 연회비 5,000만원을 포함, 1억원의 재정적 지출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날 행사에서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이 임시의장을 맡았다. 절차의 합법성을 위해 추천을 받았다. 정운성(35회) 총무담당부회장이 '총동창회의 신기원을 이룰 동창회관의 완벽한 개관과 운영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서'라며 박종찬 현 총동창회장을 추천했다. 단독 추천이었다.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추천이 가결됐다.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 승인>

이날 행사에서 2019년도 주요 행사 및 사업들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됐다. 참석자들에게는 사전에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 검토를 요청했었

다. 옥동훈(25회) 사무총장이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다. 참석자들의 박수로 승인 절차를 거쳤다.

2019년도 사무국 수입과 지출은 각 2억4,521만원(전년도 이월금 4,700만원, 금년도 이월금 6,406만원)이었다. 수입 주요 항목으로 임원회비 1억5,900만원, 기별분담금 3,920만원이다. 지출 주요 항목으로 모교지원금 785만원(경남고 535만원, 경남중 250만원), 조직강화비 9,737만원, 일반관리비 7,591만원 등이다. 용마장학회의 목적사업비(모교 장학금) 지출은 6,069만원이다.

2019년 동창회보 운영 결산서 내용을 보면, 수입·지출 각 1억5,024만원(전년도 이월금 2,585만원, 금년도 이월금 2,011만원)이다. 수입 항목으로 광고비 1,815만원, 회보구독료 1억609만원이다. 지출 주요 항목으로 제작비 3,223만원, 발송비 3,066만원, 운영비(인건비 포함) 5,556만원 등이다.

이밖에 2019년 야구후원회 결산서는 3,706만원, 기별야구 결산서는 2,791만원, 용마골프대회 운영 결산서는 3,009만원의 예산이 수입·지출됐다.

2020년 사무국 운영 예산안은 2억4,018만원의 규모로 짜여졌다. 수입(전년 이월금 6,406만원)은 임원회비 1억3,000만원, 기별분담금 4,000만원으로 졌다. 지출부문(이월금 및 예비비 3,666만원)은 모교지원금 1,100만원, 조직강화비 9,360만원, 일반관리비 9,529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회칙 개정안 승인>



남진현 초대 동창회관장

박 총동창회장은 회칙 개정과 관련, "이전보다 구체화됐다. 총동창회가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을 확실히 해두었다. 후임자들이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창회관 보유로 인한 회칙 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칙 개정 규모는 근자에 들어 최대 폭이다. 개정된 회칙 중 핵심적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한다.

△회장 임기 변경=회장 임기가 '2년, 연임 가능'에서 '1년, 연임 가능'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기수에서 회장 2명 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격년제로 치렀던 '용마의 밤' 행사가 매년 열리게 됐다. 이같이 변경하게 된 취지에 대해 박 총동창회장은 "회장이 저야 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게 현실이다. 연회비 5천만원에다 다양한 행사 협찬금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연 1억원 지출을 2년 지속한다면 무척 힘이 든다. 임기를 1년으로

줄여 재정적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회장직을 맡을 능력은 있으나 돈이 부담돼 못 맡는 경우도 있었다. 재정적 부담을 덜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같은 기수에서 능력과 리더십이 출중한

인물이 2명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싶다. 더불어 미래 세대에도 활력이 있는 나이에 '기회'가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1수석부회장·2수석부회장 신설=기존의 '수석부회장' 체제에서 '1수석부회장과 2수석부회장'제로 변경했다. 1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 2수석부회장은 차차기회장 후보로 명시했다. 회장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대신 수석부회장이 1년 동안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 개입토록 했다. '임기 1년'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업무 파악' '위밍업' 등 없이 곧바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자는 게 목적이다.

△집행위원회 구성=기존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부회장단 산하의 집행위원회로 구성했다. 집행위부회장은 상시 회장을 보좌하는 부문별 위원으로 호칭을 '○○담당부회장'으로 정했다. 2020년 조직표 상으로는 1·2수석을 포함, 조직, 대외협력, 홍보, 정책 등 담당부회장 수는 17명이다.

△동창회관장 신설=동창회관을 보유함에 따라 신설된 임원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동창회관장은 이사회의 임명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재)용마 장학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고문 신설='고문'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리이다. 총동창회장직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능력 소유 동문이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직책을 맡아 어쩔 수 없이 '총동창회장 기회'를 놓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동문이 동창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오래,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 첫 사례로 송규정(16회) 동문이 선정되었다.

△회계연도 변경=기존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했다. 이는 이해가 명확하도록 문장을 구체적으로 풀어 썼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번 기회에 회칙 전반을 손봤다.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박성철 1수석부회장, 김대욱 2수석부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제57차 정기총회

박종찬(25회) 제37대 총동창회장 인터뷰

동문 간 결속력 배가 위해 새로운 직능모임 결성 집중

동창회관, 동문 구심점 역할...“함께하는 모임 활동공간”
기부자 900여명, 용마의 자부심·동문에 발로 길이 새겨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지난 3월 25일 경남중고 총동창회 제 57차 정기총회에서 제37대 총동창회장에 선임됐다. 불가피한 연임이었다. 동창회관 구입과 개관 그리고 운영의 연착륙 등 중차대한 과제를 두고 피할 수 없는 결단의 귀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기총회 폐막 후 박 총동창회장에 게서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갖는 소감 등을 들어보았다.

-경남중고 동창회 창립 70주년이자 모교 개교 78주년이 되는 올해 제37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동창회사(史)에 새 지평을 열 동창회관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소감을 말해주십시오.

▲2년 전 제36대 회장을 맡았을 때 동창회는 활력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로 동창회보 구독료 수금실적을 들겠습니다. 한때 4,000명 이상 구독료 납부 동문 숫자가 2,629명까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은 나이와 함께 동창회 열정이 식어가고 특히 40회 이후 후배들은 동창회에 무관심한 상황이어서 동창회 발전을 위해 반전이 필요한 시기에 희망을 주는 숙원사업이었던 동창회관을 갖자고 무모할 것 같았던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많은 동문들의 호응 속에서 오는 6월 20일 동창회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큰 행운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동창회관 개관 이후 총동창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예상을 한다면?

▲동창회관은 국내의 동문들의 구심점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후배가 함께 하는 모임의 활동공간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6층 건물의 리모델링의 목표는 수익성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동문들의 교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교와 동문들을 지원하는 장학회와 총동창회 사무국 공간이 5층에 있으며 4층에는 대형 산하단체인 덕형리그, 경야회, 경미회, 용마코러스의 사무실 외 동기회와 동문사무실이 입주합니다. 2층에는 당구동호회 활동무대가 될 용마당구장을 마련합니다. 대형 모임(66명 좌석)을 할 수 있는 6층 공간, 커피 한잔과 식사를 할 수 있는 1층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36대 회장으로서 이뤄놓은 일이 많습니다. 최고의 치적이



제37대 회장에 취임한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마지막 임기 1년 동안 동문 간 결속력 배가를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라 할 ‘동창회관 구입’, 그 다음번 것을 내세운다면 무엇인지요?

▲40회에서 53회까지 후배동문들로 구성된 경미회(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의 출범입니다. 동창회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는 순간 미래 발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더 멋진 동창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미회 초대회장으로 40회 우영환 회장의 자제 선출은 금상첨화로 우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 일취월장하는 경미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치적을 하나 더 들자면 해외지역 동창회(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를 직접 방문, 현지 동창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축소된 모임을 복원시키는 동력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창회관 구입 기금 기부자가 900여명에 달합니다. 경남중고인의 저력이자 우정, 그리고 모교 사랑의 깊이를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이들 기부자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부 배경은 평소 모교 졸업에 대한 자부심과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과 십시일반 정신의 실천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각자 마음속의 귀중한 재산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각박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나눔의 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기부자 동문들에 대한 감사 표시를 동창회관 벽에 이름을 새겨 남기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일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노력한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취임 초기부터 강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개인적인 경비 발생은 어쩔 수 없다는 신념으로 출발했으나 일부 동문들 중에서는 정치를 하려는 쇼맨십인가 했다는 후담을 들었습니다. 제 진심한 마음을 전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결국은 전달되었으므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미결 숙제를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야구감독 교체 압력, 기별야구대회의 주관 모임 변경 등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반발, 힘들었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며 우려하는 동문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취임 전 재경동창회의 존재는 총동창회와 동등 또는 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경에서 가진 모교발전기금 71억원의 관리에 대해 총동창회와 일말의 논의도 없었고, 경남고와 직접 대화로 모든 것을 결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71억원 관리에 대해 재경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잘 사는 작은 집도 큰 집이 될 수 없다고 재경총회에서 말했습니다. 그 후 회보를 통해 재경 조직을 포함한 총동창회 조직표를 발표했습니다. 진정한 의

미에서 재경동창회는 서울에 있는 지역 동창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만 재경 스스로는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는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모교를 지키고 있는 부산이 동창회의 중심점이란 점은 제3자가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어차피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지역동창회이므로 담담한 마음으로 존재를 인정하면서 간섭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없애면 불협화음은 없어집니다. 재경에서도 계획대로 동창회관을 성공적으로 구입해서 장학사업을 잘 해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경미회 조직 가동으로 40대 이후 기수의 활성화는 눈에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동창회의 주도세력으로 나서야 할 30대 기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창회 무대에 나서도록 할 방안을 찾다면?

▲이 문제는 31회 동문들의 활약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평준화 졸업 1기인 31회 동문들은 또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2회는 31회를 살펴볼 것이며 33회는 32회를 살펴보는 체인현상의 첫 머리에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수입니다. 31회가 단합하여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다행인 것은 집행부에는 차기회장을 배출한 29회부터 40회까지 모든 기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부산 9개 지구동창회의 회장은 대부분 30회대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활력 있는 30회대가 생성될 것입니다. <기사5면에 계속>

<4면에 이어서>

“회장 임기 1년’ 후배를 위한 것”

올해 제37대 회장부터 임기가 1년으로 줄어듭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며 제38대 차기 회장으로 26회, 27회, 28회를 뛰어넘어 29회 박성철 동문, 차차기회장으로 29회 김대욱 동문을 지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제36대 회장에 취임하는 시점에 동창회의 재정은 적자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정적자 탈피의 한 방편으로 회장의 연회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년 임기의 경우 연회비만 1억원을 내야하는 부담이 생겨 후임 회장을 구하기 어려워진 점이 1년 임기로 바꾼 주요인입니다. 이런 조치와 함께 같은 기수에서 회장을 2명 배출하는 길을 열어 너무 빠른 속도로 후배기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26, 27, 28회를 건너 뛴 배경은 후임 회장은 집행부 부회장단에서 배출되는데 저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6, 27, 28회 동문이 집행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 다. 내년 29회에서 회장이 배출되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술선수범이 자신의 리더십의 근간
이라는 박종찬 총
동창회장. <사진
=윤원욱 영상편
집위원(39회)>

어도 우리 나이로 65세이므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연륜입니다. 회장 사전 지명제도 도입은 공식취임 전 선후배와의 사전교류를 통해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충분한 임원수를 확보해 건전한 재정배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문들이 볼 때 회관 기금 기부나 구독료 납부에서 25회 동기생들의 동참이 타 기수에 비해 유별나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와 동기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요?

▲회관기금 기부에 181명이 동참했으며 작년 동창회보 구독료는 180명이 납부했습니다. 타 기수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제가 직접 개인별로 독

려를 한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만큼 동기생들에게 큰 신세를 진 것입니다. 마음에 진 빚을 천천히 갚아 나가야겠지요. 동창회보의 경우 359명에게 발송을 하는데 180명이 납부했으므로 모하게도 딱 50%를 넘긴 것입니다. 나머지 49.9%는 미납이니까 동기생 인기도는 5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힘들었지만 절반의 성공을 한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친구들아, 언제든지 연락해라. 맛깔나는 음식으로 대접하꾸마.)

-마지막 임기 1년 동안 실천에 옮기고 싶은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요?

▲동문 간 결속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직능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조업, 무역업, 의사, 교수 등 분야별로 모임을 형성하면 선후배간 정보 교환, 상호 협조방안 협의, 멘토와 멘티 관계형성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심점이 될 동문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젊은 후배동문들 사이에 ‘회장님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리더십의 근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술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간 로타리언 생활을 하면서 배운 덕목 중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관념을 마음 속에 만들었습니다. 돈 봉사와 시간봉사로 나눕니다. 시간이 금이며 돈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돈 봉사는 나눌 수 있는 돈이 부족하면 실천하기 어려우나 시간봉사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모임에 참석을 하려는 제 마음은 시간봉사를 하려는 것이지요. 모임 때마다 진행요원으로 수고하는 후배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정기총회 인사말

“참여·기부 술선수범 조직으로 변모…모교 지원 방안 구체화 할 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 동문회는 지난 2년간 많은 것을 이루어왔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회관기금 모금에 동참한 약 900여명의 동문의 힘으로 동창회관 구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금일 이 시간 현재 관련업체 몇몇 동문이 최고의 회관으로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 작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0일 공식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36대 총동창회장으로 보낸 지난 2년 임기 중 회관구입 외의 성과를 간단하게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총동창회 조직표를 체계화 하면서 임원진은 이름만 부여하는 형식이 아니고 100% 연회비를 납부하는 동문들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동문들로 구성된 막강한 조직이 되었으며 기부를 술선수범하기 때문에 각종 이벤트가 적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모든 국내의 동문들은 조직 속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고취시켰습니다. 특히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를 직접 방문하여 모교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였으며 현지 조직을 재생하였습니다.

둘째, 부족한 동문간의 소통을 위해 총동창회밴드를 개설한 후 현재 1,60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공지사항에 대해 400~500명의 동문들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40회 이후 동문들의 뜨거워지는 관심과 더불어 50회 이후 54회까지 동문들의 밴드가입 숫자 증가는 동문회의 밝은 미래 증표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23회 이전 선배님들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라서 밴드가 입숫자가 너무 적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셋째, 명실상부 막강한 산하단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야회, 용마바둑회, 용마골프회가 새 집행부로 재출발했으며, 부산시 9개 지구동창회 완성과 40회 이후 기수로 구성된 경미회(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의 출범은 백미였습니다.

넷째, 지난해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3,412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7년 2,629명, 2018년 3,078명에서 약 10%진일보한 결과지만 목표치 4,000명에는 미달했습니다. 동창회보는 기존 24면에서 증면된 32면으로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행한 427호는 동창회관 구입 축하 40면 특집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동문역사의 충실

한 기록지로 자리잡은 회보에 많은 동문들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올해부터는 홀수달 말에 기사 마감하고 짝수달 초에 편집 및 인쇄, 배포하는 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격년제의 용마의 밤 행사를 매년 가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칙에 따라 임기 1년의 총동창회장 책임 하에 12월 중 행사를 하게 됩니다. 신설된 1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 2수석부회장은 차차기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동문들이 차기, 차차기회장을 사전에 인지하고 서로 교감의 폭을 넓히면 더욱 활기찬 동문회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회관구입기금 모금운동을 통해 동문들의 기부정신이 두루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 ‘수시기부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개인별 기부금 축적 결과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브론즈급에서 5억원 이상의 다이아몬드급까지 8등급으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일곱째, 동창회보 301호부터 400호까지를 압축해서 인쇄한 회보축색판 4집을 1,000부 발간했습니다. 권당 3만원에

판매합니다. 역사를 담은 귀중한 자료이므로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제37대 회장으로서 올해의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20일 개관식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의 공기를 준수하고, 개관행사 소식을 부산일보, 국제신문 광고에 실어 동문회에 나오지 않는 동문들도 방문하고 싶어지는 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보 3만원 구독료 수금 4,000명에 3차 도전하겠으며, 동호회 및 직능단체의 2차 활성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중, 경남고 2개의 모교를 갖는 동문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가사의 교가를 제창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경남중(구 토성중 포함)과 경남고, 모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모교 내에 설치된 조형물들의 재배치, 경남고 실내야구연습장의 대보수 작업, 경남중 김영삼(3회) 전 대통령 흉상 설치 등 현안을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0. 3. 25.

경남중고 총동창회장 25회 박종찬

제57차 정기총회 - 결산·예산서

2019년 사무국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19 사무국)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245,213,550	
이월금		47,004,774	
	전년이월금	47,004,774	1)은행 보통예금 46,832,287 2)현금 172,487
회비		198,200,000	
	임원회비	159,000,000	1)회장 50,000,000 2)자문위원 16,000,000 3)분과위원장 41,000,000 4)부회장 및 운영위원 52,000,000
	기별분담금	39,200,000	1)2019년도분 39,200,000
기타		8,776	
		8,776	1)은행 보통예금 이자 8,776

지출부문(2019 사무국)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245,213,550	
모교지원금		7,850,000	
	경고지원비	5,350,000	1)경고 교직원 추석 선물비 1,500,000 2)경고 개교기념일 재학생 간식비 3,000,000 3)경고 퇴임 및 전출교사 전별금(17명) 850,000
	경중지원비	2,500,000	1)경중 개교기념일 재학생 간식비 2,500,000
조직강화비		97,373,944	
	회의비	50,815,704	1)2019년 정기총회 회의비 21,385,180 (이사회 및 정기총회: 19,375,180원, 회의자료제작비: 1,370,000원, 공로패: 640,000원) 2)기타 모임 및 회의비 27,052,324 ①분과위원장 회의 (5회) 4,316,000 ②동기회장,국장 회의 4,750,510 ③재경동창회 합동 회의 694,000 ④동기회, 직능, 동호회 합동 회의 2,393,000 ⑤지구,지역,직능,동호회 외 회의 6,720,600 ⑥임원 회의 6,564,000 ⑦회관구입 고액기부자 모임 1,214,664 ⑧기타 행사관련 회의 399,550 3)업무회의비 외 2,378,200
	경조비	3,475,000	1)경사 화환 및 축의금 3,075,000 ①동문 경사 1,395,000 ②각 동기회, 지역· 직능· 동호회 행사 1,040,000 ③타교 동창회 행사 및 대외 경사 640,000 2)홍사 조화 및 조의금 400,000 ①동문 홍사 400,000
	행사지원비	38,269,140	1) 9개 지구동창회 모임 격려 지원비 15,334,000 ①강서지구 창립총회 외 2,734,000 ②기장지구 발족 외 800,000 ③남부산지구 1,500,000 ④동래금정지구 1,300,000 ⑤부산진연제지구 창립총회 외 2,500,000 ⑥북부산지구 창립총회 외 2,800,000 ⑦사하지구 300,000 ⑧중부산지구 600,000 ⑨해운대지구 1,800,000 ⑩지구회장단 모임 1,000,000 2) 지역동창회 모임 격려 지원비 3,200,000 ①재경동창회 총회 격려금 1,000,000 ②거제지역 300,000 ③김해지역 600,000 ④대구지역 200,000 ⑤양산지역 500,000 ⑥창원지역 야유회 및 용마의 밤 격려금 600,000 3) 직능· 동호회 격려 지원비 14,800,000 ①경미회 6,000,000 ②경불회 300,000 ③경야회 야구부 후원의 밤 격려금 1,000,000 ④기독동문회 300,000 ⑤등대회 600,000 ⑥용마언론인클럽 300,000 ⑦용건회 300,000 ⑧용마골프회 300,000 ⑨용마당구대회 격려금 (개인전 포함) 2,300,000 ⑩용마회 300,000 ⑪yes24배 고교동문 바둑대회 출전보조금 1,500,000 ⑫용마바둑회 재창립총회 격려금 1,000,000 ⑬용마산악회 300,000 ⑭용마코러스 300,000 4) 홈커밍데이 지원비 1,500,000 ①13회 홈커밍데이 격려금 500,000 ②33회 홈커밍데이 격려금 500,000 ③53회 홈커밍데이 격려금 500,000 5) 동기회 모임 격려 지원비 1,252,000 ①4회 동기회 252,000 ②31회 동기회 300,000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③34회 동기회 300,000 ④53회 동기회 200,000 ⑤54회 동기회 200,000 6) 기타 행사 지원비 2,183,140 ①개교 77주년 이어달리기 리셉션 행사 1,183,140 ②이태석기념사업회 후원금 기부 1,000,000
	홍보비	4,565,000	1)SMS(문자)web 발송 충전비(뿌리오) 외 200,000 2)53회, 54회 동기회 회기 제작비 500,000 3)강서, 기장, 부산진·연제, 북부산, 해운대지구 회기 제작비 1,250,000 4)조동훈(9회), 손석보(21회) 동문 감사패 제작비 260,000 5)77이어달리기 현수막 및 완주기념패 제작비 195,000 6)경남교 졸업식 기념 타올 제작비 1,250,000 7)신임 분과위원장 외 명함 제작비 460,000 8)직능,동호회 회장,국장 모임 현수막 제작비 40,000 9)고문,자문,부회장 신년 모임 현수막 제작비 40,000 10)신임분과위원장 모임 현수막 제작비 40,000 11)회기 거처대(X반도) 제작비 50,000 12)뉴질랜드(오클랜드)지역동창회 회기 제작비 280,000
	교통비	249,100	1)업무 활동 교통비 117,600 2)사의 출장 및 교통비 131,500
일반관리비		75,912,700	
	인건비	57,466,200	1)사무국장 및 여직원 1명 57,466,200
	퇴직금	4,713,720	1)퇴직적립금 4,713,720
	통신,우편료	2,253,090	1)전화 통화료 618,160 2)각종 우편물 및 택배 발송비 1,463,330 3)케이블TV 수신료 171,600
	인쇄도서비	132,000	1)신문 구독료 132,000
	관리비	5,146,730	1)사무실 관리비 5,146,730
	공과금	1,125,180	1)공과금 1,125,180 ①재산세 883,060 ②교통유발 부담금 242,120
	비품비	1,440,000	1)복사기·FAX 임대료(12개월) 1,360,000 2)기별야구대회 장년부 우승기 부품(깃대) 교체 50,000 3)차단기 교체 30,000
	소모품비	2,070,180	1)각종 사무용품비 1,040,460 2)사무실 소모품비 1,029,720
	컴퓨터운영	1,565,600	1)컴퓨터 운영 제비(홈페이지 호스팅 및 도메인 연장) 278,600 2)컴퓨터 수리, 설치비 250,000 3)홈페이지 유지 관리비(SGVISTA) 600,000 4)신규인터넷 사용료 407,000 5)동문 관리프로그램 (한국인) 네트워크 연결 30,000
	기타	잡비 11,800	1)잡비(등기반송 수수료 외) 11,800
	이월금	64,065,106	1)은행 보통예금 63,954,049 2)현금 111,057

2019년 동창회보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19 회보)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150,240,010	
이월금		25,853,558	1)은행 보통예금 25,853,558 2)현금 0
광고비		18,150,000	1)2019년 광고비 (*축쇄판 광고료 미포함) 18,150,000 ①420호, 421호(25회 김진철 외) 4,000,000 ②422호(23회 이수백 외) 2,000,000 ③423호(28회 김길제 외) 4,600,000 ④424호(21회 전우성 외) 3,250,000 ⑤425호(23회 이상수 외) 2,300,000 ⑥426호(44회 탁정환 외) 2,000,000
회보구독료		106,096,450	1)2019년 회보구독료(총3,412명) 99,376,450 2)2020년 회보구독료 선납 (총122명) 3,660,000 3)2021년 이후 회보구독료 선납 (총102명) 3,060,000
기타		140,002	1)은행 보통예금 이자 5,002 2)총명부 판매 대금 135,000

지출부문(2019 회보)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150,240,010	
제작비		32,230,460	1)칼라 제작비(5회) 31,930,460 2)용마 win-win 쿠폰 제작비 300,000
발송비		30,666,460	1)회보 발송료 (해외지역 포함) 24,458,610 2)봉투 제작 및 발송 작업 제비 6,207,850
운영비		55,569,500	1)기획·편집비 (편집주간) 24,000,000 2)영상편집위원 활동비 3,600,000 3)편집주간 32면 증면 발행 성과급 6,000,000 4)영상편집위원 성과급 2,000,000 5)여직원 급여 19,440,000 6)회의비 529,500
축쇄판		10,000,000	1)회보 축쇄판 제작 계약금 10,000,000
기타		1,660,000	1)사진 구입비 40,000 2)여직원 퇴직적립금 1,620,000
이월금		20,113,590	1)은행 보통예금 20,113,590

제57차 정기총회 - 결산·예산서

2019년 제51회 기별야구 결산서

수입부문(2019 후원회)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27,918,136	
이월금		3,218,136	1)은행 보통예금 3,218,136
기별야구		24,700,000	
	기별야구	24,700,000	1)출전금 9,000,000
			2)협찬금(상세 내역 협찬금 리스트 참조) 15,400,000
			3)기수별 광고 300,000

지출부문(2019 후원회)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27,918,136	
기별야구		23,410,118	
	기별야구	23,410,118	1)회의비 2,177,000
			2)행사비(현수막30만, 도시락240만, 생수28만 외) 2,980,000
			3)심판비 2,000,000
			4)경기진행비(진행비, 식대, 청소 외) 3,423,598
			5)시합구 구입비 960,000
			6)시상품 구입비(우승컵, 트로피 18개) 1,000,000
			7)시상금 (우승, 준우승 외) 2,300,000
			8)대회운영비(타올 200만, 팜플렛 240만, 음향 등 55만, 초청장 30만 외) 5,422,520
			9)택배(감사품) 발송료 외 137,000
			10)폐막식 1,010,000
			11)야구부 회식 지원금 1,000,000
			12)덕형리그 지원금 및 회의비 1,000,000
	이월금	4,508,018	1)은행 보통예금 4,508,018

2019년 제21회 용마골프대회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19 용마골프)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30,096,218	
이월금		1,275,709	1)은행예금 1,275,709
참가비		5,720,000	1)참가비(40,000원×143명) 5,720,000
협찬금		20,700,000	1)회장단 협찬금(상세 내역 협찬금 리스트 참조) 20,700,000
			①회장 2,000,000
			②명예회장 1,000,000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③고문(2명) 1,000,000
			④자문위원(4명) 3,000,000
			(100만원×2명, 50만원×2명)
			⑤분과위원장 및 부회장(17명) 13,700,000
			(500만원×1명, 100만원×2명, 50만원×13명, 20만원×1명)
특찬금		2,400,000	1)특별 찬조금 2,400,000
			①동기회 (42회 70만원, 44회 50만원) 1,200,000
			②기타 1,200,000
기타		509	1)은행 예금이자 509

지출부문(2019 용마골프)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30,096,218	
단합회식비		8,730,000	1)단합회식비(해운대비치 골프 앤 리조트) 8,000,000
			2)일미, 떡 구입비 730,000
참가상		6,110,000	1)출전 선수 기념품비 6,110,000
			(골프공@46,000X85다즌=3,910,000)
			(기념타올@11,000X200개=2,200,000)
포상비		805,000	1)트로피 제작비 805,000
경품구입비		4,963,400	1)에어프라이어(@89,800x6개=538,800) 538,800
			2)공기청정기 889,000
			3)거리측정기 2개, 퍼터 2개 1,300,000
			4)로보트물걸레청소기 1,116,000
			5)머그잔, 커피잔 1,119,600
시타구		200,000	1)시타구 구입비 200,000
홍보비		927,850	1)문구 및 소모품비 16,850
			2)문자 발송비 50,000
			3)감사품 택배 발송비 161,000
			4)팸플릿 제작비 700,000
운영비		2,677,900	1)대회 운영경비 (회의 및 행사요원 식대) 570,900
			2)교통비 외 144,000
			3)업무추진비 167,000
			4)카트비 지원 1,520,000
			5)진행요원 모자 구입비 276,000
이월금		5,682,068	1)은행예금 5,682,068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야구후원회
운영결산서 10면 게재>

2020년 사무국 예산서

수입	전년이월		64,065,106
	이전 사무국 임대료 수입(5개월)8월~12월	월 50만원	2,500,000
	회비계		170,000,000
	임원회비		130,000,000
지출	기별분담금		40,000,000
	계		236,565,106
	모교지원금 (경고600+경중500)		11,000,000
	조직강화비계		93,600,000
	사무국 주관	분과위원장 모임(월강초밥) 1/4일	2,000,000
		분과위원장 모임(화관 회의실) 7/10일, 10/16일	300,000 600,000
	회의비	고문, 자문, 부회장단 회의(월강초밥) 1/10일	1,500,000
		고문, 자문, 부회장단 회의(화관) 6/26일	500,000
		운영위원 모임(청수장), 1/8일	800,000
		운영위원 모임(화관 회의실), 7/6일	300,000
		동기회장및국장총회,4/2일	3,000,000
		동기회장 및 국장 총회(화관 회의실) 7/22일	1,000,000
		직능&동호 회장 국장 총회, 3/25일	2,000,000
		직능&동호 회장 국장 총회(화관 회의실), 7/15일	700,000
		동판기부자 모임(월강초밥) 2/12일	1,500,000
		동판기부자 모임(화관 회의실) 7/1일	500,000
		기별야구 추첨행사 지원비(화관 회의실)	1,000,000
	행사지원비	정기총회(코모도) 3/25일	4,000,000
		경미회 격려 지원비 연 6회 500,000	3,000,000
		9개 지구 격려 지원비 연 6회 300,000	16,200,000
		직능&동호회 지원(15개) 연 1회 300,000	4,500,000
		5개 지역동창회 지원금(거제, 김해, 양산, 울산, 창원) 각 50만원	2,500,000
		동기회 지원(선착순 초대 10개 기수) 연 1회 300,000	3,000,000
		4, 14, 24, 34, 44, 54회 홈커밍데이 지원	500,000 3,000,000
		55회/56회/57회 창립 지원	500,000 1,500,000
		용마의밤행사지원비	24,000,000
		기별야구대회 지원비	2,000,000
		용마골프대회 지원비	1,500,000
		용마당구대회 지원	1,000,000
		용마배독대회 지원	1,000,000
		용마배독 고교대학대회 출전비 보조금 최대4회 500,000	2,000,000
		용마코스 지원비	1,000,000
		이태석기념사업회 후원금	1,000,000

지출	일반관리비계	홍보비	3,000,000
		경조 화환비	3,000,000
		교통비	1,000,000
		장학재단 임대료 월 150만원x6개월 5층과 6층	9,000,000
		인건비(사무국장+여직원 1명) 여직원 임금 5% 인상	57,526,200
		퇴직적립금	4,793,760
		복리후생비	1,200,000
		사무국 업무추진비	3,600,000
		사무총장 판공비	1,200,000
		통신, 우편료	2,500,000
		인쇄도서비	200,000
		사무실 관리비	9,000,000
		사무실 소모품비	2,500,000
		공과금	1,500,000
		접대 소모품비(커피 외)	2,000,000
		컴퓨터운영비	180,000
		기타잡비	100,000
	예비비		36,665,146
	계		236,565,106

2020년 동창회보 운영 예산서

수입	전년이월		20,113,590
	회보비(3600명)		108,000,000
	광고비		15,000,000
지출	계		143,113,590
	회보제작비		35,000,000
	회보발송비		32,000,000
	운영비계		62,699,920
		회보담당 여직원 급여	20,400,000
		퇴직금적립	1,699,920
		기획, 편집주간 급여	24,000,000
		영상편집위원 활동비	3,600,000
		기획,편집 주간 성과급(36p) 150만x6회	9,000,000
		영상편집위원 성과급 50만x6회	3,000,000
	이월 및 예비비	출장, 교통비	1,000,000
			13,413,670
	계		143,113,590

회 칙 (수정후)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경남중고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부평동4가) 소재 동창회관내에 둔다.
- 제 4 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 2. 동창회보, 동창회 회원명부, 동창회보 축쇄판 등 동창회와 관련한 출판사업
 - 3.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4. 장학 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재)용마장학회를 둔다. 동창회관의 재정적 운용은 용마장학회에서 관장한다.
 -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원은 경남중학교(토성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재학 중 전학한 자
 - 2. 동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타교출신도 당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동창회보 구독료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제3장 기 구

- 제8조 (기구) 본 회에 사무국과 (재)용마장학회를 둔다. 운영은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통한 다.
- 제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 3. 회장의 선출 및 승인.
 - 4. 회무 집행의 감독.
 - 5. 기타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추인
- 제10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 (3) 회원 10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3.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1조 (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 제12조 (이사회

- 의 기능) 이사회는 본 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상임·기획·총무·재정·체육·조직·홍보·사업·문화·대외협력·봉사·법률자문·해외·정책·보건·직능·의료·지역·IT·야구·동호 등 필요한 부문별 담당부회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
 -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 3. 고문(상임고문)과 명예회장의 추대.
 - 4. 사무총장 임명 동의
 - 5. 동창회관장 임명 동의. (재)용마장학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 6.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7. (재)용마장학회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재)용마장학회에서 선임
 - 8. 회원의 자격 상실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9.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13조 (이사회

- 의 구성)
- 1. 당연직 이사 : 고문,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동기회 회장, 동창회관장
 - 2. 이사회에서 인준 받은 지역, 지구, 직능, 동호동창회의 각 대표
- 제14조 (이사회

- 의 소집)
-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행사 때 소집한다.
 -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5조 (이사회

- 의 결의)
- 1.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 2.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의 회원 1명을 지명하고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사무국)
- 1.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와 경리 사무를 관장한다.
 -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7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모임 개최)
- 1. 집행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의 부회장으로 한다.
 - 2. 집행위원회 모임은 회장(또는 수석부회장)이 주관해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제18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토의 결의하여 추후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에 보고 후 추인을 받는다.
- 1. 회 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동창회보와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 3. 지역과 직능 동창회의 인준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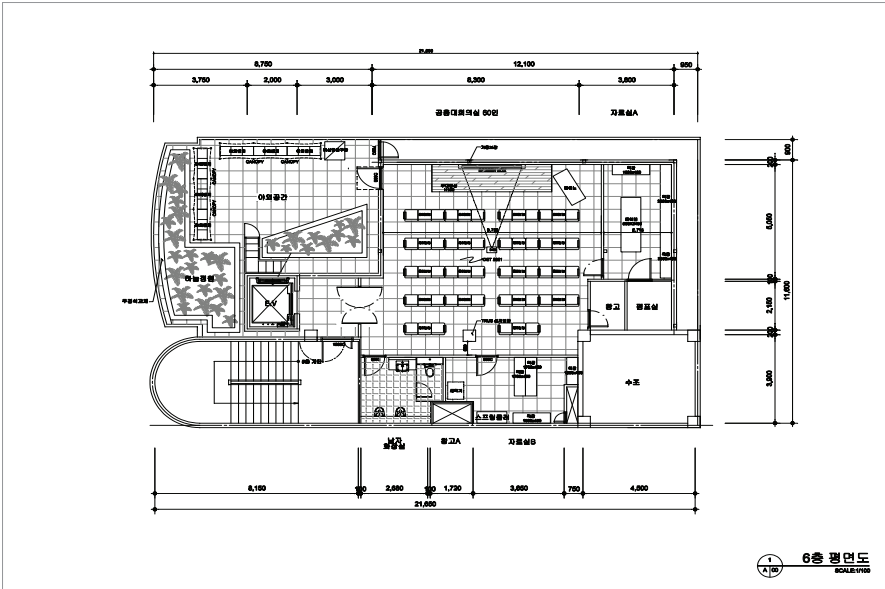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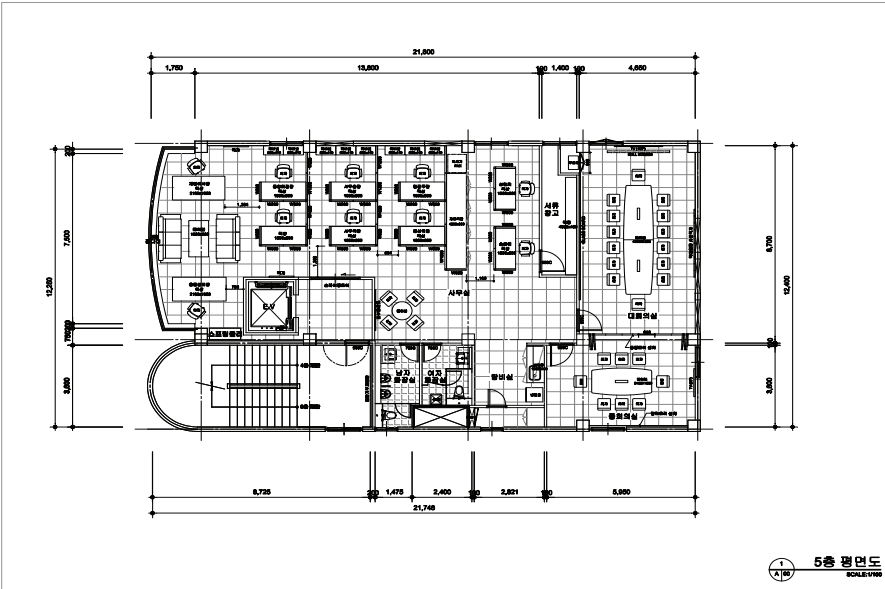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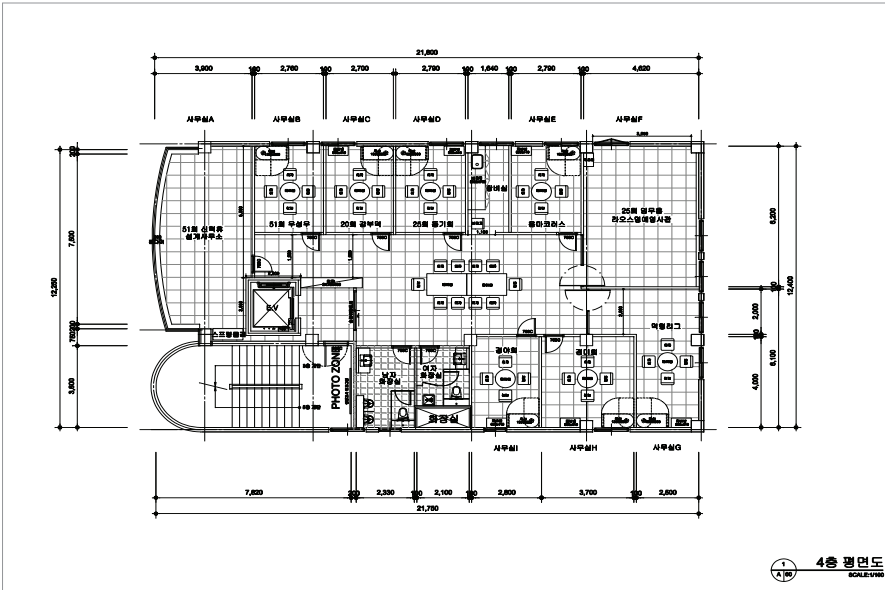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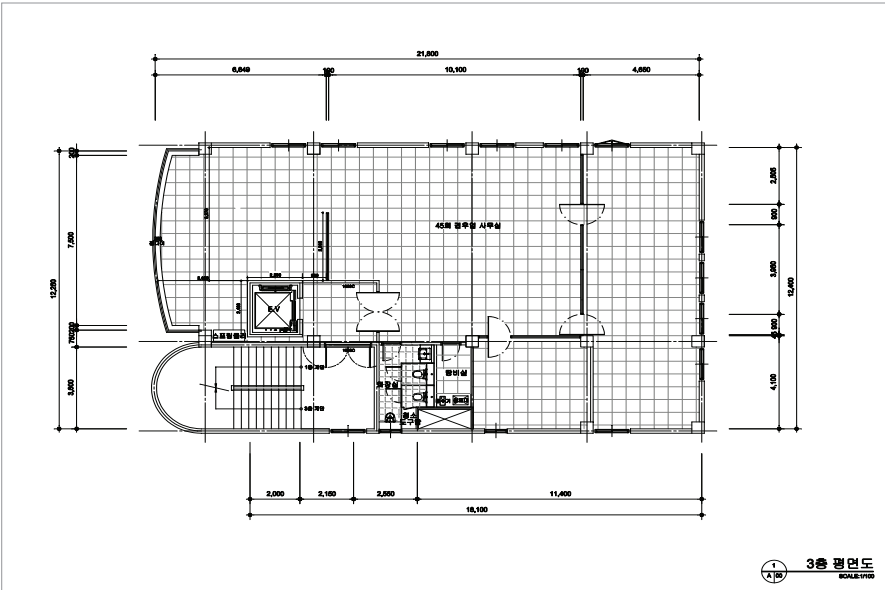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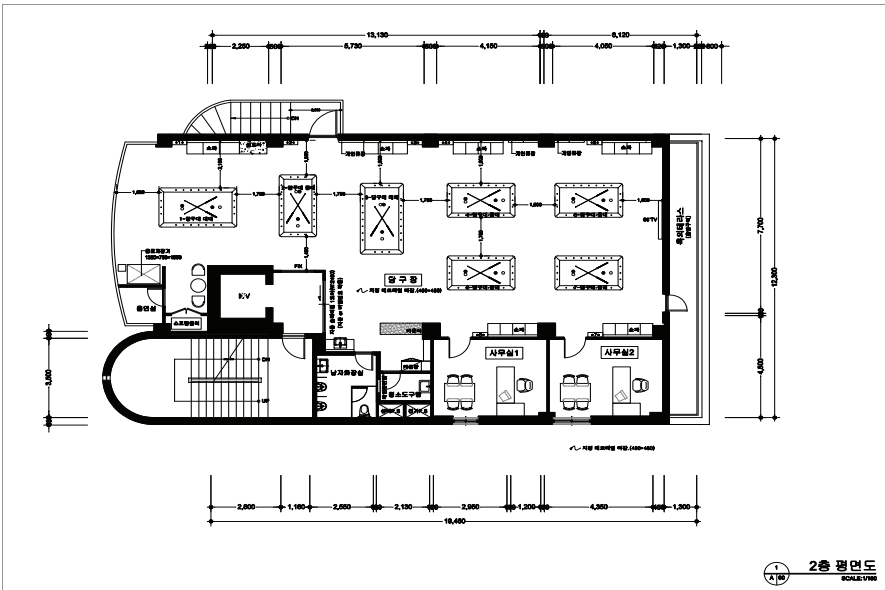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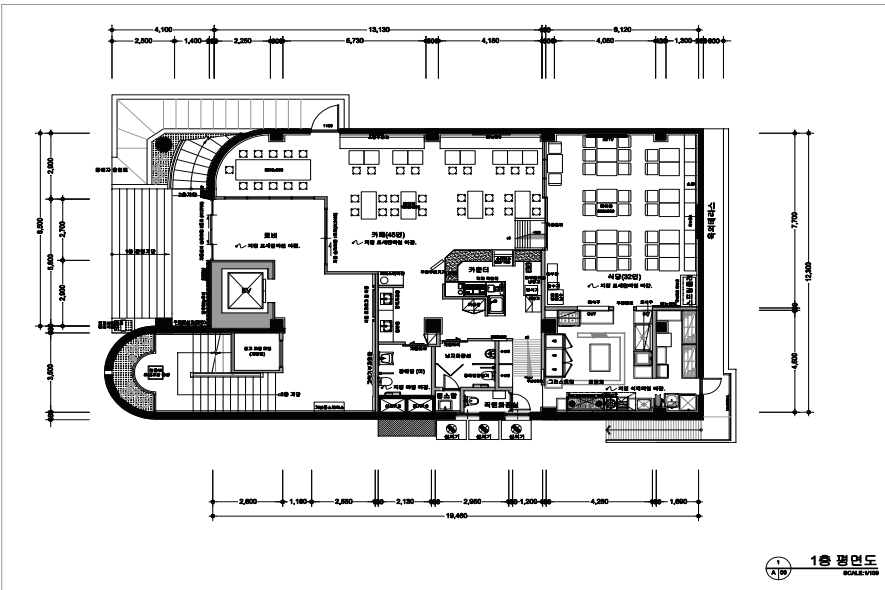
- 5. 기금 수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모교의 지원에 대해 (재)용마장학회와 상의.

제4장 임 원

- 제19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문 : 약간 명(상임고문 포함)
 - 2. 명예회장 : 1명
 - 3. 회장 : 1명
 - 4. 자문위원(위원장 포함) : 약간 명
 - 5. 수석부회장 : 2명(1수석과 2수석)
 - 6. 부회장 : 30명 이상으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일반위원회 소속으로 나눈다.
 - 7. 집행위부회장: 약간 명 (부회장 중 실무적으로 상시 회장을 보좌하는 부문별 위원으로 호칭은 예를 들어 기획담당부회장으로 칭한다).
 - 8. 운영위원회: 약간 명 (회장과 같은 기수의 동기생)
 - 9. 이사 : 회칙 제3장 제13조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 10. 감사 : 약간 명
 - 11. 동창회관장: 1명
- 제2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1. 고문(상임고문 포함)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3.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 2수석부회장은 차차기회장 후보가 된다.
 - 4.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5.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같은 기수에서 회장을 2명 배출할 수 있다.
 -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7.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8. 무급의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9. 유급의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년이 지나면 후임국장을 선임하고 1년은 같이 근무를 한다. 단, 연봉은 7:3(현임:후임)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10. 무급의 동창회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 (임원의 직무)
- 1. 고문(상임고문 포함)과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2.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1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회무집행과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이렇게 꾸며집니다 -각층 완성도면



<8면에 이어서>

제5장 동기회, 지역·지구 및 직능·동호동창회

제22조 (동기회) 회원은 졸업 연도별로 동기회를 결성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기회 회장은 회무 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역과 지구, 직능과 동호동창회)

1. 회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동창회를, 종사 직능에 따라 직능동창회, 취미에 따라 동호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다. 부산과 서울에는 지구동창회를 둘 수 있고, 지구동창회 산하의 소지역에는 지회동창회를 둘 수 있다.
2. 지역과 지구, 직능과 동호동창회 대표는 사

무국에 등록하고, 회무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4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동창회보 발행재정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4.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 1 조 본 회칙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 2007년 3월 28일
 - 2차 개정 2008년 6월 25일
 - 3차 개정 2010년 3월 16일
 - 4차 개정 2011년 3월 29일
 - 5차 개정 2012년 3월 21일
 - 6차 개정 2016년 3월 7일
 - 7차 개정 2017년 3월 9일
 - 8차 개정 2018년 3월 7일
 - 9차 개정 2019년 3월 6일
 - 10차 개정 2020년 3월 25일

임대 수익사업도 ‘용마의 명예’ 드높이는 전제 따라야

- 1층 카페 및 식당 사업 희망자 찾아
- 2층 당구장 운영할 동문 수소문
- 3층 전체 공간 권우일 동문 사업장 입주
- 4층 동문과 관련된 사무실로 임대 완료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모교 지원 재원 대부분은 이제 동창회관 임대사업 수익에서 나오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각 층별 임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 일은 사실 총동창회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가보지 못한 길을 찾아 가는 것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명문 경남중고의 명예와 동문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한다는 대전제를 세워두고 있다.

지난 3월 25일 현재까지 동창회관 임대사업은 의미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회관 3층 전체 공간은 권우일(45회) 동문이 사업장으로 이용하

기 위해 임대키로 했다. 4층에는 25회 동기회, 25회 임무홍 라오스 명예영사관, 경야회, 경미회, 용마코러스, 덕형리그, 그리고 20회 1명과 51회 2명으로 입주분양이 100% 완료되었다(9면 도면 참조).

각층 공간에 대한 운용을 살펴보면, 1층에 들어설 ‘1942 KN cafe & restaurant’에 대해서는 지면 아래 박스에 별도 소개되어 있다. 운영자를 찾고 있다.

2층 당구장은 용마장학회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동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2층 내 기원 설치 구상은 접었다. 기원 운영은 타산이 나오지

않고, 당구장 소음이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났다.

동문 위주의 사무실 공간이 될 4층은 인테리어 수준을 높여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만든다. 여기에 사무실용으로 입주한 각 기수 동기회, 직능 및 동호회, 스타트업 기업 등은 4층 자체 사용 10인용 회의테이블(3층도 보유) 외에도 5층 총동창회 사무국의 2개 회의실과 6층의 대형PT공간(약 66명 수

용)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각 사무실에는 회전식 데스크톱, 원형탁자와 의자 4개, 캐비닛, 벽걸이 냉난방 에어컨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월세는 20만~25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여 동문 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기본 입장을 세워둔 상태이다. 사무실 내 가구 배치는 입주자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

한편 동창회관 개관식은 오는 6월 20일에 하며, 각 층 사무실 입주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5월 30일 이후부터 가능토록 했다.



동창회관 2층에 들어설 당구장 모습.



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 기념 촬영 장면.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동창회관 1층 카페와 식당 이름 선정 ‘1942 KN cafe & restaurant’

‘1942 KN cafe & restaurant’. 동창회관 1층에 들어설 카페와 식당 이름이다. 고려제강 갤러리 이름 ‘F 1963’을 벤치마킹했다. 모교 창립연도 ‘1942년’과 ‘경남’의 영어 이니셜을 따온 ‘KN’을 조합했다. 지난 2월 22일 밴드상으로 카페와 식당 이름을 공모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총동창회 집행부가 고심해서 이름을 결정지었다.

총동창회는 카페와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키로 하고 사업자를 물색 중이다. 용마장학회에서 도면상에 표기

된 모든 집기(장비 및 가구 일체)를 제공하여 추후 계약파기 시 권리금 등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월세는 월 300만원으로 책정해 두었다. 레스토랑 메뉴는 한식으로 한정했다. 식사를 겸한 동문 모임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카페와 레스토랑 사업자는 동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동문 희망자가 없으면 일반인에게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5월 초순이면 현장 확인 방문이 가능하다. 문의 : 총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경남중고인’답게 동문 위한 공간”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진행 보고회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리모델링사업 진행 보고회가 지난 2월 12일 오후 서면 월강일식집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는 총동창회관 기금 모금 고액기부자와 집행분과위원장 등이었다. 이날 보고회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의 개괄적인 추진상황보고에 이어 리모델링사업 프로젝트 매니저격인 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의 각 층별 추진 내용 설명으로 진행됐다.

박 총동창회장은 “오는 6월20일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문들의 호응도가 높다. 3층은 권우일(45회) 동문이 전체 임대를 약속했고, 4층은 10개 사무실 중 9개가 동문들에게 사전 분양됐다. 1, 2층 임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용건회 회장은 건물 사용 계획, 추진 일정을 소개한 뒤 도면을 이용해 각 층별 공간 활용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서 이 회장은 건물 계단은 모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갤러리 홀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추가 설명 자리에서

“동창회관과 관련하여 대표전화번호·내년도 캘린더·회의실용 의자 등 동문들의 다양한 기부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동창회관을 ‘경남중고인’답게 동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에서 온 고액기부자인 이경재(13회) 동진생명연구원장) 동문은 “동문회는 리더가 중요하다”면서 박 총동창회장의 업무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지금 좋은 기(氣)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 동문 전체가 같이 받도록 하자.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참석자=이경재(13회) 유재진(22회) 서병수(25회) 이영학(26회) 김대욱(29회) 박성철(29회) 류명석(31회) 정윤성(35회) 박진용(36회) 신동훈(38회) 박근태(39회) 우영환(40회) △총동창회 사무국-박종찬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2019년 야구후원회 운영 결산서

수입부문(2019 후원회)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37,067,096	
이월금		13,464,332	1)은행 보통예금 13,464,332
후원금		23,600,000	
	기별후원금	23,600,000	1)2019년도(34개 동기회) 23,600,000
기타		2,764	1)은행 보통예금 이자 2,764

지출부문(2019 후원회)

(2019. 1. 1~2019. 12. 31)

과 목		2019년 결 산 규 모	
관	항	결 산 액	산 출 근 거
합계		37,067,096	
지원비		500,000	
		500,000	1)경남고 야구부 고사 협찬금 200,000 2)경남고 야구부 출정식 협찬금 300,000
우승축하금		3,000,000	
		3,000,000	1)경남중 대통령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우승 축하금 3,000,000
훈련비		25,000,000	
		25,000,000	1)경남고 동계훈련비 지원금 25,000,000
이월금		8,567,096	1)은행 보통예금 8,567,096

용건회 3용마, '기쁨의 봉사' 마음으로 '손발 척척'

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 현장 지휘
이양결(41회) 동문, 지하, 1~2층 등 맡아
전삼록(41회) 동문, 3~6층 대개조 비지땀

경남중고 동창회는 '인재의 보고(寶庫)'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다. 용마들은 이를 자랑으로 여기고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다. 이번 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건축·건설분야로 특정하지만, 동창회의 인적 자산이 양적 질적으로 얼마나 풍부하며 우수한지가 입증되고 있다.

용마 건설인 모임인 용건회 소속 동문들이 이 공사에 대거 참여,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서 또렷이 부각되는 3인이 있다. 이번 공사의 '야전사령관'격으로 현장 지휘관인 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과 주요 시공 계약자인 이양결, 전삼록 두 41회 동기생이다.

올해 창립 28주년을 맞는 용건회는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 심적 부담감은 재건립에 버금가는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일이 용건회 회원들로선 '기쁨의 봉사'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이영학 회장은 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30회 기수부터 60회 기수까지 동문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땀 흘려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표현했다. 이 회장은 치밀하고 세세한 설계도면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실력과 경륜을 갖춘 부드



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

러운 카리스마에 시공에 참여한 후배 동문들은 환한 미소로 승복하고 지도를 받는다.

이 회장은 "어느 공사현장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특이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건축설계의 치밀함이 몸에 밴 건축사의 시선으로 본 3가지 분석이다.

첫째, 공사에 임하는 동문들의 눈빛이 반짝거리고, 얼굴은 불그레한 화색을 띠고 있으며, 독단적이지 않고 소통하며,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승고한 모습'이 보인다.

둘째, 현장에서는 눈에 노출되지 않는 기초시설까지도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정성스럽게 작업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셋째, 오는 2022년 개교 80주년을 맞는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대한민국 전체를 포용하는 더 넓고, 더 깊은 영역으로까지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낀다.

이 회장은 현재 건축사사무소 이상향 대표로 활동 중이다. 고리원자력 주변 주민숙원사업계획 설계, 서구청사 리모델링 설계 등 많은 실적을 갖고 있다.



이양결(41회) (주)이노아이디 대표이사

시공을 맡은 41회 두 사람은 전·현 동교회 회장이다. 그만큼 동기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을 믿고 일을 맡겨준데 대해 '작품'으로서 고마움을 보답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양결 동문은 2009년부터 총동창회 부회장직을 맡는 등 동창회를 위해 줄곧 봉사해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테리어 전문 사립도서관을 2013년 설립, 5년여를 운영해온 '인테리어맨'이다. 1993년 업계에 뛰어들어 2000년에 회사를 설립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다. '내가 그린 점이 선이 되고, 내가 그린 선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게 이 동문의 모토이다. 이 동문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기획, 설계, 시공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이번 총동창회관 공사는 동문 한 분, 한 분의 정성어린 성금과 열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또 저 역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이 올해 경남중학교에 입학한 부자(父子)동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명품 동창회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전삼록(41회) (주)그린아이디 대표이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동문은 현재 (주)이노아이엔에프와 (주)이노아이디의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도 부산 송도에서 신축 메리어트호텔 인테리어 총괄 감리 및 카페와 레스토랑을 시공 중에 있다.

전삼록 동문은 동창회 숙원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찬 회장님이 글로벌한 선박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시행사격인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의논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멋진 총동창회관'이 건립되리라 본다"고 전 동문은 전망했다.

전 동문은 1991년 업계에 발을 들여 놓고, 2002년에 (주)그린아이디에 입사하여 '내공'을 쌓은 후 2017년에 대표이사가 된 실력파이다.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 동문의 (주)그린아이디는 금융권과 병원 공사를 주로 해오고 있는 기업으로 BNK 경남은행, 부산은행, 캐피탈,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많은 실적을 쌓았다.

동창회관 리모델링·개관에 현물 기부도 줄이어

이상현(43회) 대표전화번호, 김백권(46회) 의자, 황종민(53회) 동문 달력 기부



이상현(43회) 동문



김백권(46회) 동문



황종민(53회) 동문

동창회관 리모델링이 관련업계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기금 기부와 병행해 다른 형태의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경남중고 용마들의 보급자리가 될 동창회관을 보다 멋지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고품격으로 만들고 싶다는 동문들의 의지로 평가된다. 사무국 이전 시 냉장고 등 각종 비품 기

부들 타진해오는 동문도 있다.

이상현(43회·경야회 실무부회장) 동문은 총동창회 대표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부했다. (051)253-7788로 외우기에 좋다.

총동창회는 이 전화번호를 동창회관 개관과 동시에 대표전화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동문은 "부친이 물려준 전화번호인데 사용하지 않고 유지만 해 온 것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7788'은 '칠칠팔팔'로 읽혀 기차와 관련된 전화번호로 사용

돼 오고 있다. 향후 힘차게 달리는 기차의 모습처럼 총동창회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을 수 있겠다.

김백권(46회) 동문은 동창회관 6층 내강당 겸 대회의실에 사용할 의자 66개를 기증한다. 이곳은 총동창회 사무국에 부속되는 자료실 겸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에 기부한 의자는 고가의 항공기용 의자로 매우 안락하다고 한다. 공항 보안 시설 관련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 동문은 지난 2월 초 경미회 신년회 자리서 박 총동창회장에게 항공기용 의자 보유 사실을 우연히 언급한 게 인연이 되어 기부하게 되었다.

황종민(53회) 동문은 동창회관 개관식 기념 선물로 2021년도 달력 2천부를 기부로 했다. 황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동아P&P는 동창회보 제428호부터 제작·인쇄를 맡았다. 황 동문은 일찍이 기업에 뛰어들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유능한 인쇄인이다. 부친인 황성일 회장은 지역의 원로 인쇄 및 출판인으로 현재 목요학술회 회장을 맡고 있다. 부산 문단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황 동문의 이번 기부에는 '부친자전(父傳子傳)' 이치가 담겨 있다.

한편 오기현(20회) 동문은 2층 당구장 설비 구매 가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당구 1만 다마의 최상급 고수인 오 동문의 '재능기부'인 셈이다. 오 동문은 '절친 동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 때마다 법정에서 100% 출석하고 있는 '의리파'로 알려져 있다.

골든OT 사무국, 영광의 27년 접고 ‘제2 부평시대’ 준비

술한 인재의 등지 ‘제1 부평시대’ 구가…6월 1일 이전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제1 부평(富平)시대’가 저물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제2 부평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시티오피스텔 4층 소재 총동창회가 바로 옆 6층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이전해 간다. 사무국은 오는 6월 1일 이전하고, 동창회관 개관일은 6월 20일이다. 1993년 4월 14일 입주하여 터를 잡은 지 27년 만의 ‘거보(巨步)’이다.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총동창회는 ‘제2 부평시대’ 개막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이 낳은 기억들을 정리하고 있다.

골든시티OT 현 총동창회 사무국은 3칸 규모이다. 그때의 기쁨도 무척 컸다. 1950년 동창회 출범 43년 만의 ‘내 집 마련’ 경사였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 용(龍)빌딩에서 11년 동안이나 셋방살이를 하던 처지였기에 더욱 그랬다. ‘본부회관’ 개관하던 날 200여 동문이 참석, 고사(告祀)를 지냈다.

이제는 사무실 주인에서 빌딩 주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동창회관은 대지 115평, 건평 82평, 연건평 535평 건물로서 최고 수준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단 2년여의 단결과 화합, 헌신과 우정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의 골든시티OT의 좋은 기운이 이 같은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동안 국가동량의 무수한 인재들이 쏟아진 사실도 이를 증언하고 있다. 이제는 동창회관이 그 역할을 맡아 줄 것이다. 골든시티OT 사무실 구입 역시 국내외 동문들의 성원으로 이룬 결실이었다. 그 성원이 밑거름이 돼 지난 27년 동안 펼친 제1 부평시대는 ‘영광의 시간’이었다.

제2 부평시대를 앞둔 총동창회 사무국은 이전을 두 달여 앞두고 이삿짐 정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자료는 이미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 아주 오래된, 그동안 쌓아둔 ‘묵은 자료’들을 일일이 정리하는 작업이다. 새로 입주해가는 동창회관은 가히 호텔수

준급으로 깔끔하고 단아하게 리모델링되며, 동창회 사무국 역시 스마트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에 걸맞은 각종 사무실 집기 공간 배치와 자료 정리가 모색 중이다.

지난 3월 3일 리모델링 공사를 진두지휘하려고 사무국을 찾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과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은 짬을 내 예전부터 보관해온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필요성 유무를 따져가며 정리하는 작업을 펼쳤다. 남자문위원장은 사무국을 방문할 때마다 사진 분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사무실은 임대를 놓을 계획이다. 3개의 방으로 리모델링한다. 총동창회 보유 자산으로 계속 남게 된다. 어쨌든 골든시티OT는 용마와는 질긴 인연인 셈이다.



총동창회 사무국에 보관된 낡고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는 모습.



27년 동안 사용해온 부평동 골든시티오피스텔 총동창회 사무국 정경. 왼쪽은 사무국 내부 회의실, 오른쪽은 사무국 정경.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코로나19사태에 동문모임도 “쉬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각종 행사 줄줄이 취소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확산된 가운데 경남중고 동문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시대적 긴박상황에서 대면과 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보니 각종 동문 모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총동창회는 지난 3월 25일 정기총회를 치르면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애초에 지난 3월 4일로 일정을 잡았다가 25일로 연기한 것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42명 참석 규모로 축소해서 치렀다. 분과위원장회의는 2월 27일에서 3월 12일로 연기되었다가 아예 취소돼 버렸다. 다행히 동창회관 리모델링 사업 진행보고회는 2월 12일 예정대로 치러졌다. 동창회관 리모델링 일정을 감안해서 행사가 강행되었다.

지구동창회 역시 정기모임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국면을 맞았다. 사하지구동창회는 새해 들자 ‘야심찬 신년회’를 2월 13일 개최기로 하고 치밀한 준비작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력에 동문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결국 기약 없이 일정을 연기하고 말았다. 이어서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가 2월 19일, 동래·금정지구동창회가 2월 21일, 해운대지구동창회가 2월 27일의 정기모임을 각각 취소했다. 3월 들어서도 남부산지구동창회가 3월 18일 정기모임을 일정에 없이 연기했다. 강서지구동창회와 북부산지구동창회, 그리고 중부산지구동창회의 경우는 정기모임 일정을 잡기

도 전에 행사 잠정유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울산지역동창회는 2월 20일 정기총회 겸 회장·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무기 연기했다. 신임 회장과 퇴임 회장의 인사말은 밴드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신임회장의 임기시작을 고지했다. 양산지역동창회(경양회)도 3월 정기모임을 취소했다.

이 같은 행사 취소·연기 사태는 동호회와 직능단체에도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덕형리그는 지난 2월 29일 경기부터 경기가 중단되었다.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부득이 덕형리그 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용마산악회는 지난 3월 8일 새해 첫 정기산행(총218차)을 거제 북명산에서 가질 계획이었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바다 조망이 좋고 바위암릉이라 편안하고 즐거운 새봄맞이를 계획했던 산

악회는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용마코러스도 지난 2월 25일부터 매주 화요일 갖는 정기연습을 중단했다. 코로나19사태가 극복될 때까지 ‘긴 방학’에 들어간 셈이다. 오는 5월 13일 열릴 예정이던 이태석신부기념음악회도 무기 연기되었다. 용마코러스는 연습 부족을 우려해 음원을 밴드와 단독방에 올리는 등 ‘자가연습’에 치중하고 있다.

용마골프회도 지난 3월 31일 개최기로 했던 정기 라운딩을 취소하고 오는 4월 29일 행사를 갖기로 했다. 용마언론인클럽도 2월 25일 정기모임을 취소하고 사태의 추이를 보기로 했다.

한편 모교인 경남고와 경남중은 졸업식도 외부인사 참관 없이 각급 교실에서 치르고 말았다. 경남고는 지난 2월 29일 예정이던 야구부기원제를 취소했다. 모교 역시 개학도 몇 차례나 연기하는 등 학사일정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입학식은 개학 시 외부 인사 초청 없이 단출하게 각급 교실에서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고>

‘코로나’가 안겨준 용마코러스 명암

용마코러스 사무국장 박근태(39회·부산대 교수)



한겨울의 추위를 넘어 봄을 맞이하는 2월과 3월이 너무나도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혼돈의 시기

로 지나갔다. 이 바이러스 광풍과 함께 초유의 개학 연기, 모든 대학 강좌의 채택(온라인) 강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많은 용어를 만들어 내며 우리의 일상생활도 큰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용마코러스 역시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매우 힘든 상태이다. 2년 전부터 용마코러스의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이태석신부기념사업회 주최의 공연이 얼마 전 연기되었다. 이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감염으로 놀라운 전파력을 가졌다. 합창단 같은 집단에서는 치명적인 상태로 다가와 있다. 노래는 비말을 만드는 작업과도 같은 행위이다. 따라서 많은 아픔을 뒤로 하고 용마코러스는 부득이 연습을 잠시 중단한 채로 무기한 방학을 맞이하고 있다.

용마코러스는 작년 각종 공연 행사의 성공적 진행과 함께 지속적인 단원 증가를 목표로 하였고, 많은 동문들의 관심 속에 용마코러스에 입단하는 동문수의 증가로 연습실의 과포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올해 1월 정기총회 후 새 집행부를 꾸리고, 현재 40여명의 단원을 50명 이상으로 충원하여 도약하는 용마코러스로서 주변에 좋은 음악과 희망을 주려는 의지로 의욕적인 출범을 하였다.

실제로 최근 동문들의 관심 증대와 아울러 신입단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전공자(전상진·35회)도 입단하는 등 용마코러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용마코러스도 동창회관 입주 사무실 운용을 포함하여 각종 행사 계획과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합창단 운영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적 상황에서 조그마한 바이러스로 시작된 문제로 인해 현재 우리가 목표로 했던 많은

일들을 풀어낼 시·공간적 해결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강구되는 방안 중 하나가 밴드나 단독방 등 SNS 공간을 활용한 연습 음원의 전달을 통한 개별 연습정도이다. 현재의 팬데믹(Pandemic) 상황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의 주변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모 신문기사에 프랑스 사상이인 자크 엘뤼이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보고 전체까지 보라’라고 한 말을 읽었다. 작금의 어두운 현실에서도 밝은 빛이 보이는 곳도 있다. 교통량과 공장 가동시간이 줄어 최근 미세먼지가 많이 감소되어 푸른 하늘을 볼 기회가 많아졌고, 베네치아는 관광객 감소로 물이 맑아지는 등 지구적인 환경에서는 밝은 면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합창단도 장기간의 연습 중단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상의 즐거움과 단원들 간의 정이 그리워진다. 이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생각하지 못한 용마코러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시기가 아닌가 한다. 아마도 현재의 상황이 정리되고 합창단의 활동이 재개되면, 우리 단원들은 이전과는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용마코러스 활동을 펼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 용마코러스 역시 따뜻한 날과 함께 힘찬 목소리를 던지며 우리 용마가족과 지역사회에 좋은 음악으로 날갯짓할 것을 기대한다. 음악은 힐링이며 노래를 부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순간 사라지고 노래에 나의 모든 마음이 맞추어진다. 특히 합창은 단원 각자의 소리를 정해진 음역대에 맞추어 통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개개의 좋은 마음이 맞추어지면 정말 좋은 소리들로 채워진 우리의 합창이 만들어지며 우리 영혼도 같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이후에 소주도 한잔 하면 더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한 주가 행복으로 가득찰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이 날이 하루 빨리 다시 시작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동문들께서 용마코러스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단원으로 참가하고자 한다면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 정면 모습(위)과 옆으로 세워둔 모습.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 발간

흑백판 1,200면 1,000권 출판, 17년 만에 이룬 역작
용마인걸 활약상 한 눈에...동문 38명 광고 협찬 성원

경남중고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이 발간됐다. 동창회보 제301호(1998년 8월 1일자)부터 제400호(2014년 2월 25일)까지의 지면 전체를 한권의 책에 담았다. 흑백판으로 1,000권을 발간했다. 책의 분량이 1,200페이지에 달한다. 지난 2003년 제3집(201~300호) 발간 이후 17년 만에 이룬 역작으로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걸어온 역사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술한 용마인걸들의 활약상이 커커이 쌓이고 쌓였음을 입증해 보였다.

이번 축쇄판은 16년 세월의 경남중고 총동창회 역사를 엮은 것이다. 한눈에 그 역사를 훑어볼 수 있다. 역사를 통찰해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발간 동창회보 각 호마다 전산작업을 통해 보관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기능은 책을 따라가지 못한다.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 발간은 개교 80년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또 하나의 역사의 매듭을 묶으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역사의 거울’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축쇄판 제4집 제작 과정에서 깊고 넓어가야 할 사안들도 부각됐다. 동창회보 발간 면수가 점차 늘어나서 100호 단위로 묶는 축쇄판은 제작이 힘들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동창회보가 24~32면으로 증면 발행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100호를 한 단위(집)로 묶되 축쇄판을 2권으로 나눠 제작하든지, 아니면 50호 단위로 발간하든지 숙고해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흑백판 인쇄본보다는 컬러판 제작이다. 경비 문제가 있지만 광고 협찬 등 여건이 가능하면 격조 높은 컬러판으로 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불어 동창회보 발간 이후 인쇄용 PDF파일의 보관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번 제4



펼쳐놓은 축쇄판 4집.

집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었다. 축쇄판 4집 제작에 많은 동문들이 광고 협찬으로 성원을 했다. 이 또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동문애의 발로이자 헌신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축쇄판은 안풍(28회) 동문이 운영하는 인쇄매당에서 제작을 맡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쇄판 제4집은 권당 3만원에 판매 중이다. 문의 경남중고 총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광고 협찬자 명단(협찬금 단위: 만원)=송규정(16회) 100, 이용흠(19회) 50, 강창수(21회) 100, 유재진(22회) 100, 김영기(23회) 100, 김익수 50, 김정학 30, 김종현 30, 김진철 100, 박세철 30, 박종찬 100, 이명철(이상 25회) 30, 김태우(27회) 50, 노영현 50, 백영호(이상 28회) 50, 김대욱 50, 박성철(이상 29회) 50, 윤성덕 100, 윤인태 30, 최우철(이상 30회) 100, 박종호 100, 손영태 100, 홍성수(이상 31회) 100, 이종휘(32회) 30, 김법영 100, 박명진(이상 33회) 100, 이진호(34회) 50, 장인화(35회) 100, 박진용(36회) 50, 허부남(37회) 100, 권두성(38회) 100, 박근태(39회) 30, 우영환(40회) 100, 탁정환(44회) 50, 정신(47회) 50, 박종현 50, 백광선(이상 50회) 30, 신현식(51회) 50.

기부자 리스트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동문 총원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이상 등급부여자 명단은 별도 : 2020년3월26일 기준)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자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1회	김근준	200		12회	김종일	10		17회	김창운	300		19회	백영철	10		23회	김동욱	50		25회	김옥권	20	
3회	김희철	30			김진갑	20			김태호	20			석무관	100			김상영	60			김옥철	50	
	원용신	10			김철기	100			김효남	10			성낙출	150			김용기	20			김용경	10	
4회	김주호	20			김춘광	10			문석웅	50			성한진	20			김용선	30			김용수	10	
	박석만	20			김효구	10			박가식	100			손말현	10			김태용	120			김우형	30	
	박흥기	30			박영운	10			박신도	200			신윤철	40			김현	30			김영명	30	
	양종학	300			박용운	10			박영두	20			심영섭	20			노영배	200			김유환	10	
5회	장수호	100			박정운	10			박영일	10			안정모	20			박수갑	100			김인	10	
	정순모	200			박종정	100			박인사	100			오일환	100			박재호	10			김인섭	30	
	정인조	100			박창수	30			박재구	20			이만호		10		방경부	10			김장형	30	
	상기중	30			안상직	30			박중구	100			이명환	100			배중순	20			김정학	80	
6회	임성업	30			안영규	20			박청홍	100			이성달	200			서영수	100			김종국	20	
	진도영	30			안영배	10			백철균	10			이양환	20			서한현	10	10		김종만	30	
	김윤용	10			엄태섭	30			서재홍	20			이용만	10			손근식	100			김종윤	100	
	나오연	100		오세정	20		서정승		200		이장희	150		송충송	60			김종현	180				
	노재형	10		옥계한	100		손성근		200		이종명	20		신상희	120			김진우	100				
	오영은	200		왕한균	100		송유근		30		이창운	100		안병율	20			김창욱	100				
	이길상	30		윤성희	12		송인문		100		최덕열	10		안병화	20			김창호	10				
	이희문	80		이수영	10		신경아		10		최연근	10		안성민	100			김청수	50				
	임경택	10		이승훈	10		신중		30		최화익	10		옥치범	300			김태선	30				
	장재수	20		이용연	50		안정의		30		함진복	50		원인건	230			김형근	20				
	정건용	10		이원우	100		여성렬		10		황태경	20		육병천	20			노태호	100				
	정상철	30		임정명	30		오태식		100		황호균	100		윤순현	210			도재문	30				
	정세동	20		정대식	10		우기남		50		강석근	300		이덕남	10			박광용	20				
	최상해	10		정영철	200		윤수성		30		강영환	10		이동성	100			박동건	100				
7회	허택	30		최병준	10		이건우		100		김세준	100		이문희	200			박맹우	30				
	이우호	50		최병훈	10		이성흙	30		김원률	10		이병용	10			박문갑	20					
	김호용	10		최신일	20		이수창	100		김일석	100		이병찬	350			박병철	30					
	김진홍	100		탁해정	10		이우기	10		김태선	300		이상렬	30			박세철	380					
8회	공상태	100		하일민	30		이일영	10		박형준	100		이상수	350			박원규	30					
	구본섭	100		한춘배	10		이정보	10		배서호	200		이수백	220			박을영	50					
	안종렬	100		구덕건		10	이종길	10		백문찬	100		이충호	130			박종근	30					
	윤상현	10		김정성	30	10	이종혁	100		신원기	200		전상대	30			박종기	100					
9회	이윤조	100		안성문		100	이형우	100		이실근	100		전영조	220			박진국	30					
	장혁표	100		이정명	30		장승구	200		장상배	300		전원익	30			박창준	10					
	김영국	20		정철기	30		장호남	10		장춘식	10		정상건	230			박창훈	10					
	김중호	50		황일인	100		전경명	100		정규식	300		정용호	100			박헌구	30					
	김태영	10		배대결	20		정량부	100		정용환	300		조현표	50			박호철	30					
	박당희	20		신하근		100	정태일	100		차상곤	200		채행운	130			박홍기	30					
	성백규	10		윤기갑	20		정해표	10		채경석	200		최인식	70			배기동	30					
	신석현	20		김용호		10	제양성	50		최장하	300		하복진	20			배대관	30					
	이대규	100		김화옥	20		조용운	30		한기완	100		허영곤	50			배동명	50					
	이영구	10		박병선	100		천용관	10		허남균	300		곽두희	100		서민상	10						
	정행권	100		류충일	100		추봉실	110		김성환	300		김인구	20		서보민	50						
	한동대	50		윤영현	100		하영수	300		김기현	50		노상우	150		서인진	30						
	황영선	20		이길미	100		허중언	30		양경현		20	박극제	100		성대기	30						
	10회	김상국	20		장하교		20	황중부	10		윤승근	100		손세영	200		성백희	20					
김선동		20		서정욱	10		현태일	100		윤진원	10		이상룡	10		손국영	50						
김성규		50		이상모	30		김경걸		50	전우성	200		임민호	50		손기천	250						
박재경		10		임영길	100		김동회	100		정갑식		10	정영석	100		손원	100						
박종문		20		홍익찬		50	김재창	50		정상인		20	정윤상	50		송무룡	30						
신대수		20		하정부	10		김준길	100		최점수	50		하재갑	100		송영근	200						
오강욱		200		강종국	10		류종우	30		강봉기	100		강수명	20		신성기		300					
이봉원		10		강진중	10		박석도	50		구자룡	100		강용주	50		신성우	100						
이언희		20		김상호	100		박준성	20		김도살	100		김경찬	50		신성찬	100						
11회	임호웅	20		김선명		10	서재봉	50		김동욱	100		고명식	20		신수영	20						
	전영대	20		박춘호	10		장기영	20		김동원	300		곽동원	100		신현대	10						
	정승석	50		여성국	10		황광건	200	100	김문관	20		구도근	10		안대상	10						
	허영오	200		최천수	50		강영범	10		김성재	50		구자훈	50		안영복	10						
	공상기	100		홍용찬		50	김경재	150		김우홍	300		권수갑	20		안태길	10						
	김재곤	30		강주수	10		김광욱	10		김일준	60		권태용	10		안희석	50						
	박병호		20	권경술	100		김문기	20		김정곤	200		권태진	30		양계현	10						
	백연균	30		김길호	100		김삼도	10		김종귀	50		김건우	100		여성조	10						
	심재룡	120		김동조	10		김석운	20		노세현	260		김광돈	10		예종복	30						
12회	안강태	100		김두백	10		김양곤	50		민훈기	10		김구화	30		예해덕	100						
	강수현	200		김무부	100		김영우	200		박상갑	50		김규진	50		오양득	150						
	강창수	30		김백수	300		김재근	100		박언표	100		김길수	50		오태관	30						
	구봉근	30		김병문	30		김정국	10		박재인	50		김대현	100		옥동훈	30						
	권시길	20		김상천	100		김중기	10		손연모	100		김덕우	30		우경욱	50						
	김부생	30		김성락	10		김천국	50		이동열	100		김동식	10		우상룡	50						
	김상희	10		김성오	50		김철호	100		이웅규	30		김동진	100		우진태	100						
	김선일	30		김승현	100		남기진	100		장무성	100		김동철	20		윤봉한	10						
	김성찬	50		김용구	100		남진현	200		장영근	100		김령	20		윤순기	30						
	김수원	10		김조일	10		박갑진	130		정해진	50		김문국	20		윤영순	50						
	김용호	10		김준연	110		박동화	300		조윤재	200		김상수	100		윤종렬	50						
	김우성	10		김준위	100		박상식	80		최학봉	100		김상필	50		윤진호	30						
	김종수	50		김지창	30		박종화	100		김기열	10		김수석	10		윤태석	10						
	김종원	10					배무삼	30		김동옥	250			김연석	50		윤희승	30					

기부자 리스트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동문 총원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이상 등급부여자 명단은 별도 : 2020년3월26일 기준)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기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25회	이근 만	30		26회	김민철	30		28회	박영규	200		30회	권영인	30		31회	김 만	100		32회	최재선	10	
	이기중	20			김우갑	50			박재훈	20			권용택	50			김명우	10			최재호	12	
	이대우	100			김종우	200			박종기	150			구을석	10			김병기	10			최주홍		10
	이동석	30			김태권	10			박진화	20			김경수	30			김부영	10			최진섭	200	
	이동익	50			김태용	10			배효진	20			김기섭	100			김상수	10			최해영	12	
	이민희	20			김 형	200			서영대	150			김기수	10			김성수	300			최효식	70	
	이상범	50			김호용	300			송명석	20			김기업	50			김시현	10			하명수	30	
	이상식	10			박경수	100			안 풍	110	30		김백수	30			김영수	10			하학열	120	
	이상훈	50			박군석	20			엄보용	100			김상직	10			김영철	22			한광규	12	
	이석희	30			박권병	200			엄재홍	200			김성복	10			김원태	10			허일현	12	
	이성웅	20			박장현	50			옥상근	300			김세일	30			김의석	10			김대식	100	
	이수영	200			박효대	300			옥준원	100			김승대	10			김재술	60			김상권	150	
	이순철	20			배용호	50			윤경섭	200			김옥성	10			김정덕	12			김상범	10	
	이승욱	20			성재일	200			이경포	200			김재수	30			김정택	12			김종일		20
	이신화	10			성재업	50			이만수	300			김정태	50			김종호	120			김창범	20	
	이우석	30			손영수	20			이만재	100			김종진	30			김진국	12			문우식		20
	이재환	10			송동준	10			이민우	20			김종휘	100			김태근	100			민길식		10
	이찬형	30			양준영	50			이병호	10			김창근	30			김판덕	12			박영욱	30	
	이창훈	100			엄윤섭	100			이승하	100			김해곤	200			김현주	12			박성철	100	
	이태근	20			왕정일	100			이원용	100			명효준	10			김현율	12			박운대	10	
	이학준	50			이경호	100			이철행	20			박동욱	50			김형수	30			이득우	100	
	이한식	20			이규생	70			이하백	10			박원호	100			남경수	10			이병준	100	
	이환기	50			이상원	300			임상규	30			박재백	30			남철우	60			이병훈		40
	임무홍	100			이순철	50			임재덕	200			박정태	30	20		마병진	10			임채균	30	
	임상택	50			이영덕	100			정백수	26			박철우	100			문성일	10			장기호	30	
	임창운	100			정거돈	100			정성목	200			배승한	30			박경수	400			정용운	50	
	장대락	50		정국근	100		정영주	50		서강태	160		박석기	100		최춘호	100						
	장선근	30		정익교	100		정해영	100	10	서민석	160		박석두	200		허 규	10						
	장세훈	150		조만석	75		최연욱	50		서복현	100		박인정	12		허재창	30						
	전섭태	10		조일제	50		하재근		50	서재원	30		박종건	10		계동원	30						
	전영주	10		최성수		10	한명재	200		서하수	300		박종규	100		김기산	80	10					
	전영훈	10		최수일	100		한수범	50		석대식	30		박해성	10		김윤성	100						
	전원배	50		최의수	20		허남식	30		송영환	100		박희암	22		김재도	120						
	정동철	30		한원우	100		허영철	200		송한식	30		배정우	12		김재선	100						
	정무동	30		하주곤	50		권오영	50		신범주	30		서규영	10		김종만	50						
	정수성	30		김민수	10		김기영	50		신영주	30		서동균	22		김종인	12						
	정재봉	50		김병욱	30		김도태	30		신윤원	30		서수교	120		김태훈	50						
	제영성	150		김병호	100		김부겸	230		안중화	100		서태교	130		남경태	100						
	정철수	100		김용태	250		김석윤	40		오경태	10		성오용	22		류장근	150						
	정호성	50		김지원		10	김성문	100		왕순모	30		송은정	12		류홍영	30						
조경일	30		김진희	100		김영기	10		유영록	10		손영태	100		박성병	10							
조대우	100		김태우	450		김용채	100		유재일	10		손정수	24		박태원	10							
조동진	10		류재걸	35		김인술	100		윤기승	50		손진기	22		백수현	50							
조병욱	30		박성대		10	김정암	100		윤종순	30		신상하	22		서재영	100							
조양일	30		박완기		10	김종명	130	100	이광봉	30		신수열	22		송종현	100							
조익	50		백민호	10		김철오		100	이광희	20		심규열	12		신용준	10							
조인래	20		서기룡	10		박동일	50		이기환	100		심재홍	12		이동근		50						
조판제		10	유영호	115		박동혁	200		이명건	30		심중식	10		이윤조	50							
좌상봉	100		윤문태	10		박상길	100		이영준	30		안기수	34		이형근	70	10						
주재걸	50		윤석건	10		박인평	50		이인길	50		안우현	60		정인실	10							
최경호	10		윤종락	10		배진영	100		이한수	30		안중수		10	최영두	12							
천석수	20		이상열	10		사공운곤	40		이환기	30		오용환	151		한상봉	100							
최광수	50		이요섭	30		서석철	20		인준승	20		오호철	10		황규태	100							
최동하	100		이현	20		서영학	10		임영수	50		옥치호	10		구동회	10							
최차환	50		이홍걸	10		송희태	50		임영호	30		유영준	10		김두섭	50							
최태동	20		장세영		10	안청홍		100	장영조	30		윤정수	30		김상진	10							
최한석	20		조용수	200		양승오	100		정영호	100		이민재	10		김종근	30							
최현림	10		최인성	30		오세용	100		정승진	30		이석우	12		김현용	10							
탁준길	30		최휴진	100		윤종경	150		정채화	60		이승진	12		백운창	10							
하대중	100		한수길	200		윤형근	50		정해석	20		이정근	10		변성수	10							
하동문	10		한창현	50		이경호	100		천성일	10		이채웅	24		손병걸	30							
하만진	30		김관세	100		이문열	200		최상호	50		장건호	22		오상민	30							
하성룡	100		김기태	300		이성열	30		최영규	20		장성수	10		옥재명	20							
한봉재	30		김만중	300		이승호	200		최재봉	100		장성호	22		문형철	10							
한석정	200		김명영	200		이종포	50		최진권	10		장재훈	22		이상운	10							
한준석	100		김명준	100		이현률	50		추태명	10		장평우	310		이성엽	100							
허만탁		20	김부윤	100	100	임광열	100		하규양	100		전증욱	10		전재병	10							
허실권	20		김상정	100		임상훈	50		하전근	20		정 문	120		조 선	30							
허영형	50		김용석	110		전장화	100		허영재	30		정용정	50		조시형	30							
허우성	30		김정유	200		장 만	100		황철민	100		정인화	12		채선정	10							
허택	100		김종섭	100		정 길	100		고영호	10		정정남	132		최대한	50							
황 철	20		김종성	250		정성훈	100		공광욱	50		조성근	42		최태원	10							
황곤태	20		김준배	100		조승제	100		공종렬	12		조영기	34		현송복	10							
황호선	100		김준연	200		최기훈	10		권해철	12		조현우	22		황인철	10							
26회	강영녕	200		28회	김형진	250		30회	최문성	30		31회	김경영	12		34회	김동인	10					
	강의규	100			김홍중	100			김광수	10			김병수	10									
	권종대	100			노태욱	100			김기정	100			박동렬	100									
	김두천	100			박석환	100			김대식	20			박창제	10									

기부자 리스트

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협찬동문 총원 명단 (500만원 브론즈급이상 등급부여자 명단은 별도 : 2020년3월26일 기준)

※붉은 숫자는 회관구입자금 모금에 참여한 금액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기수	이름	2019년 까지 총액	2020년 기여	
35회	서 석	20		38회	김 경 곤	100		40회	이 강 옥	10		42회	김 병 재	10		46회	안 명 기	10		52회	51회	최 우 영	10	
	안 병 남	50			김 문 철	10			이 공 환	10			김 성 민	50			오 영 훈	10			김 민 철	100		
	이 남 기	10	20		김 원 철	10			이 광	200			김 세 용	10			윤 경 한	10			김 지 운	100		
	손 기 철	10			김 현 민	100			이 기	100			김 수 용	10			윤 성 곤	10			김 현 진	10		
	안 종 일	30			류 인 식	10			이 남 주	30			김 순 곤	100			이 동 수	10			정 길 수	30		
	이 복 근	20			박 이 현	50			이 남 훈	10			김 원 주	10			이 성 민	100			정 상 중	10		
	이 효 성	10			박 정 민	10			이 동 현	30			김 영 태	30			이 재 광	10			최 형 주	10		
	황 용 순	10			박 준 표	20			이 병 완	20			김 재 용	100			이 태 환	10			한 중 현		10	
36회	권 태 휘	10		39회	백 승 온	10		41회	이 상 백	30		43회	김 정 언	10		47회	장 윤 성	10		53회	김 권 우	10		
	김 관 용		100		신 동 훈	30			이 승 배	10			김 현 오	10			정 효 영	10			김 상 욱	50		
	김 영 훈	200			오 회 진	110			이 영 철	10			남 화 정	10			최 원 석	50			문 회 규	10		
	김 정 현	300			이 수 명	30			이 정 삼	10			문 지 성	30			하 성 용	10			박 성 영	10		
	김 중 오	10			이 중 명	300			이 중 인	50			박 기 열	10			홍 이 준	30			우 재 준	10		
	김 중 백	10			이 태 훈	10			이 창 진	10			박 동 식	100			감 기 환		20		이 원 준	10		
	김 철 원	200			조 석 태	100			이 태 근	20			박 영 철	30			강 백 중	10			한 동 인		10	
	김 현 철	100			김 도 경	20			이 태 욱	10			박 일 수	10			고 달 우	20			황 명 수		10	
37회	류 형 우	20		40회	김 병 기	10		42회	임 태 영	100		44회	손 삼 식	10		48회	김 동 휘		10	54회	강 치 범	100		
	박 철 중	20			장 갑 구	35			신 봉 준	100			김 세 준	10			배 준 수	200			김 경 원	10		
	손 광 성	10			장 명 재	10			안 정 일	10			김 응 태	30			성 상 용	10			고 강 인	10		
	신 승 렬	30			장 정 욱	30			여 인 환	10			이 승 택	50			성 상 용	10			고 지 현		10	
	이 동 희	40			정 경 두	10			오 기 석	10			이 승 택	50			전 유 수	10			김 영 빈	10		
	이 성 호	10			지 승 렬	100			유 경 상	30			전 유 수	10			정 기 주		10		박 신 우	10		
	이 학 수	10			최 석 우	100			윤 영 기		10		정 기 주		10		정 민 호	20			양 형 욱		10	
	임 서 룡	10			최 용 석	100			윤 영 덕		20		정 민 호	20			정 성 훈		10		이 재 필	10		
38회	임 창 섭	20		41회	박 인 석	200		43회	최 치 언	30		45회	이 승 훈	10		49회	김 춘 호	20		55회	제 재 철	10		
	정 갑 영	10			한 수 열	110			정 용 중	100			김 태 균	20			정 성 훈		10		조 중 완	100		
	정 인 석	30			황 성 현	10			정 홍 준	10			서 민 중	10			김 춘 호	20			이 중 원	10		
	정 윤 희	100			강 병 오	10			조 명 준	200			윤 석 권	10			김 태 균		20		최 성 원	30	10	
	조 경 호	10			강 석 희	10			진 진 우	10			이 충 훈	10			서 민 중	10			56회	손 정 현	10	
	지 동 섭	10			강 훈	10			김 동 현		10		이 형 철	10			윤 석 권	10			58회	김 현 윤	10	
	최 상 도	60			김 기 영	10			김 성 수	30			이 충 훈	10			이 충 훈	10			65회	이 정 조		10
	홍 의 창	30			김 범 성	20			김 영 선	10			이 형 철	10			차 원 일	10			66회	김 덕 형	30	
39회	강 성 욱	30		42회	정 순 환	10		44회	김 봉 준	30		46회	김 영 휘	265		50회	한 병 주	10		56회	김 시 준	20		
	강 용 하	10			김 신 욱	10			김 종 식		10		김 덕 호	10			성 범 석	10			서 지 범	10		
	강 태 우	10			김 영 철	50			김 진 수	42			김 태 훈	10			황 유 광	10			67회	성 범 석	10	
	권 혁 상	10			김 인 수	100			이 용 상	10			박 시 원	10			오 경 준	10			68회	황 유 광	10	
	김 기 덕	10			김 정 태	100			박 경 곤		10		서 인 석	10			지 우 준	10			69회	오 경 준	10	
	김 기 동	20			김 찬 원	20			박 형 규	30			신 중 국	10			정 민 기	20			70회	정 민 기	20	
	김 길 영	20			김 형 료	60			송 대 성	10			예 병 삼	10			박 무 성		10		73회	박 무 성		10
	김 동 욱	10			남 관 희	30			이 상 현	10			이 동 훈	10			윤 원 호		10		75회	윤 원 호		10
40회	김 원 범	10		41회	김 경 환	100		43회	류 지 섭	30		45회	최 성 필	40		49회	이 충 현	10		55회	박 중 두	10		
	김 인 평	10			박 정 기	20			김 성 준	10			임 기 환	10			김 건 우		10		77회	박 중 두	10	
	김 형 권	10			백 선 민	10			안 병 규	100			장 형 철		10									
	김 형 기	30			백 정 훈	100			우 도 균	100			정 일 권	170										
	문 병 호	10			변 영 호	10			이 승 철	10			제 민 진	10										
	문 진 형		10		신 동 진	20			전 광 렬	100			최 유 탄	10										
	박 용 진	50			안 광 곤	10			조 청 현		10		최 진 영	10										
	박 철 우	10			유 수 호	10			강 동 호	20			하 성 우	10										
41회	송 성 철	10		42회	김 영 진	60		44회	육 욱 성	10		46회	구 자 삼	20		50회	홍 민 호	10		56회	1.단체발전기금과 회관기금은 다음 429호 회보상으로 최종 정리할 계획 입니다.			
	송 형 환	10			윤 성 보	30			권 우 일	80			김 동 현	10			2.회관기금은 5월20일자로 마감하며 일반기부를 받습니다.							
	서 동 욱	30			윤 성 한	10	10		김 상 수		100		김 석 훈	10			3.상시도표는 매년2번 (1월과 7월 마감기준) 회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회관기금 접수 때문에 예외)							
	신 수 룡	10			이 경 석	50			김 종 현		20		김 영 환	100			4.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부산은행 029-01-030712-1 (재)용마장학회 안강태 앞							
	신 우 진	10			이 경 호	40			손 창 오	10			김 정 현	10			5.영수증이 필요없는 기부는 부산은행 101-2053-6720-01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앞 으로 보내면 됩니다.							
	양 귀 수	10			이 양 걸	300			장 성 익	50			박 복 열		10									
	양 순 남	10			이 정 삼	20			조 태 성	20			박 종 현	250										
	윤 태 환	10			이 중 민	20			조 청 래	20			백 광 선	70										
42회	이 수 환	10		43회	문 태 영	10		45회	이 주 하	30		47회	조 태 성	20		51회	백 송 현	10		57회				
	이용한	100			이 준 석	10			진 상 영		20		서 석 진	100										
	이 호 진	10			임 병 호	10			최 재 곤	30			안 기 범	10										
	장 동 한	10			장 윤 호	10			하 인 수	10			이 상 구	10										
	장 원 익	100			장 익 조	10			강 진 회		10		이 중 환	10										
	정 성 윤	10			전 삼 록	100			권 성 기	10			정 윤 호	10										
	정 순 욱	10			정 필 상	10			권 진 곤	10			조 기 준	10										
	정 재 호	10			조 원 호	10			김 규 태	10			최 용 호	10										
43회	조 성 각	10		44회	변 태 경	50		46회	천 성 원	10		48회	김 대 기	10		52회	황 국 현	20		58회				
	조 영 규	30			최 영 준	100			김 동 욱	10			구 민 석	10										
	조 현 주	10			최 호 열	10			김 문 회	10			김 동 준	10										
	조 현 철	10			추 고 용	30			김 백 권	50			김 영 채	10										
	채 일 권	10			허 치 회	50			김 태 영	50			박 보 순	10										
	천 웅 찬	10			홍 동 훈	30			김 회 택	10			송 상 민	10										
	최 규 철	10			홍 석 우	50			나 병 관	10			신 석 진	10										
	최 재 형	10			강 석 국	30			문 정 기	10			신 현 식	60										
44회	탁 낙 준	10		45회	안 성 호	10		47회	곽 창 우	30		49회	백 경 택	10		53회	오 성 진	100		59회				
	하 주 용	10			김 광 철	10			서 용 택	10			이 건 영	10										
	홍 병 일	30			김 동 원	10			신 정 일	30			정 유 석	100										
	홍 원 석	10																						
	황 태 윤	20																						
	38회	곽 동 열	10																					

기부자 리스트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고액 기부 내역

(9회) 조 동 훈 3056만원	(11회) 오 완 수 일액원	(13회) 이 경 재 오천백만원	(15회) 김 경 일 사천만원	(16회) 송 규 정 오천만원	(17회) 최 만 식 오천만원
(18회) 김 길 제 오천만원	(19회) 이 부 성 오천만원	(19회) 이 용 품 사천만원	(20회) 박 용 덕 삼천만원	(21회) 손 석 보 3064만원	(22회) 유 재 진 육천만원
(23회) 김 영 기 일액여천만원	(23회) 김 중 광 삼천백만원	(24회) 박 홍 규 오천만원	(25회) 김 진 철 육천만원	(25회) 박 중 찬 일액삼천만원	(25회) 서 병 수 삼천만원
(28회) 백 영 호 삼천백만원	(29회) 김 대 옥 육천만원	(29회) 박 성 철 삼천여백만원	(30회) 윤 성 덕 육천만원	(30회) 최 우 철 일액오백만원	(31회) 박 중 호 삼천만원
(31회) 홍 성 수 삼천백삼십만원	(33회) 김 법 영 사천만원	(33회) 박 명 진 일액원	(35회) 장 인 화 삼천만원	(36회) 박 진 용 삼천만원	(37회) 어 부 남 오천만원
(38회) 권 두 성 일천만원	(39회) 박 근 태 삼천만원	(40회) 우 영 환 삼천만원	40회 동기회 3535만원	(44회) 탁 정 환 삼천만원	(47회) 정 신 삼천만원

동창회관 기금 모금 5월 20일 최종 마감

박 총동창회장, 3천만원 추가 기부
“마지막 불쏘시개...많은 참여 희망”



박종찬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2년 전 동창회관 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쾌척한 ‘마중물’ 1억 원에 이어 지난 3월말 추가로 3,000만원이란 고액을 또 한 번 더 기부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오는 5월 20일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기금 모금운동의 ‘마지막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 비록 임기 1년이지만 제37대 총동창회장 취임을 기념하고, 진행 중인 동창회관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길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박 총동창회장은 자신이 2018년 3월 취임 이후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받는 기부금 합계가 20억원을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3월 30일 현재 기부금 합계가 19억3,719만원이다. 20억원에 도전하고자 자신이 3,000만원을 쾌척한 것이다. 총금액 19억6,719만원에서 동문들의 협조가 더해지면 20억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박 총동창회장은 기금 모금 마감을 앞두고 “회관 벽에 최소 1,000명 이상의 기부동문 이름을 새기고 싶은 마음을 여러 차례 회보와 밴드를 통해 밝혀왔다. 각 기수에서 5명이 10만원 이상을 일반기부에 동참하면 1,000명을 넘게 된다”면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행사가 될 동창회관 개관에 10만원 이상의 기부로 당당한 역사의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후배 동문들은 기부를 통해 갖는 자부심에 투자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5월 20일은 기금 모금운동에 참여한 기부자 명단을 새기는 판넬 제작 발주가 들어가야 하는 날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모금을 완료하려 했지만, 더 많은 동문의 참여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이날까지 연장했던 것이다.

모금 마감일을 2개월 앞둔 지난 3월 20일 현재 모금 실적을 집계하면, 3,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35명, 10만원 이상 일반기부자 855명에 이른다. 물론 모금 목표금액 45억원(기존 보유 기금 포함)은 훨씬 초과하였다. 이 기금으로 동창회관 구입에 30억원을 사용했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한 제반 경비를 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총동창회장은 “애초에 제안했던 목표금액 45억원이 ‘씨’가 된 것 같아 놀랍다”고 말했다. 동창회관 구입과 리모델링 등에 투입된 모금 기금의 사용 내역은 회관 준공 및 개관을 마치고 8월 초에 발간하는 동창회보 제430호에 소상히 게재할 계획이다.

동창회관 구입 기금 (소액 및 고액)계좌안내

- 기부금 영수증 필요없는 분 : 부산은행 101-2053-6720-01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 부산은행 029-01-030712-1 (재)용마장학회 안강태

* 모든 계좌는 송금시 성명(기수)를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총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2020년도 기준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루비	3억원이상	0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100만원
3	25	박 중 찬	1억5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6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100만원

플라티넘	5천만원이상	12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2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100만원
7	24	박 홍 규	5,000만원
8	25	김 진 철	6,200만원
9	29	김 대 옥	6,550만원
10	30	윤 성 덕	6,150만원
11	37	허 부 남	5,250만원
12	38	권 두 성	7,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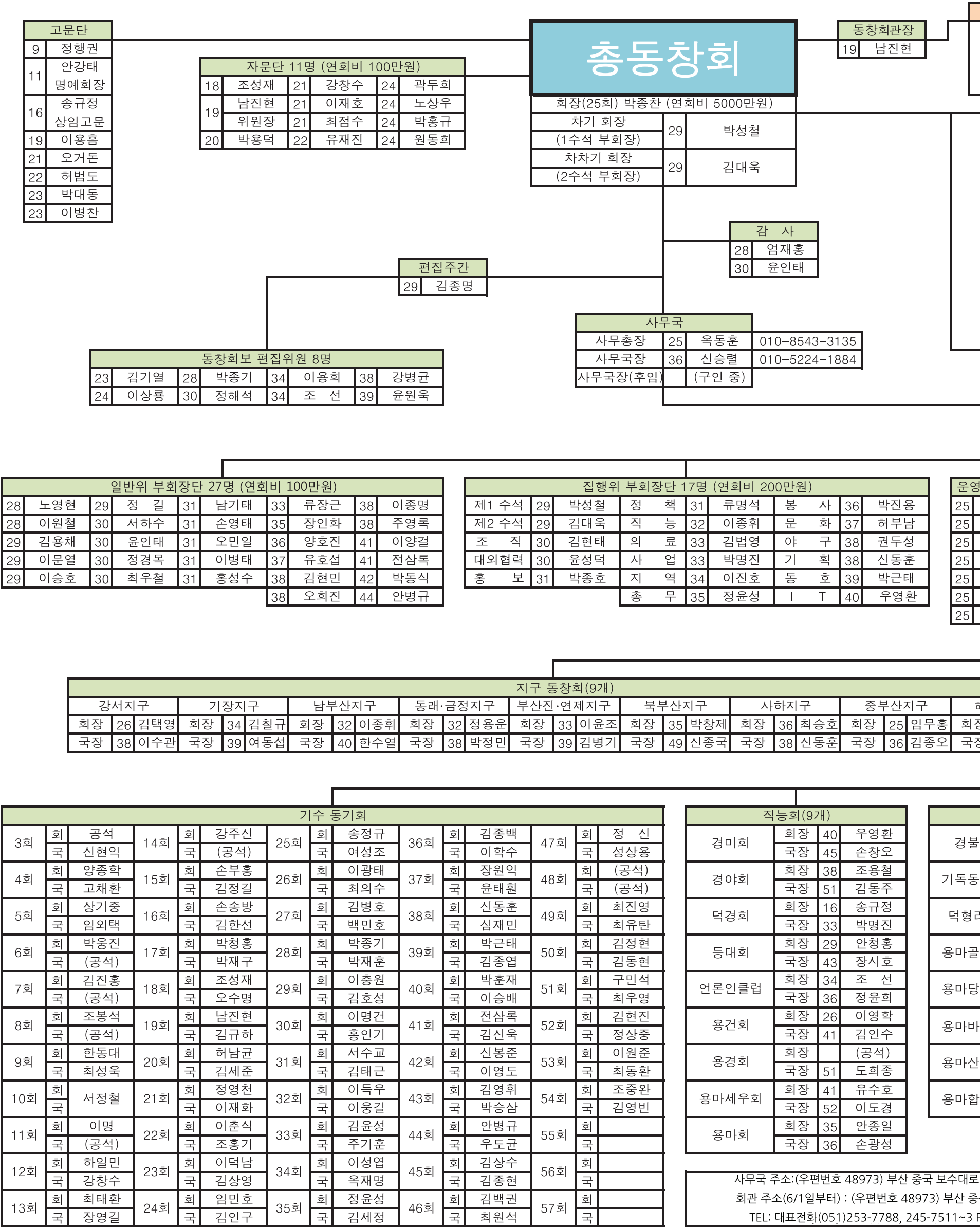
골드	3천만원이상	18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 동 훈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9	이 용 품	4,100만원
4	20	박 용 덕	3,100만원
5	21	손 석 보	3,064만원
6	23	김 중 광	3,100만원
7	25	서 병 수	3,000만원
8	28	백 영 호	3,150만원
9	29	박 성 철	3,350만원
10	31	박 중 호	3,150만원
11	31	홍 성 수	3,220만원
12	33	김 법 영	4,150만원
13	35	장 인 화	3,100만원
14	36	박 진 용	3,100만원
15	39	박 근 태	3,060만원
16	40	우 영 환	3,150만원
17	44	탁 정 환	3,300만원
18	47	정 신	3,1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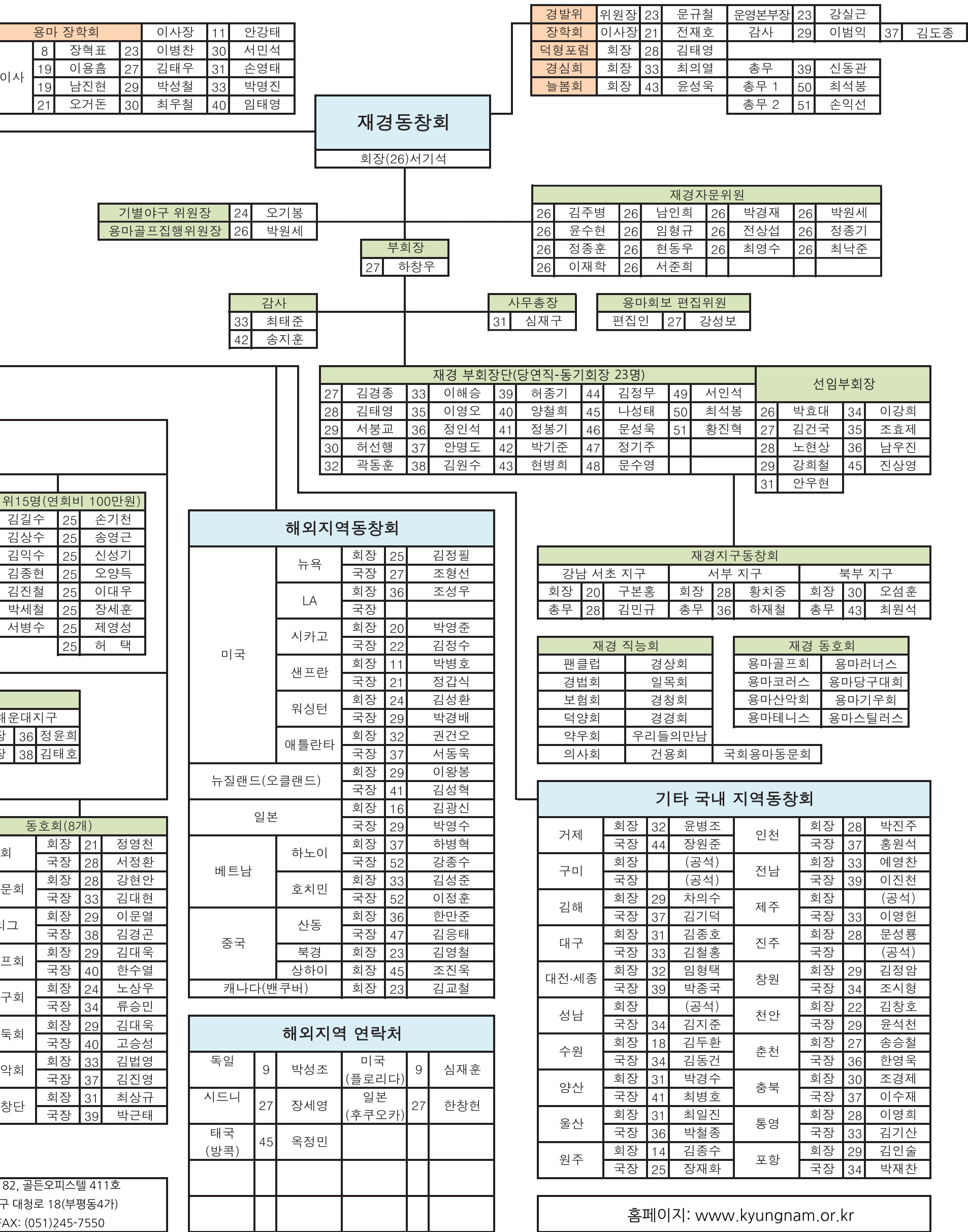
실버	1천만원이상	28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5	손 부 홍	1,5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8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6	15	천 신 일	
7	15	한 해 수	1,000만원
8	17	이 세 복	1,000만원
9	17	최 성 호	1,000만원
10	19	황 태 원	1,000만원
11	20	김 형 오	1,000만원
12	20	허 규 판	1,000만원
13	21	강 창 수	1,600만원
14	21	전 재 호	1,000만원
15	22	김 학 균	1,000만원
16	22	박 재 상	2,000만원
17	22	장 성 덕	1,000만원
18	22	장 성 복	1,000만원
19	22	허 범 도	1,000만원
20	26	박 상 호	1,550만원
21	27	박 치 호	1,000만원
22	28	노 영 현	1,350만원
23	30	김 현 태	1,200만원
24	30	정 경 목	1,000만원
25	33	이 순 환	1,000만원
26	33	최 웅 남	800만원
27	34	이 진 호	350만원
28	38	정 재 형	1,0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31명	2020년 기여
No	기수	이름	금액
1	8	김 봉 길	500만원
2	17	김 동 수	500만원
3	17	윤 성 옥	500만원
4	17	조 중 언	500만원
5	19	김 봉 호	600만원
6	19	장 홍 의	600만원
7	20	김 태 영	500만원
8	20	박 병 철	500만원
9	25	김 익 수	600만원
10	25	송 정 규	550만원
11	25	이 명 철	680만원
12	26	김 상 현	500만원
13	26	박 재 옥	500만원
14	26	하 원 규	500만원
15	27	문 두 찬	600만원
16	28	구 영 소	500만원
17	28	이 원 철	900만원
18	28	최 강 호	500만원
19	29	이 석 조	500만원
20	30	윤 인 태	580만원
21	30	이 학 수	700만원
22	31	남 기 태	700만원
23	31	류 명 석	630만원
24	31	오 민 일	600만원
25	31	이 병 태	600만원
26	31	정 철 수	500만원
27	32	이 중 휘	630만원
28	34	박 철 웅	500만원
29	34	이 재 완	550만원
30	39	백 기 현	10만원
31	64	표 중 빈	500만원

2020 총동창회 조직표





2020 총동창회 임원진



회장
박종찬(25회)



감사
엄재홍(28회)



감사
윤인태(30회)



고문
정행권(9회)



고문/명예회장
안강태(11회)



상임고문
송규정(16회)



고문
이용흠(19회)



고문
오거돈(21회)



고문
허범도(22회)



고문
박대동(23회)



고문
이병찬(23회)



자문위원
조성애(18회)



자문위원
남진현(19회)



자문위원
박용덕(20회)



자문위원
강창수(21회)



자문위원
이재호(21회)



자문위원
최점수(21회)



자문위원
유재진(22회)



자문위원
곽두희(24회)



자문위원
노상우(24회)



자문위원
박홍규(24회)



자문위원
원동호(24회)



집행위 부회장
박성철(29회)



집행위 부회장
김대목(29회)



집행위 부회장
김현태(30회)



집행위 부회장
윤성덕(30회)



집행위 부회장
박종호(31회)



집행위 부회장
류명석(31회)



집행위 부회장
이종휘(32회)



집행위 부회장
김범영(33회)



집행위 부회장
박명진(33회)



집행위 부회장
이진호(34회)



집행위 부회장
정운성(35회)



집행위 부회장
박진용(36회)



집행위 부회장
허부남(37회)



집행위 부회장
권두성(38회)



집행위 부회장
신동훈(38회)



집행위 부회장
박근태(39회)



집행위 부회장
우영환(40회)



운영위원
김길수(25회)



운영위원
김상수(25회)



운영위원
김익수(25회)



운영위원
김중현(25회)



운영위원
김진철(25회)



운영위원
박세철(25회)



운영위원
서병수(25회)



운영위원
손기전(25회)



운영위원
송영근(25회)



운영위원
오양득(25회)



운영위원
이대우(25회)



운영위원
장세훈(25회)



운영위원
정영성(25회)



운영위원
허택(25회)



부회장
노영현(28회)



부회장
이원철(28회)



부회장
김용채(29회)



부회장
이문열(29회)



부회장
이승호(29회)



부회장
정길(29회)



부회장
서하수(30회)



부회장
윤인태(30회)



부회장
정명국(30회)



부회장
최우철(30회)



부회장
남기태(31회)



부회장
손영태(31회)



부회장
오민일(31회)



부회장
이병태(31회)



부회장
홍성수(31회)



부회장
류장근(33회)



부회장
장인화(35회)



부회장
양호진(36회)



부회장
유호섭(37회)



부회장
김현민(38회)



부회장
오희진(38회)



부회장
이종명(38회)



부회장
주영록(38회)



부회장
이양걸(41회)



부회장
전삼복(41회)



부회장
박동식(42회)



부회장
안병규(44회)



편집주간
김종명(29회)



편집위원
김기열(23회)



편집위원
이상룡(24회)



편집위원
박종기(28회)



편집위원
정해석(30회)



편집위원
이용희(34회)



편집위원
조선(34회)



편집위원
강병균(38회)

 편집위원 윤원욱(39회)	지구동창회		 강서지구 회장 김택영(26회)	 강서지구 사무국장 이수관(38회)	 기장지구 회장 김철규(34회)	 기장지구 사무국장 여동섭(39회)	 남부산지구 회장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 사무국장 한수열(40회)	 동래·금정지구 회장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사무국장 박정민(38회)
 부산진·연제지구 회장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 사무국장 김병기(39회)	 북부산지구 회장 박창제(35회)	 북부산지구 사무국장 신종국(49회)	 사하지구 회장 최승호(36회)	 사하지구 사무국장 신동훈(38회)	 중부산지구 회장 임무홍(25회)	 중부산지구 사무국장 김종오(36회)	 해운대지구 회장 정운호(36회)	 해운대지구 사무국장 김태호(38회)	
지역동창회		 김해지역 회장 차의수(29회)	 김해지역 사무국장 김기덕(37회)	 대전·세종지역 사무국장 박종국(39회)	 양산지역 회장 박경수(31회)	 양산지역 사무국장 최병호(41회)	 울산지역 사무국장 박철중(36회)	 창원지역 사무국장 조시형(34회)	 통영지역 사무국장 김기산(33회)	 포항지역 회장 김인술(29회)
 포항지역 사무국장 박재찬(34회)	 재경지역 회장 서기석(26회)	 재경지역 부회장 하창우(27회)	 재경지역 편집위원 강성보(27회)	 재경지역 사무총장 심재구(31회)	해외지역 동창회		 미국뉴욕 회장 김경필(25회)	 미국뉴욕 사무국장 조형선(27회)	 미국LA 회장 조성우(36회)	 미국애틀랜타 사무국장 서동욱(37회)
 일본 회장 김광신(16회)	 일본 사무국장 박영수(29회)	 베트남하노이 회장 하병혁(37회)	 베트남하노이 사무국장 강준수(52회)	 베트남호치민 회장 김성준(33회)	 베트남호치민 사무국장 이정훈(52회)	 중국산둥 사무국장 김응태(47)	 중국상하이 회장 조진욱(45회)	직능회 동호회		 경미회 회장 우영한(40회)
 경미회 사무국장 손창오(45회)	 경야회 회장 조용철(38회)	 경야회 사무국장 김동주(51회)	 덕경회 회장 송규정(16회)	 덕경회 사무국장 박명진(33회)	 등대회 회장 안청훈(29회)	 등대회 사무국장 장시호(43회)	 용마세우회 회장 유수호(41회)	 용마세우회 사무국장 이도경(52회)	 연륜인클럽 회장 조 선(34회)	
 연륜인클럽 사무국장 정운호(36회)	 용건회 회장 이영학(26회)	 용건회 사무국장 김인수(41회)	 용마회 회장 안종일(35회)	 용마회 사무국장 손광성(36회)	 경분회 회장 정영천(21회)	 경분회 국장 서경환(28회)	 기독동문회 회장 강현안(28회)	 기독동문회 국장 김대현(33회)	 덕령리그 회장 이문열(29회)	
 덕령리그 국장 김경곤(38회)	 용마골프회 회장 김대욱(29회)	 용마골프회 국장 한수열(40회)	 용마당구회 회장 노상우(24회)	 용마당구회 국장 류승민(34회)	 용마산악회 회장 김범영(33회)	 용마산악회 국장 김진연(37회)	 용마합창단 단장 최상규(31회)	 용마합창단 국장 박근태(39회)	 용마바둑회 회장 김대욱(29회)	
 용마바둑회 국장 고승성(40회)	동기회장		 상기중(5회)	 한동대(9회)	 이명(11회)	 최태환(13회)	 손부홍(15회)	 손송방(16회)	 조성재(18회)	<22면에 계속>

									
남진현(19회)	정영천(21회)	이춘식(22회)	이덕남(23회)	송경규(25회)	김병호(27회)	박중기(28회)	이충원(29회)	이명건(30회)	이득우(32회)
									
김윤성(33회)	정윤성(35회)	김중백(36회)	장원익(37회)	신동훈(38회)	박근태(39회)	박훈재(40회)	전삼록(41회)	신봉준(42회)	김영휘(43회)
							동기국장		
안병규(44회)	김백권(46회)	정신(47회)	최진영(49회)	김정현(50회)	김현진(52회)	이원준(53회)		신현익(3회)	강창수(12회)
									
장영길(13회)	김한선(16회)	오수명(18회)	김규하(19회)	김세준(20회)	김상영(23회)	김인구(24회)	여성조(25회)	최의수(26회)	백민호(27회)
									
김호성(29회)	홍인기(30회)	김태근(31회)	주기훈(33회)	옥재명(34회)	김세정(35회)	이학수(36회)	윤태현(37회)	우도균(44회)	김종현(45회)
				사무국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임원진 일동 -		
성상용(47회)	최유탄(49회)	김동현(50회)	최동환(53회)		사무총장 옥동훈(25회)	사무국장 신승렬(36회)			

“경남중고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자”

동문수학 용마로서 단합과 동질감 고양할 필요 총동창회 명칭 정확성·교가 통일성 등 노력

오는 6월 20일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개관을 앞두고 동문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남중고 출신의 동문수학 용마로서 단합과 동질감을 더욱 고양시키자는 뜻이다. 이는 바로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경남중(토성중 포함)과 경남고 졸업생 동문 전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조직체로서 거듭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밴드상으로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다. 용마인의 아이덴티티 찾기를 재촉하는 뜻에서 이들 내용

을 정리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총동창회’ 명칭의 혼동이 문제이다. 이는 동창회의 위상과도 직결된 것이다. ‘총동창회’란 용어에 담긴 함의는 사실 경남중고 동문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이다. 모교가 있는 부산에서 동문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체이자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재경동창회 일각에서는 ‘부산동창회’나 ‘부산 본부동창회’나 하는 부정확한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총동창회장은 “과거 잘못됐던 관행을 이제는 제대로 잡아가야

한다. 모교의 뿌리가 부산에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교가의 통일성 문제이다. 각종 동문모임에서 교가를 부를 때 마지막 구절을 거의가 ‘경남고교’로 불러왔다. 이럴 때 경남중만 졸업한 동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고 말한다. 경남중과 경북고 출신인 구본준(24회) LG고문) 동문은 일전에 박 총동창회장에게 “동문모임에서 교가를 부를 때 ‘경남고교’로 끝을 맺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경남중고 동창회는 경남중과 경남고 졸업생이 함께 참여하는 동문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가의 동질성 확보는 절실하다.

총동창회는 동창회보 1면 제호 원편에 게재하는 교가 끝 부분을 지난 426호부터 ‘경남중고교’에서 ‘경남중고’로 수정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전까지 사용해온 ‘경남중고교’는 음률상으로도 매끄럽지 못하고 동문들 입에서 익숙지 않다. 총동창회에서는 각종 동문모임에서 부르는 교가는 ‘경남중고’로 통일하여 끝을 맺도록 했다.
응원 구호인 ‘후라 경고!’도 문제로 부각돼 있다. 동문모임에서 외치는 ‘후라 경고!’가 선후배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후라 경고!’는 그동안 진화해왔기 때문에 선후배간 일치가 어려운 점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동문으로서 동질성을 가지려면 통일된 구호와 동작이 필요하다. 방법은 선배가 후배의 ‘버전’을 배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경 기별야구, 청·장년부분리 진행 검토

코로나로 조추첨 모임 취소, 개최일 미지수

4월 11일 개최 예정이던 재경동창회 주최 제52회 기별야구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되었다. 지난 3월 17일 예정됐던 조추첨 모임까지 취소한 상태여서 개최일은 언제가 될지 미지수이다. 기별야구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오기봉·24회)는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 열린 대회 준비회의에서 기별야구대회를 청·장년부로 나눠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이든 기수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 당일 우천 시 추첨으로 승부를 가리던 것

을 1회 정도 연기해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52년 전통의 대회가 발전을 위한 운영 변화를 맞고 있다.

재경 합창단 새 단장, 김형국 동문



김형국(22회) 신임단장

재경 용마합창단은 지난 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문화원 르네상스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형국(22회) 동문을 신임단장으로 추대했다.



제2차 단체헌혈 '고귀한 봉사' 용마

김해지역동창회, 7명 참가

경남중고 김해지역동창회(회장 차의수·29회)가 지난 3월 27일 제2차 단체헌혈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와 정기헌혈 취소 등으로 혈액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감행된 '고귀한 봉사'이자 희생정신의 발현이었다. 이날 헌혈 행사에 7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차의수 박광수(이상 29회) 이광희(30회) 김규선 김용진(이상 36회) 김기덕(37회) 조영호(44회) 동문이다.

지난해 4월 실시한 제1차 단체헌혈 이후 경남중고 동창회와 동문들에 대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찬사와 선망은 확연했다. 당시 동문들은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이 행사를 주도한 김용진 동문은 "이 행사가 김해에서 시작되었지만 동문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마친 동문들은 헌혈의 집 인근 식당에서 조영호 동문이 협찬한 맛있는 저녁식사로 보양했다.

“선후배 간 끈끈한 정과 결속 이뤄낼 것”

최일진(31회) 신임 회장, 밴드 통해 취임 인사말
울산지역동창회



최일진(31회) 신임 회장

울산지역동창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장 취임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신임 회장의 임기 개시일을 지난 3월 1일로 확정, 발표했다.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2월 20일 개최기로 한 '2020 정기총회 겸 신년회'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일진(31회) 신임 회장은 지역 동문밴드를 통해 인사말을 하고 취임했다.

최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동창회장직을 수락한 이상 선후배 용마를 잇는 과되기 문턱의 첫 기수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과거 찬란했던 경남중·고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대를 잇는 선후배의 단합

을 이끌어내어, 끈끈한 정과 결속을 이뤄내는데 땀 흘릴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기택(28회) 전임 회장도 동문밴드를 통해 이임사를 남겼다. 권 전임 회장은 “차기 집행부의 취임으로 보다 활기 넘치고 발전적이며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동문 참여도 제고를 비롯해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이는 기회가 더욱 많아져 생동감 넘치는 동창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동창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 15일)에 출마하는 동문을 찾아 격려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지난 3월 26일 박대동(23회·미래통합당·북구), 27일 김영문(37회·더불어민주당·울주) 동문 선거사무실을 각각 방문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애틀란타지역동창회, 즐거운 신년회



경남중고 재미 애틀란타지역동창회가 지난 2월 1일 돌루스 소재 미송일식에서 신년회를 열었다. 이날 김태진(19회) 도건호(캐나다 밴쿠버에서 참석) 이정규(이운남 하재청(이상 21회·플로리다 올랜

에서 참석) 김현길 홍기태(이상 22회) 김우갑(26회) 최병주(28회) 추태명(30회) 권건오(32회) 최호성(34회) 서동욱(37회) 동문 등이 참석, 선후배 및 동기 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화 공인회계사 감사반

회계감사

기장대리

세무조정

2020년 귀속부터 유한회사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2회 이병훈 051-317-6262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118동 212호

37회 정해창 051-245-0135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90-4 현대타워 오피스텔 705호

컴퓨터와 기계 양쪽 특성 공부, 세계 최고 수준 로봇 개발 성공

“활력과 혁신”

용마인의 삶터

①

(주)로탈 대표이사
박종현(50회) 동문

박종현 사장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롯데하이엔스에 열광하는 전형적인 부산 사나이이다. 동명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기계공학에 관심을 가져 부산대 기계공학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문무를 겸비한 경영인이다.

박 사장이 경영하는 (주)ROTAL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다. 총 1,200평 규모의 회사에 17명의 정예 멤버가 연구, 설계,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현재 3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력 생산제품으로는 공장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로봇(AGV : Auto Guided Vehicle)이며,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고객에 대한 로봇 엔지니어링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매출은 30억~50억원 정도이고, 첨단 기술이 집적된 주문생산 제품이라 매우 고가일 것 같지만 가성비가 좋아서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이다.

-회사 이름이 로탈(ROTAL)인데 어떤 뜻입니까?

▲로봇(Robot)과 빌려 쓴다(Rental)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감가상각, 수선유지 등 회계 상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값비싼 장비들은 자사가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요. 우리 제품들도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만 향후는 소유를 우리 회사로 하고 고객은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주)ROTAL은 어떤 경쟁력으로 차별화되고 있습니까?

▲기술, 품질,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많은 현장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이 우리 제품에 적용되어 있고, 우수한 성능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서로 다른 기종 간의 통신, 호환성, 고객 맞춤형 소프트웨어 등도 최적의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제품은 고객의 현장에 투입되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와 기계 양쪽의 특성을 공부한 덕분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된 기술로서 완성할 수 있었다

본지는 금년부터 용마인으로 일가를 이룬 기업인들을 기획취재하여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메카트로닉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기술력으로 공장자동화 분야에서 물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주)로탈의 박종현(50회) 대표이사 사장을 소개한다. 이 기획을 통하여 모든 동문이 자긍심을 가지고, 후배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심는 용마인의 기상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창회보 편집위원 박종기(28회) 동문이 취재를 맡는다.



(주)로탈 대표이사 사장인 박종현(50회) 동문은 기업을 창업하려는 후배들에게 “확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면 한 번쯤은 권해 볼 수 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조언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첨단기술 집적된 주문생산 제품...가성비가 좋아 주문 밀려 끊임없이 프로세스 개선하고 소통해야 같은 실수 반복 않아

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교견적이나 저가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탈은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현재 로탈의 주력 생산품인 자율주행로봇 ‘리만(Riemann)’의 경우, 독특한 구동 방식과 운영상의 장점 등을 비교해봤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사한 기능의 제품이 독일 Maker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가격이 3배나 높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미 상용화 개발이 완료되었고, 올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역시 독일 제품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가분석과 기계적인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귀사가 생산한 자율주행로봇(AGV)의 장점과, 괜찮다면 판매가 적도 귀찮게 주실 수 있는지?

▲우리 제품은 공장 내에서 자율로 이동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이동시켜야 할 물건과 다른 장비에 접근하여 미리 정해진 기능을 수행합니다. AGV 상부에

장착된 레이더로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면서, 전자공장이라면 냉장과 같은 중량물을 등에 지고 공장 내에서 수송하거나, 물류창고라면 열차처럼 몇 대의 대차에 무거운 짐을 싣고 끌고 가거나, 기계공장이라면 다른 정밀기계와 로봇 팔로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기능과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델이 있으며 시가 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007년에 석사과정을 끝내고 모 업체 대표의 눈에 띄어서 농약 살포용 무인헬기 운영체제 개발자로서 그 회사의 연구소에 취직하였습니다.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자신이 있어서 6개월 동안 라꾸라꾸(이동식 간이침대)를 옆에 두고 밤낮 없이 개발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프로그램을 잘 짠다는 자만심과 사장의 총애를 받는다는 거만함이 그 회사 중간관리자들과의 관계를 좋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쫓겨났죠.

시련의 시간을 뛰어넘기 위해 공부를 선택했고, 평소에 부족함을 느끼던 기

계공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했고, 작은 벤처기업 대표와 동업을 하게 되는 인연도 찾아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3년 동안 기술영업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고, 여기서 영업활동의 중요성과 기업 창업의 필수요소가 무엇인지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어 동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사무실을 빌려 입주하면서 자동화 분야로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조직생활에 적응 못하고 쫓겨난 것이 창업동기라고 할 수 있겠군요.

-첨단 IT기업의 특성상, 기술인력 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일텐데...

▲직원이 우리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가서 우리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할 때가 있었는데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우리 업종이 전망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엔지니어를 양성하기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워낙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업체 간에 스카우트가 빈번한 편이지요. 지금도 몇몇 직원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경쟁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주와 종업원과의 관계는 서로가 서있는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의 경영철학은?

▲독일이나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처럼, 규모는 작아도 원천기술을 가지고 대를 이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호흡할 수 있는 탄탄한 영속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운영 철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벤처창업진흥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비롯해서 그 이전부터 각계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성과를 인정받은 것입니까?

(별표 : ROTAL 수상실적)

년도	수상명	시상자
2013.10	우수중소기업상	부산상공회의소
2013.10	우수중소기업상	부산테크노파크
2014.02	IP혁신 우수기업 부산시장상	부산시
2014.11	청년기업가 교육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
2016.09	기술혁신 산업지원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
2018.08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 수상	국회
2019.09	스마트팩토리 어워드 대상	스마트팩토리협회
2019.11	벤처유공포상 국무총리상	벤처기업협회

<기사 25면에 계속>

<25면에 이어서>

“확고한 철학·신념, 도움 줄 분 많으면 창업을”

▲기업규모는 작지만 기술개발 성과와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상실적이 말해주듯이, 물류 로봇(AMR: Autonomous Mobile Robots) 분야에서 로탈은 나름 유명합니다. (별표: 수상 실적)

-앞으로 어떤 경영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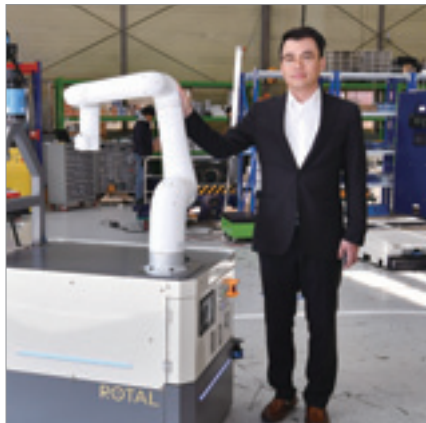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며 노사쟁의가 심화되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로봇을 투입하는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공장 자동화도 점차 확산될 것이고 자연히 로봇의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해서 미래의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점한 뒤에 영업, 자금, 운영 분야에서 능력을 갖춘 전문 파트너들과 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을 시작하려는 후배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본도 없이 기술만으로 창업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저로서는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 차례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월급 받는 직장생활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지요.

기업이란 사장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면 한 번 짚은 권해 볼 수



자율주행로봇과 함께 선 박종현 동문.

있겠습니다. 과거 창업 1, 2세대 선배님들이 만들어 주신 기반 위에 제가 지금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분들은 지난 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총동창회가 박종찬 회장께서 이끈 이래 몰라보게 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사장께서 보시는 총동창회에 대한 소감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모습에 탄복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 추진력 또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시만 하는 보스가 아닌 몸소 보여주시는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창회관 건립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의구심은 결국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신 총동창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운영되고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제22회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5월 26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골프대회 모습. 사진 위는 참가자 기념촬영, 아래는 시상식과 만찬 행사 모습.

제22회 용마골프대회 5월 26일 개최

“삶의 새로운 활력 찾자”

5월 1일 신청 마감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동창회장기 쟁탈 제22회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5월 26일(화) 기장군 소재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에서 열린다. 제21회 대회와 같이 성하(盛夏)를 앞둔 만춘의 축제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들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붙인 코로나19사태를 이겨내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다시 전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 운영 방안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각 기별, 지역 제한 없이 예상 참가조 36~40개조 선착순이다. 각 기수는 1조 4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신청조는 마감 후 추후 배정한다. 특별조 편성으로 원로선배 기수, 고문·자문위원 등 임원조, 각 지역 1팀 등은 별도조 편성할 계획이다.

참가비(식대로 사용)는 단체전, 개인전 구분 없이 1인당 4만원이다. 그린피(비회원)는 16만원, 캐디피는 각 조당(4명) 12만원이다.

대회는 기별대항 단체전(스트로크 방

식)과 개인전(뉴페리어 방식)으로 개최된다. 개인전은 A조(1~33회)와 B조(34회 이후)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다. 단체전은 3위까지 시상하고, 개인전은 A, B조 각각 시상(우승·MEDAL 준우승·3위·LONGEST·니어)한다. 홀인원(벤츠 승용차-유재진 22회 동문 제공 협의 중-5월 1일 결정), 이글 특별시상도 있다. 입상자 전원에게 부상을 시상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도 기념타올, 벤츠 모자, 골프공 등을 선물한다. 당일 단합회식 때 행운권 상품 추첨이 있다.

이날 행사 진행은 낮 12시까지 도착하여 등록을 마치고, 단체사진(오후 1시) 촬영 후 오후 1시30분 18개 전 홀에서 동시 티오프(샷건 방식)한다. 시상식 및 식사는 오후 7시 골프장 내 이벤트홀에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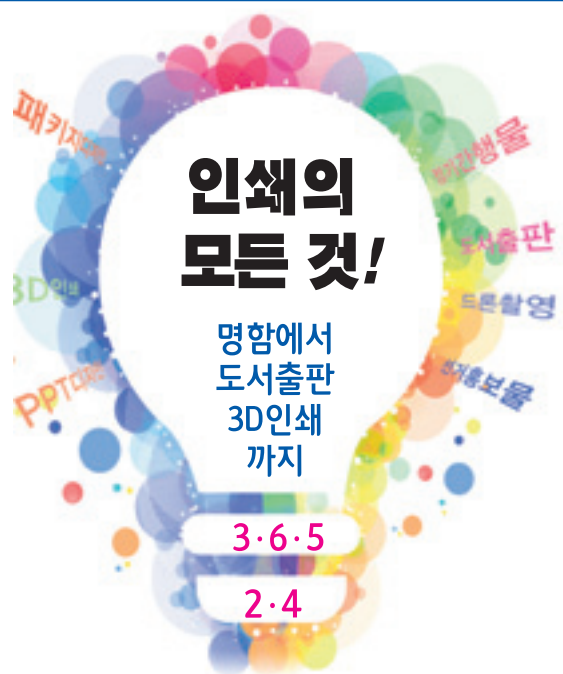
개인참가비 및 협찬금 입금계좌

부산은행 101-2053-6717-04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연락처:총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010-5224-1884(신승열 사무국장)



도서출판 자서전 회고록 사진집 시집 족보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회보 사보 학보
선거홍보물 명함 포스터 선거공보 의정보고서
공연전시 카다록 리플렛 도록 티켓
디자인 광고디자인 웹디자인 패키지디자인
Digital 3D-printing Homepage PPT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4가 18-3 (다영인쇄 2층)
www.iprint.kr ☎(051)464-6626 ☎010-3004-6626 © ip6626@naver.com



1942년 암흑기에서 2020년 영광의 날까지 용마는 날고 뛰었다

◇……오는 6월 20일 개관하는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계단 벽면에 1942년 개교한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연대표를 제작하여 부착할 계획이다. 동창회관에 게시할 연대표는 압축 정리한, 그야말로 정수(精髓)만 선별된다. 연대표 압축 정

리 직전의, 보다 풍성한 내용의 역사 기록을 이번 기회에 동문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1942~2020년 78년의 역사 요점 정리이다.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과 박종기(28회), 이용희(34회) 두 편집위원이 이 작업을 맡았다.……………◇

- | | | |
|---|---|---|
| -1942년 = 부산공립제2중학교(인문 5년제) 개교. 일인초대교장 야마테 준이치로(山手順一郎). | -1971년 = 김택수 동창회장, 대한체육회장 피선
= 박영길 동문, 아시아아구선수권대회 최우수상 | 장 취임
= 경남고, 14년 만에 제45회 청룡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패권 |
| -1943년 = 부산 문현동에 교사 신축 기공식 | -1972년 = 경남고, 서울대 173명 합격
= 경남고 이윤근 교장 취임(6대) | = 회보 축쇄판 제2집 발간 |
| -1945년 = 부산 남일국민학교로 교사 이전.
= 해방 후 안용백 교장 취임(1대) | = 개교 30주년 기념식 및 기념논총 발간 | -1991년 = 경남고 이희문 교장 취임(12대) |
| -1946년 = 경남공립중학교로 교명 변경 | -1973년 = 토성중 오원덕 교장 취임(8대) | = 용마 첫 4성 장군 탄생 - 구창회(12회) |
| -1946년 = 제1회 졸업식(4년제로 축소, 72명 졸업) | = 경남고 노은식 교장 취임(7대) | = 김근준(1회) 고문, 제1회 용마대상 첫 수상 |
| -1947년 = 경남중, 청룡기·황금사자기 우승 | = 경남고, 25년 만에 청룡기전국고교야구 우승 | -1992년 = 토성중, 경남중학교로 개명 |
| -1948년 = 경남중, 청룡기·황금사자기 우승 | = 모교 야구부후원회 창립총회 | = 경남중 김태곤 교장 취임(14대) |
| -1949년 = 경남중, 황금사자기·화랑대기 우승 | -1974년 = 서울대 168명 합격 | = 김영삼(3회) 제14대 대통령 당선 |
| -1950년 = 임채홍(1회) 동창회 초대 회장 취임
= 6·25동란으로 교사군에 징발. 구덕산 기술에 서 '노천수업' | = 경남고, 제28회 황금사자기전국고교야구 제패 | -1993년 = 본부동창회 사무국, 골든OT 이전 |
| = 이영순 교장 취임(2대) | = 모교 야구부후원회 창립 | = 정문화(13회) 동문, 부산시장 취임 |
| -1951년 = 부산제1고등학교(15학급)와 부산서중학교(24학급)로 분리 | -1975년 = 경남고, 서울대 등 전국 3개 종합대학 수석합격 | = 정동식(1회) 고문, 용마대상 수상 |
| -1952년 = 부산제1고등학교 추월영 교장 취임(3대) | = 모교 수영부, 전국 3개 대회 제패 | -1994년 = 우명수(5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23대 회장 취임 |
| = 부산서중학교 이갑도 교장 취임(3대) | = 경남고, 우수고교초청야구대회 우승 | = 권오현(1회) 고문, 용마대상 수상 |
| = 정도해(1회) 동창회 제2대 회장 취임 | -1976년 = 경남고, 서울대 171명 합격 | -1995년 = 주범국(5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24대 회장 취임 |
| -1953년 =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로 각각 교명 변경 | = 제31회 청룡기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 = 경남중 정형석 교장 취임(15대) |
| -1954년 = 김근준(1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3대 회장 취임 | = 토성중 김주갑 교장 취임(9대) | = 경남고 조수호 교장 취임(13대) |
| -1955년 = 경남고, 제9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 -1977년 = 경남고 박찬우 교장 취임(8대) | = 박영식(7회) 교육부장관 발탁 |
| -1956년 = 경남중 김용재 교장 취임(4대) | = 안용백 전 교장 별세 | = 문정수(12회) 부산시장 당선 |
| = 경남고 본관(원형교사) 준공 | = 김택수 동창회장, IOC위원 피선 | = 송두호(3회)고문, 용마대상 수상 |
| = 김영삼(3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4대 회장 취임 | = 동창회보 지령 100호 발간, 축쇄판 제1집(1~100호) 발간 | -1996년 = 추경석(8회) 건설교통부장관 발탁 |
| -1957년 = 경남고 도서관 개관 | -1978년 = 토성중 정두진 교장 취임(10대) | = 이희문(6회) 동문, 용마대상수상 |
| = 동창회 명부 발간 | = 김택수·김영삼 등 동문 7명, 제10대 국회 진출 | = 본부동창회 1995판 총명부(1~42회) 발간 |
| -1958년 = 박시태(3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5대 회장 취임 | -1979년 = 김영삼 부회장, 신민당 총재 취임 | = 용마장학회 출범 - 초대이사장 김근준(1회) |
| -1959년 = 경남중 신축 교사 기공식 | = 경남고, 제1회 전국야구대제전(26개교 참가) 우승 | -1997년 = 경남고 김봉길 교장 취임(14대) |
| = 경남고 현 교가 인가 | -1980년 = 토성중 박희주 교장 취임(11대) | = 경남고, 제49회 화랑대기, 전국체전 우승 |
| -1960년 = 김택수(1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6~17대 회장 취임 | = 경남고, 제2회 전국야구대제전 2연패 | = 이환균(14회) 건설교통부 장관 발탁 |
| = 경남중 백학모 교장 취임(5대) | -1981년 = 경남고 주상우 교장 취임(9대) | = 정상천(4회) 고문, 용마대상 수상 |
| -1961년 = 경남고 강정룡 교장 취임(4대) | = 라스팔마스지역동창회 창립 | -1998년 = 경남중 김성찬 교장 취임(16대) |
| = 경남고 박경원 교장 취임(5대) | = 미국 오하이오주 지역동창회 창립 | = 정소영(6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25대 회장 취임 |
| -1963년 = 경남고, 서울대 등 전국 3개 종합대학입시 전 체수석 배출 | = 일본지역동창회 창립 | = 경남고, 청룡기·봉황기 우승 |
| -1964년 = 경남고 과학관(철근 콘크리트 4층) 낙성식 | -1982년 = 토성중 체육관 준공 기념식 | = 조정제(12회) 해양수산부 장관 |
| -1965년 = 경남중 이해도 교장 취임(6대) | = 정치근(4회) 동문 법무부장관, 김동휘(5회) 동문 상공부장관 부임 | -1999년 = 경남중 주기민 교장 취임(17대) |
| =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창립 | = 토성중 정원홍 교장 취임(12대) | = 경남고 김성찬 교장 취임(15대) |
| = 경남중고 동창회 장학회 발족 | = 김택수 동창회장·IOC위원 타계 | -2000년 = 조대제(7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26대 회장 취임 |
| -1967년 = 경남고, 제21회 황금사자기 우승 | = 제1회 용마의 밤 개최(송두호 회장대행, 부산 코모도호텔) | = 13인의 용마, 국회의원 금배지 |
| = 동창회 명부 발간 | -1984년 = 송두호(3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18~20대 회장 취임 | -2001년 = 경남고 김향운 교장 취임(16대) |
| -1968년 = 경남중고 동창회보 창간 | = 84년판 동창회명부 발간 | = 경남고, 4년 만에 화랑대기 우승 쾌거 |
| 경남고, 전국자유교양대회 우승 | -1985년 = 경남고 김용태 교장 취임(10대) | -2002년 = 경남중 강무기 교장 취임(18대) |
| 경남고, 제20회 화랑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 = 용마 6명, 제12대 국회 진출 | = 박동열(8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27대 회장 취임 |
| -1969년 = 김택수·김영삼 경남중고동창회 정·부회장, 여야 원내총무 시대 | = 박봉식(5회) 동문 서울대, 김두희(4회) 동문 청주대 총장 취임 | -2003년 = 경남고, 봉황대기 5년 만에 쟁취 |
| = 경남중 송학준 교장 취임(7대) | -1986년 = 경남고 국산기념관 개관식 | = 경남중 김철곤 교장 취임(19대) |
| = 재경동창회 주최 제1회 기별야구대회 개최 | -1987년 = 경남고 우명수 교장 취임(11대) | = 경남고 권명미 교장 취임(17대) |
| -1970년 = 경남중, 토성중학교로 개명(중학교 평준화 정책) | = 동창회보 지령 200호(1987.9.30.) 발행 | -2004년 = 정행권(9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28대 회장 취임 |
| = 토성중, 전국중학3학년 학력경시 단체우승 | -1988년 = 용마 7인, 국회 입성 | = 동창회보 축쇄판 제3집 발간 |
| | = 88용마의 밤 1500동문 참석 대성황 | = 17인의 용마, 제17대 국회의원 금배지 |
| | -1989년 = 토성중 이운주 교장 취임(13대) | = 경남중, 대통령기·롯데배 '연타석' 우승 홈런 |
| | = 경남고, 제41회 화랑대기 21년 만에 쟁취 | -2005년 = 안강태(11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29~30대 회장 취임 |
| | -1990년 = 정상천(4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21~22대 회장 취임 | = 추월령 3대 교장 별세 |

<27면에 계속>

경미회, ‘코로나19’ 뚫고 단합과 단결 과시 신년회

지난해 급성장 바탕 올해 더욱 탄탄한 조직 다짐

경남고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경남중고 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 신년회가 지난 2월 6일 오후 용호동 이가한우(42회 정용중 동문 운영)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미회 창립 2년째를 맞으며 처음 갖는 신년회라 ‘단합과 단결’의 의미를 더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속에서도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등 행사장은 참석자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올해 임기 1년을 연장기로 한 우영환(40회) 경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경미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박종찬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총동창회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경미회 집행부와 각 분과위원장 및 총무 등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모임이 활력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경미회 집행부는 올해 한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 회원들의 행사 참석률이 90%이상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경미회는 우리 동문회가 미래를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동문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각 기수를 대표하는 동문 모임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어 ‘인생 어드바이스’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 결과는 인생의 후반부에 나온다”면서 “인생을 길게 보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긍정적

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경미회에 54회 동문을 비롯, 신규 참석자 10명이 소개되었다.

이 자리에 수석부회장(자기 총동창회장)으로 지명된 박성철(29회·변호사) 동문이 행사 마무리 시각에 참석, 경미회 회원들과 어울렸다. 박 동문은 “동문들과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박 동문은 이날 2차 자리

의 경비를 협찬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총동창회에서는 박 총동창회장을 비롯, 사무국원이 참석했다.

한편 경미회는 지난 2월 13일 오후 경남고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경남고 교장실에서 정대호 교장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경미회의 공식적인 ‘첫 장학금’으로 회원들의 ‘사랑의 힘’의 결정체이다.



창립 2년째를 맞은 경미회가 첫 신년회를 가졌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경미회가 지난 2월 13일 경남고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42회, 제2회 동기 자녀 장학금 전달식

부자(父子)동문 아들 윤원호(73회) 동문 영광

지난해 2월 초 유명을 달리한 동기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동기애를 과시했던 42회 동기회(회장 신봉준)가 지난 2월 7일 제2회 동기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용마의 우정과 선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반에 확산된 침울한 분위기에 청량제와 같은 소식이다.

42회 동기회는 이날 오후 5시 중앙동 팬스타쿠르즈 사옥 1층에서 윤영덕 동

기생 아들 윤원호(73회·한양대 기계공학 학과 1년) 동문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 장학금은 먼저 고인이 된 동기생의 자녀, 차상위 자녀, 부자간 동문 자녀가 대상이다. 이번에는 부자간 동문 자녀가 장학금 수혜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제1회 수혜자는 고(故) 장원철 동기의 딸 세희 양(동아대 재학)이었다.

윤원호 동문은 장학금 수여식 때 ‘장학금 일부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기

부’ 약속을 지난 2월 11일 지켰다.

신봉준 동기회장은 “동기생 자녀 장학금 전달 행사에 동참해준 동기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 행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2회 동기생 중 부자간 동창회관 기금 기부는 윤영덕·윤원호 부자동문 외에도 고 김근준(1회)·김재용(42회) 부

자동문이 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42회 동기생은 신봉준 동기회장을 비롯, 강인호 안정일 윤영기 윤영덕 이영도 동문 등이다.



42회 동기회가 제2회 동기회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 2월 7일 열었다.

<26면에 이어서>

- 2006년 = 경남중 이정환 교장 취임(20대)
= 경남고 김종석 교장 취임(18대)
= 경남고, 제61회 청룡기 야구 우승...7번째 왕중왕 등극
- 2007년 = 경남고, 제62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2연패)
- 2008년 = 경남고 수준별 수업 모델학교 지정
= 구본능(21회) 동문, 경남고 남애관(야구부 기숙사) 준공
- 2009년 = 이용흙(19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31대 회장 취임
= 경남고, 부산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
- 2010년 = 김근준(1회) 고문 별세

- = 경남중고발전위원회(경발위) 공식 발족
- = 경남중 차동렬 교장 취임(21대)
- = 경남고 제65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 = ‘남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35회) 신부 선종
- = 경남고 김원용 교장 취임(19대)
- 2011년 = 오거돈(21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32대 회장 취임
- = 양승태(20회) 동문, 대법원장 취임...경남고, 3부 수장 배출 학교
- = ‘불세출의 투수’ 최동원(31회) 동문 타계
- 2012년 = 6인의 용마, 대학총장 전성시대 열다
- = 안강태(11회) 고문, 용마대상 수상

- 2013년 = 경남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 운영
- = 경남고 서강태 교장 취임(20대)
- = 경남중 이요섭 교장 취임(22대)
- = 허범도(22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33대 회장 취임
- = 경남고 원형교사, 근대건축문화재 등재
- = 경남중, 정부 3부 수장에 국무총리(정홍원·17회)까지 배출
- 2014년 = 용마, 고교동문바둑대회 우승
- = 경남중,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중등부 11년 만에 우승
- = 김무성(24회) 동문, 새누리당 대표 선출
- = 서병수(25회) 동문, 부산시장 취임
- <28면에 계속>

2020 경남고 야구부 현황



(보기 순: 이름 번호, 포지션/투구·타석, 키/체중)



교장
정대호

교감
김기련

야구부장
마효걸

감독
전광렬

수석코치
정수찬

코치
박현승

코치
김성환

3학년
→
(13명)

 김동하 42 외야수/우우 174/82	 김성수 11 투수/우우 174/72	 김창훈 44 투수/우우 185/97	 나형준 45 투수/우우 183/86	 박종두 29 투수/좌좌 178/82	 박현수 25 내야수/우우 178/88	 이상혁 41 외야수/우좌 179/79	 이성국 7 내야수/우우 173/72	 이용준 38 외야수/우우 178/83
--------------------------------	-------------------------------	-------------------------------	-------------------------------	-------------------------------	--------------------------------	--------------------------------	-------------------------------	--------------------------------

2학년
→
(총15명)

 이상돈 27 내야수/우우 178/78	 임지성 35 내야수/우우 178/85	 정진환 1 투수/우우 183/95	 최영환 16 내야수/우우 180/80	 김민석 2 내야수/우우 173/72	 김민수 26 포수/우우 173/82	 김주완 28 투수/좌좌 185/92	 노운현 31 투수/우우 183/85	 류한서 23 외야수/좌좌 170/70
--------------------------------	--------------------------------	------------------------------	--------------------------------	-------------------------------	-------------------------------	-------------------------------	-------------------------------	--------------------------------

 이원재 17 투수/좌좌 186/88	 이정후 8 내야수/우우 178/73	 이장수 37 투수/우우 176/70	 이세운 14 내야수/우우 173/75	 이경민 33 내야수/우우 177/82	 안민성 32 포수/우우 181/90	 어 용 21 투수/우우 186/105	 임정형 19 투수/우우 180/80	 정우중 10 포수/우우 184/72	 허성철 18 외야수/우좌 173/76
-------------------------------	-------------------------------	-------------------------------	--------------------------------	--------------------------------	-------------------------------	--------------------------------	-------------------------------	-------------------------------	--------------------------------

1학년
→
(총16명)

 강민우 36 내야수/우우 165/61	 권태인 40 투수/우우 181/79	 김관우 43 내야수/우우 176/79	 김동환 24 투수/우우 173/66	 김범석 12 포수/우우 175/107	 김정민 5 투수/좌좌 174/66	 박윤성 15 투수/우우 181/84	 박성현 20 투수/우우 179/104	 배정운 6 내야수/우우 179/64
--------------------------------	-------------------------------	--------------------------------	-------------------------------	--------------------------------	------------------------------	-------------------------------	--------------------------------	-------------------------------

 손민석 3 내야수/우좌 170/60	 신영우 34 투수/우우 177/69	 오상택 30 외야수/좌좌 172/60	 임성규 9 내야수/우우 170/62	 장수원 13 내야수/우우 171/81	 주시윤 39 투수/우우 180/89	 허준석 22 포수/우우 174/67
-------------------------------	-------------------------------	--------------------------------	-------------------------------	--------------------------------	-------------------------------	-------------------------------

◇……경남중고의 역사와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야구이다. 그 이야기를 만드는 현재의 주인공이 모교 선수들이다. 동창회보 제428호에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 2020년 현황을 소개한다. 올해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파이팅!’을 기원한다.……◇

<27면에 이어서>

- 2015년 = 김영삼(3회) 전 대통령 서거
- = 경남중 윤병진 교장 취임(23대)
- = 박대동(23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34대 회장 취임
- = 정상천(4회) 전 동창회장 타계
- 2016년 = 이병찬(23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35대 회장 취임
- = 용마 8인, 제20대 국회 진출
- =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

- = 동창회원 총명부 발간
- 2017년 = 문재인(25회) 동문, 제19대 대통령 취임
- = 경남고, 정대호 교장 부임(21대)
- = 경남중, 박승병 교장 부임(24대)
- = 김영기(23회) 동문, 용마대상 수상
- = 동창회 명칭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로 개명
- = 경남고, 전국체전·롯데기 우승
- 2018년 = 박종찬(25회) 경남중고 동창회 제36~37대 회장 취임

- = 동창회관 구입기금 모금운동 전개
- = 총동창회 밴드 개설
- = 오거돈(21회) 동문, 부산시장 당선
- = 기별야구대회 50주년 동문 한마당 축제
- 2019년 = 경남중고발전협의회(경미회) 출범
- = 부산시역 9개 지구단위동창회로 정비
- = 연말 동창회관 구입 계약 체결
- = 경남중 김미정 교장 부임(제25대)
- 2020년 =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 발간
- = 총동창회관 개관(6월 20일)

“2022년 3월 덕형관 원형복원 공사 완성”

원형복원사업 본격화...설계용역 들어가
건립 기록동판 발견...‘설계자 이영래’ 확인

덕형관 원형복원을 위한 1차 자문회의(2020. 2. 13)는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항으로, 다가올 4월경에 원형복원 및 구조정밀안전진단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11월경에 착공을 하여, 2022년 3월경에 원형복원 공사를 완성하는 일정으로, 원형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동창회(박종찬 회장·25회)와 경남고등학교(정대호 교장), 원형복원 자문위원회(류종우 회장·18회)의 장상진(16회·전 부산경남건축가회 회장), 김정신(24회), 이영학(26회), 강인호(42회) 동문 등이 힘을 합쳐 덕형관 원형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덕형관이 갖는 근대건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덕형관은 부지가 좁은 경남고의 여건에 맞추어 선진 외국의 모더니즘 건축사조

를 응용하여 건축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천편일률적이던 장방형 벽돌 구조 학교건물 형태표준도에서 벗어나 획기적이고 대지와 공간효율성이 좋은 원형의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건축형태와 기능 면에서 시대를 앞서간 매우 세련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라는 건축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전 국토가 폐허해져 있던 1954년경부터 ‘한국적 미래’를 위하여 원형교사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였다는 점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덕형관 건립을 구상한 추월영 교장 선생님의 깊고 높은 탁월한 안목이 놀랍고, 이를 실행할 수 있게 세부계획과 설계를 주도하였던 이영래 건축가의 노력에 놀라움을 표하게 됩니다.

덕형관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2012년 원형교

사인 덕형관을 근대건축문화재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이용흙(19회·전 총동창회장) 추진위원장을 주축으로 류종우(18회), 김차웅(19회), 김정신(24회), 이영학(26회) 동문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애로와 우여곡절 끝에 2013년 2월 부산서구청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부산시를 거치고, 문화재청의 현장실사를 통과하여 2013년 12월에 문화재청 제568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덕형관 입구에 등록문화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형관 현장 확인 중에 건립 당시의 기록 동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덕형관이 건립된 후 2년여가 지난 1959년에 모교에 입학하였던 장상진 자문위원의 기억을 살려서 덕형관 5층 천정 속에 숨어있던 건립당시의 동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판에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1년 9개월이 지난) 1955년 4월에 착공하여, 1956년 11월 30일에 준공을 하였고, 공사비 약 7,000만환은 학부형과 경남중학교, 그리고 UNKRA 등의 지

덕형관 원형고증 및 복원사업
자문위원장 류종우(18회)



원을 받았으며, 설계자는 ‘리 영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대건축문화재에서는 설계자가 누구인지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덕형관 설계자는 ‘이영래’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재경동창회의 용마회보 등과 개별적으로 SNS를 통하여 덕형관 설계자로 소개되었던 건축가 이천승 씨는 덕형관 설계자로 공인되지 못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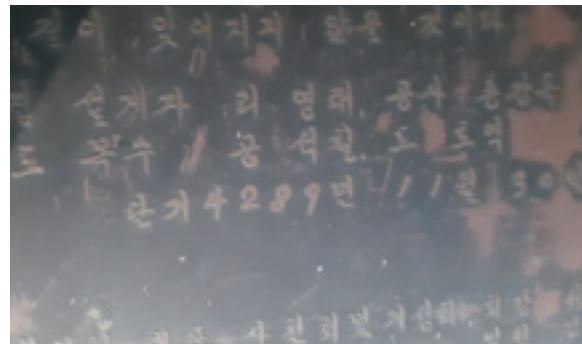
다만 한국전쟁 후 부산에서 활동하였던 이천승 씨의 설계기법 상으로 미루어 덕형관 설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덕형관 전체를 총괄하여 기획하고 설계를 하는 등 총괄책임 설계자는 이영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건립 초기 덕형관 정면 모습.



덕형관 원형복원 자문회의 모습.



덕형관 기록동판 일부. 설계자 이름이 명기돼 있다.

경남고 야구부에도 코로나 사태 전남 고흥 전지훈련 도중 철수

모교 야구부도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내훈련금지령을 내렸다. 전지훈련 및 단체·합동훈련이 일체 금지되었다. 경남고는 지난 2월 18일 전남 고흥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 ‘28일 훈련 종료’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24일 철수해 해산철차를 밟았다. 현재 주말리기도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전광렬(44회) 경남고 야구부 감독은 “1타임에 10명 미만씩 각계분리식의 연습을 시키고 있다. 그라운드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기량을 연마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 어쨌든 선수 각자가 개인훈련의 땀을 많이 쏟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사태로 모교 학사일정 혼란

코로나19사태가 ‘배움의 전당’인 학교마저 강타했다. 신학기 개학이 연거푸 연기되고 있다. 학사일정의 기본틀이 완전 와해되다시피 됐다. 해방 이후와 6·25동란 당시의 혼란에 육박하고 있다. 모교 후배들을 걱정하는 동문들은 개교 이후 초창기 선배들이 국가적 대혼란을 겪으면서도 곳곳하게 성장해 나라의 ‘동량(棟梁)’이 되었듯이 재학생 후배들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또한 모교 교사들이 후배 학생들을 사랑과 덕(德)으로 잘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남고는 지난 2월 11일 제74회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생 수는 197명이다. 학부모 및 외부 인사는 단 한명도 초대되지 않고 방송으로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생과 재학생은 각 반 교실에 있

고, 대표 학생만 방송실로 와서 졸업장 및 상장을 수여받았다. ‘방송 졸업식’으로 사진마저 없다고 한다.

정대호 교장은 졸업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의 힘을 가지고 무한의 잠재능력을 이끌어 내어 이 나라의 동량으로 성장해 주기를 기원하며, 경고인이 꿈

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학교 비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김민규(자연), 백문서(인문)군이 학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남중도 지난 2월 7일 약식으로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생수는 155명이다. 졸업생 총수는 3만5521명이다.

올해 경남고 입학생은 168명(8학급)이다. 경남중은 144명(5학급)이다.

서울대 1, 연세대 2, 부산대 9, 부경대 11명 진학

경남고의 2020 대입시 최종 결과가 나왔다. 수시와 정시 합격자 발표에 이어 등록자가 확인되었다. 경남고는 재학생과 졸업생(재수생 등)을 포함한 합격자 및 등록자를 발표했다. 대학 145명, 전문대 21명이 등록자로 집계됐다.

각 대학에 진학한 등록자 수를 보면, 수도권권의 경우 서울대 1명, 고려대(+세종)+1명, 연세대 2명, 성균관대 1명, 한양대

(+에니카) 1+3명, 중앙대 1명, 경희대(+국제) 1+1명, 서울시립대 1명, 기타 서울 소재 대학 5명이다.

부산권은 부산대 9명, 부경대 11명, 동아대 24명, 기타 부산소재 대학 45명이다. 특수대학으로 GIST(광주과학기술원) 1명, UNIST 1명, 사관학교 1명이다. 그 외 대학에 35명이, 전문대학에 21명이 각각 진학했다.

제21대 총선, 10명의 용마 선전 기대

박대동(23회) 서병수(25회) 하영제(27회) 박성중(30회) 구상찬(31회) 진성호(35회)
김영문(37회) 이수명(38회) 조경태(40회) 최택용(41회) 동문 등 출사표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중고 출신 동문 10명이 최종적으로 결전의 무대에 올랐다. 다행히 동문 간 혈전을 벌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 많은 동문이 진출, 좋은 정치를 펼쳐서 모교의 명예를 높이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게 동문들의 보편적인 바람이다. 출사표를 던진 동문들을 소개한다.

박대동(23회·총동창회 고문) 동문이 미래통합당 울산 북구 후보로 출마했다. 박 고문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서병수(25회·총동창회 부회장)이 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갑 후보로 출마했다. 서 부회장은 부산시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하영제(27회) 동문이 미래통합당 경남 사천·남해·하동 후보로 출마했다. 하 동문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농산물유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성중(30회) 동문이 미래통합당 서



박대동



서병수



하영제



박성중



구상찬



진성호



김영문



이수명



조경태



최택용

울 서초을 후보로 출마했다. 박 동문은 서울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제20대 국회의원이다.

구상찬(31회) 동문이 미래통합당 서울 강서갑 후보로 출마했다. 구 동문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진성호(35회) 동문이 무소속 부산 동래구 후보로 출마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 동

문은 유튜버로 활약 중이다.

김영문(37회) 동문이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후보로 출마했다. 검사 출신인 김 동문은 청와대 사정비서관 행정관, 관세청장을 역임했다.

이수명(38회) 동문이 국가혁명배당금당 부산 해운대갑 후보로 출마했다. 해인에너지 대표이사인 이 동문은 국가혁명배당금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이다.

조경태(40회) 동문이 미래통합당 부산 사하구를 후보로 출마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조 동문은 제17~20대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5선에 도전한다.

최택용(41회) 동문이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군 후보로 출마했다. 최 동문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박맹우(25회) 동문은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를 예비후보로, 김용원(28회) 동문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영도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제20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미래통합당 소속인 여상규(22회·경남 사천·남해·하동), 정갑윤(23회·울산 중구), 김무성(24회·부산 중·영도구), 유기준(32회·부산 서·동구) 동문은 이번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총동창회 사무국은 지난 3월 27일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동문 3곳의 선거캠프를 방문,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신승렬(36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등은 이날 오전 최택용 동문, 오후에는 서병수·조경태 동문 선거캠프를 각각 방문했다.

5월 2일 100대 명산산행 속개

용마산악회, 3·4월 산행 취소...6월 정기산행



용마산악회회원들이 오대산 월정사 8각9층석탑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윤원욱 영상편집위원(39회)>

용마산악회(회장 김법영·33회)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2020년 산행 일정을 새롭게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3월 등반은 이미 취소했고, 4월 등반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획을 취소했다.

용마산악회는 정기산행은 6, 9, 12월로 일정을 잡았다. 100대 명품산행은 일단 5월부터 시작한다. 물론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된다는 가정 하에서 잠정적으로 세운 것이다. 주목되는 행사로 오는 6월 7일 100대 명품산행 100차 대암산 등반에 이어 곧바로 6월 21일 정기산행으로 경부합동 주왕산 등반이 예정돼 있다. '용마 산사나이'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예정 일정은 다음과 같

다.

◇정기산행=△6월 21일(일) 경부합동등반-주왕산 예정 △9월 13일(일) 영남 알프스 등반 △12월 13일(일) 경주 무장산 또는 금정산 남회등반

◇100대 명품산행(날씨따라 변경 가능)=△97차 5월 2일(토) 오대산→곰배령 인근 민박 △98차 5월 3일(일) 점봉산 곰배령 △99차 6월 6일(토) 가리산→대암산 인근 민박 △100차 6월 7일(일) 대암산 (5월 15일부터 등산 가능)

한편 용마산악회는 지난 2월 1~2일 올해 첫 100대 명품산행 96, 97차 등반으로 강원도 오대산과 방태산 등정에 나섰다. 오대산은 상원사 가는 길이 교통신고로 막혀 오르지 못했다.

오클랜드지역동창회기 전달

현지 사무국장 김성혁 동문, 사무국 방문

경남중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동창회에도 회기가 걸리게 되었다. 지난 2월 10일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오클랜드지역동창회기 전달식이 있었다. 오클랜드지역동창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성혁(41회) 동문이 모국을 방문, 사무국을 찾아와 회기를 전달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이곳을 방문, 동문들과 모임을 갖고 회기 제작을 약속했던 것이다. 마침 개인적인 용무로 모국을 방문한 김 동문이 박 총동창회장과 연락이 닿아 회기를 직접 전달받기로 했던 것이다. 이 회기는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제작의뢰한 것이다.

김 동문은 "오클랜드지역동창회는 연배 높으신 분들이 많

다. 막내가 45회인 김성민 동문이다. 분기별로 연 4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가끔 번개모임도 갖는다. 29회 이왕봉 회장이 현재 리드를 잘하고 있으며, 18회 차준호 선배가 동문들을 잘 챙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오클랜드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다.

이날 회기 전달식에는 박 총동창회장을 비롯,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신승렬(36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동창회 사무국장인 김성혁(41회·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동문이 박종찬 총동창회장으로부터 회기를 전달받았다.

동기회 및 직능단체

18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27일(목) 서면유원오피스텔 19층 동기회관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성재 회장 유임이 결정되었다.

19회 (재경)산악회 = 정기산행



지난 3월 8일(일) 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불곡산 산행을 하였다. 분당선 정자역~탄천변~KT본사 앞 동산~서울대분당병원 뒷길~과명덕 묘~불곡산 정상~형제봉~분당 중앙공원~수내역까지 딱 3시간 코스였다. 산행 후 식사는 수내역 앞 무극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24회 산우애 = 2월 시산제 및 정기총회



지난 2월 1일(토) 14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시산제 및 정기총회를 하였다.

산우애 신입회장으로 태창업 동기가 선출되었다. 산행은 경남고 ~ 구봉산봉수대 시산제 ~ 원향재 구간이었다.

◇참석자: 곽두희 구자웅 김도현 김인구 김현태 배재일 안형수 임민호 장현동 정영환 최승국 최원주 태창업 한승철

24회 이사빌 = 월례회



지난 2월 9일(일) 중앙동 플라틴당구카페에서 10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2월 월례회를 하였다. 경기 결과는 우승은 정기춘 동기가, 준우승은 박해성 동기가 차지하였다. 뒤풀이 모임은 성문식당에서 하였다.

“졸업 70주년 ‘간소한 홈커밍데이’ 간다”

양중학 4회 동기회장 “세상이 어수선하니 다과회 정도로”
5월 4일 오후 3시 경남중서 진행



양중학 4회 동기회장

코로나19사태로 경남중(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 체제) 졸업 제4회 동기생들의 ‘구순(九旬)의 꿈’이 위축 받고 있다. 오는 5월 4일 오후 3시 졸업 7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거창하게 준비하던 4회 동기생들은 모교 방문 다과회 정도의 행사로 계획을 변경했다.

양중학 4회 동기회장은 “예정대로 행사는 치를 계획이다. 세상이 어수선해서 친정 나들이 한다는 생각 같이 간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참가 생각이 있던 서울 친구들도 몸이 불편해서 오기가 불투명하고, 부산의 친구들도 나이가 90이 되다보니 몸이 다 시원찮아 많

이 오기 힘들 것 같다. ‘손’ 놓은 지도 오래돼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형편들이다. 대략 15명 정도 참석할 것 같다.”

이날 행사 계획은 4회 동기생들이 경남중 교장실을 방문해서 경남중 및 경남고 교장, 총동창회 집행부 몇 사람 등과 다과회 정도의 행사를 갖고 추억을 나누면서 환담을 하는 것으로 짜두었다.

4회 졸업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 되기 전, 6·25사변 전에 졸업한 세대라서 ‘경남중’이라는 이름에 더 애착이 가서 행사를 경남중에서 갖는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번 4회 졸업생의 ‘졸업 70주년 미니 홈커밍데이’ 행사를 적극 지원기로 하고 주최 측과 협의를 해오고 있다.

◇참석자: 김경남 김성권 김인구 노상우 박해성 임덕철 정기춘 주점권 태창업 황성훈

25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2월 9일(일) 11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2월 정기산행을 진해해수욕장~대바위공원~술개공원~송정항~간절곶 코스로 다녀왔다.

◇참석자: 김구화 김용수 서보민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제영성 최동하 탁준길 한문갑 황곤태

26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 사상 르네상스호텔 뷔페에서 24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하였다. 신입회장에 이광태 동기가 당선되었다. 이광태 신입회장 타올 60세트, 하원규 동기 전화충전기 40개와 광어 10kg, 최수일 동기 알약 40정, 박효대 재경동기회장 양주 2병 협찬. 코로나19 바이러스 탓인지 참석 인원이 너무 적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많은 동기들의 참여를 기대해본다.

◇참석자: 강수남 권해국 김상현 김선일 김종우 박상호 박재창 성백은 윤홍석 이경호 이광태 이성구 장인중 정인수 최수일내외 최윤림 최의수내외 추기복 하원규 허종 허진호 현동우(재경동기회 감사)

27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2월 9일(일) 23명의 동기가족이 모인 가운데 2월 구봉산 산행(351차) 후 자갈치에서 대방어 회식을 하였다.

◇참석자: 김석운내외 김재섭 김지원내외 박찬석 박현호 방문성내외 변재국 윤석건 윤지한내외 이인규



이종찬내외 이현내외 장기남 허한내외 홍종만내외

30 당구회 = 정기모임



지난 3월 21일 남천당구클럽에서 1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코로나를 당구의 열기로 물리치려는 회원들의 국난극복 자세를 읽을 수 있었던 모임이었다.

◇참석자: 김정웅 김정형 김한실 박동욱 박모철 송한식 신영주 이광봉 이명건 이원경 전화원 정규홍 정성원 정용하 정채하

31회 동기회 = 정기총회



31회 동기회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회가 지난 2월 6일 서면 더스타뷔페 갤러리룸에서 46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사와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누고, 진중한 의견과 토론으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신임

〈기사32면에 계속〉

여섯째 아이 출산 ‘애국자 용마’

‘대축복’ 김영권(51회) 동문 “불가능은 없다”



지난 3월 25일 태어난 김영권(51회) 동문의 여섯째 아이. 사하지구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출산 직후 모습이다. 경남중고 동문 모두의 축복이자 기쁨이여라! 아래 사진 김영권(51회) 동문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 나아가 인구 재앙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저출산 시대에 큰 ‘공’을 세우는 용마가 있

다. 51회 김영권 동문이다. 지난 3월 25일 여섯째 아이, 딸이 출생했다. 요즘 세태에 비춰 믿기지 않는 일이다. ‘애국자’

라는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 동문은 현재 러시아인 아내와 1남5녀 자녀를 두었다. 딸-딸-아들-딸-딸-딸 순이다. 첫째 스무살 대학생, 둘째 중학2, 셋째 초등5, 넷째 초등3, 다섯째 2살, 여섯째 1살박이로 짜여진 다둥이가정이다. 아내도 아이들을 좋아해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22살 이른 나이에 결혼하다보니 지금 44세 나이에 출산을 한 여섯째가 그다지 늦둥이로 인식되지 않는다.

김 동문은 다둥이가정을 만들게 된 연유를 말한다. “용마인이라서 불가능이 없다”고 너스레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를 잇는다. “첫째와 둘째가 터울이 많았는데, 그후로 아이들이 생을 요구해 계속 낳게 되었다.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려 했다”고 말했다. ‘여섯째 육아는 누가 하는지?’라는 질문에 그는 “셋째, 넷째가 한다”며 대가족의 이점을 거론했다. “아버지 세대가 대가족이었는데 형제간 우의가 깊고 참 좋았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진심을 드러냈다.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의 사업장에서도 드러난다. 김 동문은 연초에 개업한 ‘왕건이부대찌개’(명지동 소재) 식당 메뉴 중 어린이 돈까스는 저가인 3,000원에 판매한다고 개업 시 동문 밴드에 인사를 올렸다. “아이들한테서는 이윤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욕심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장사한다”는 김 동문의 마음씀씀이에서 용마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김 동문은 무척 바쁘다. 지난해 12월 5일 무역의 날에는 아내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이 수출(화장품)을 잘해 상도 받았다. 무역업체 대표에 식당 사장에 용마코러스 단원까지. 그리고 6남매 아빠이다. 그는 말한다. “용마 아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31면에 이어서〉

동기회장으로 서수교 동기, 동기회 감사는 김호성 동기가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었다. 서수교 신입 동기회장의 지명으로 박종호, 신상하, 이민재, 이성식, 최주홍 동기들이 부회장으로, 김태근 동기가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어 제20대 동기회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참석자: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광수 김영철 김용호 김운택 김종호 김태근 김학현 김형수 김호성 김효연 박경수 박세환 박종규 배정우 서규영 서동균 서수교 신성수 심재현 심재홍 안용모 안중수 예현수 이기범 이민재 이석우 이성식 이승진 이원장 이종만 장성수 장재훈 전창수 정용식 정인화 조영기 조현우 천장호 최광수 최봉근 최상규 최상웅 하병관

34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2월12일 오후 코로나19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봄을 재촉하는 비까지 내려 움직이기 불편하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범일동 소재 장수춘24시에 30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19년 결산에 관한 건을 부동의 없이 전원 박수로 통과시켰다. 신입 동기회장에 이성엽 동기가 선출되어 40주년 홈커밍데이 준비위원장을 겸하여 수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새로이 봉사할 동기가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관례로 사무국장은 유임되었다.

홈커밍데이 준비 실무단은 재무 김종근, 홍보 손병걸, 사무 옥재명 동기가 맡아 수고해 주기로 하였다.

홈커밍데이의 개최 일자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11월 중순에 개최기로 하였다. 총회 시 식사비용 전액 김두섭 동기가 찬조하였다.

◇참석자: 강운모 권대식 권병웅 김두섭 김인철 김중근 김태하 문창영 문치호 문형철 박우현 박종수 박철웅 박철호 배성산 백운창 손병걸 송환성 옥재명 이상운 이성엽 이용희 이재완 이정철 이진호 조선 차영록 최해협 황기운 황병주

50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1월 23일(목) 마시소한우갈비살(채현철 동기 운영)에서 1월 설정기모임을 가졌다. 2차는 당구장을 거쳐 3차로 소주 한잔 더하고 설정기모임 마무리를 지었다.

◇참석자: 김정현 김동현 김석훈 김성학 백송현 채현철 황현후

54프렌즈 = 덕형리그 시즌개막

54회 동기회 야구팀 54프렌즈의 덕형리그 2020시즌이 개막되었다. 지난 2월 1일(토)과 2월 15일(토) 이틀에 걸쳐 52회, 51회와의 경기를 가졌다. 52회와의 경기는 10:12 석패, 51회와의 경기는 16:0 콜드승을 하였다.

54프렌즈는 짧은 시간이나마 단체 활동을 통하여 경남중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끈끈한 동기애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많은 동기들의 적극

용마코러스 집행부 교체

신임 단장 최상규(31회) 동문
사무국장 박근태(39회) 동문

용마코러스는 지난 1월 21일 서면 스튜디오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갖고 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교체를 단행했다. 이날 신임 단장으로 최상규(31회·사진) 동문이 선임됐다. 사무국장은 박근태(39회), 대외협력 신봉준(42회), 재무 박형준(44회), 기획홍보 김황(44회), 악보장 김석훈(50회) 동문이 맡았다. 또 김동원(41회), 박형규(43회) 동문이 감사로 지명됐다. 용마코러스에서 테너1 파트에 속하는 최 신임 단장은 부·울·경 용마언론인 클럽 회원으로도 활약 중이다. 현재 동아일보 부산 지사장직을 맡고 있다.



적인 활동참여를 기대해 본다.

◇참석자: 강성운 김대진 김병조 김상훈 김성규 김영빈 김진욱 남승태 남준현 송재호 양현진(후원) 이동하 이재필 임길환 전명진 정준섭(응원) 정채민 제재철 조중완

요즘 어떻게?

<12회>

△정기정 = 부인상. 1월3일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13회>

△박종택 = 모친상. 2월16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14회>

△김향 = 부인상. 3월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15회>

△최병우 = 모친상. 3월10일 서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1회>

△신남석 = 모친상. 2월5일 해운대 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2회>

△박철민 = 빙모상. 2월2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여상규 = 빙부상. 2월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3회>

△강대우 = 모친상. 2월13일 동의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4회>

△송민호 = 모친상. 2월3일 좋은삼선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현규 = 모친상. 2월16일 창원 동창원장례식장에서 발인. △김동운 = 빙모상. 2월11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5회>

△윤순기 = 장남 형섭 군이 3월14일(토) 19시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재환 = 장남 흥

준 군이 3월28일(토) 17시30분 더 채플 앳 청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6회>

△김동연 = 부친상. 2월26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준규, 이성호 = 빙모상. 2월8일 서울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양준영 = 차녀 자원 양이 4월4일(토) 12시 대구 웨딩비엔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윤승용 = 빙부상. 2월19일 울산시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동수 = 모친상. 2월29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병석 = 모친상. 3월12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7회>

△김현수 = 부인상. 3월24일 좌천동 봉생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8회>

△김관세 = 차남 익환 군이 2월15일(토) 17시 서울 엠블레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만중(옥상곤) = 모친상(빙모상). 2월23일 감전동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29회>

△이중희 = 모친상. 3월21일 감전동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명룡 = 장녀 유정양 2월29일(토) 12시 30분 궁덕동 에펠가모에서 결혼식. △최문성 = 모친상. 3월12일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0회>

△김상직 = 모친상. 2월10일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중휘 = 장남 영태 군이 2월23일(일) 11시30분 서울 노블발렌티삼성에서 결혼식. △

류구현 = 모친상. 2월22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규완 = 장남 재현 군이 2월22일(토) 15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결혼식. △서복현 = 모친상. 2월13일 동래 한서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윤광식 = 모친상. 2월23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이광기 = 부친상. 2월14일 서울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원경 = 부친상. 2월8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하재명 = 장남 건호 군이 4월11일(토) 17시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결혼식.

<31회>

△김상용 = 장녀 결희 양이 2월16일(일) 12시50분 대구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결혼식. △배정호 = 빙모상. 3월11일 아시아드 장례식장에서 발인. △심중식 = 모친상. 2월5일 부곡동 한서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장성호 = 빙모상. 3월20일 전남 고흥 우주장례식장에서 발인. △조정제 = 부인상. 1월24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3회>

△김기산 = 거제 성포중학교장에서 거제 연초중학교장으로 2020년 3월1일자로 인사이동.

<34회>

△윤성배 = 부친상. 3월5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최웅철 = 빙모상. 2월5일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6회>

△김종오 = 모친상. 3월13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7회>

식을 가졌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일시 또는 5년 이내에 기부 약정하는 고액 기부자 클럽이다. 김 동문은 가입식에서 “나눔은 평등”이라며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평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김 동문은 북유럽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용 원자재 에이전트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 ‘상명’을 이끌고 있다.

최장혁(36회), 인천시 행정부시장 취임



최장혁(36회) 동문이 지난 3월 23일자로 인천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했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국장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명환(7회) = 3월 9일 작고
- ▶한득추(9회) = 3월 1일 작고
- ▶김용규(10회) = 3월 13일 작고
- ▶이봉원(10회) = 2월 12일 작고
- ▶김수원(12회) = 1월 6일 작고
- ▶정동식(12회) = 11월 13일 작고
- ▶강영삼(13회) = 2월 6일 작고
- ▶강호정(13회) = 2월 5일 작고
- ▶권근술(14회) = 3월 15일 작고
- ▶조영봉(14회) = 2월 27일 작고
- ▶정옥중(15회) = 3월 6일 작고
- ▶김옥길(18회) = 3월 1일 작고
- ▶박재선(24회) = 2월 27일 작고
- ▶윤일중(26회) = 3월 25일 작고
- ▶장재용(28회) = 2월 14일 작고
- ▶김근덕(29회) = 2월 24일 작고
- ▶김부일(31회) = 1월 29일 작고

△김동욱 = 부친상. 2월11일 괴정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노창훈 = 빙부상. 1월2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민재홍 = 부친상. 3월16일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송형환 = 모친상. 3월1일 서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주홍 = 부친상. 2월14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임창근 = 장녀가 2월22일(토)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식. △조성각 = 빙부상. 1월2일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9회>

△이승민 = 빙부상. 2월13일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41회>

△여근섭 = 2월11일(화)~16일(일) 비움갤러리(서울 중구 퇴계로36길 35)서 초대전 개최. 광안리 올드갤러리(대표 양수정·46회)에서 6월1일(월)부터 오일파스텔화 전시.

모집 공고

- 직책: 총동창회 사무국장(후임)
- 응시자격: 35~40회 동문
- 근무지: 총동창회 사무국
- 제출서류: 이력서
- 제출기한: 2020년 4월 30일 오후 4시까지
- 근무개시일: 6월 1일부터 수습 업무
- 제출처: jcpark@jeitek.co.kr

한준석(25회), 농협중도매인 연합회장



한준석(25회·한농상사 대표) 동문이 지난 3월 14일 실시된 (사)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 임원선거에서 제8대 연합회장에 당선되었다. 한 동문은 경남 창원시농산물도매시장 내 농협창원공판장 과일 중도매인으로 활동 중이다.

박경재(26회), 주LA 총영사 임명

박경재(26회·전 동방문화대학원대 총장) 동문이 지난 3월초 주(駐)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임명됐다. 밀양 출신인 박 동문은 행시(22회)에 합격, 교육부를 거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한영외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동문은 주 유네스코 대표부 주재 경력 이 있어 이번 인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경동창회의 조찬 모임인 덕형포럼의 회장도 지냈다.

김현태(30회), 부산 194호 아너소사이어티



김현태(30회) 상명 회장이 동문이 지난 3월 17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194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2020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1,570명 2020. 3. 29.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6회 임경택 2021년
11회 김광석 2021년
13회 박홍표 2022년, 안성문 2029년
15회 임영길 2022년
18회 홍우재 2024년
19회 김덕수 2021년

20회 유근준 2021년
23회 박재호 2028년
25회 김진우 문재인 서병수 송동준 한현교
허만탁 2021년, 임창운 2051년
26회 강의규 박경수 이경곤 2021년
27회 문성기 2021년
28회 박성곤 임상규 2021년, 안 풍 2022년,
하재근 2028년

30회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최진곤 2021년
32회 송기수 임채균 최춘호 2021년
34회 정하태 2022년
36회 김병국 2021년
37회 서동욱 2021년
38회 권두성 2029년, 김경곤 주영록 2021년
45회 최재근 2021년

46회 한영길 2022년
48회 김춘호 2023년
49회 장민건 2021년
50회 박종현 2028년
51회 신현식 2029년
53회 전세일 2021년
54회 염도용 2023년
69회 정민기 2023년

3회(4명)
송두호 신현익 이안규 하덕모

4회(3명)
김경식 양중학 장수호

5회(9명)
김인택 김재관 박장후 상기중 오백식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6회(13명)
김태환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유상환 이강윤 이희문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승화

7회(12명)
강병희 김갑성 김명관 김용우 김호용 노상석
박영섭 박환배 송외득 윤용우 임의택 하근수

8회(14명)
김동훈 김봉길 김영철 김영환 박재범 박희옥
이종택 이준혁 이준기 이희순 장혁표 전영배
홍광수 홍기성

9회(14명)
김경희 김기관 김 청 박남수 박영복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유금열 유병철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지삼봉

10회(20명)
김성규 김창덕 박철민 배길순 이계창 이근태
이승영 이순준 이재순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무길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조종제 진 강
최병도 최형백

11회(41명)
강병희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기주 김병기
김삼진 김수정 김운택 김민섭 김태호 김항곤
남호현 박관호 박성우 박수경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서영호 서자윤 심재룡 양수택 오정광
유흥중 유흥수 이계찬 이균우 이상태 이성길
이종백 장세원 장영권 정운표 제정오 조양현
지창호 천금근 천동조 최석욱 하중선

12회(45명)
강본순 구진웅 구창희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하 김부환 김영수 김우성 김종련 김종일
김지희 김현주 김훈호 문준화 박상도 박정윤
박호민 배병일 배종섭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대섭 오세정
윤학근 이상현 이수영 이성태 이용희 이현달
이환철 이희동 정수복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병훈 추영재

13회(56명)
고송구 고시준 권영계 권영채 김동호 김무조
김신부 김일수 김정균 김정일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남영기 문 창 박길만 박안남 박영주
박정웅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안성문 안준수
윤기갑 윤태호 이명진 이상문 이용재 이종영
이준범 이창식 이창열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한병조 한진희

허 훈 황일인

14회(36명)
권 명 김동화 김용호 김재도 김창기 김 충 김
형수 김화옥 류종일 박남조 박병선 박중철 박
철수 박청홍 백태우 손영목 신기석 신현호 윤
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명재 이수남 이
현영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전병순 조광명 조
규향 최낙섭 최성웅 하문수 허 증 황원재

15회(39명)
강무상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송평 김쌍열 김옥규 김종태 김종한 김중식
김판열 남기주 남암순 문옥륜 박효가 배 훈
손부홍 신현영 오봉석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희 임영길 장중호 조영일 최광웅 최병우
최 옥 최원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허경도
허광길 허중덕 홍익찬

16회(52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박일 김상웅 김응진
김경우 김 조 김중덕 문성환 민신웅 박영수
박용일 서태복 성기식 성진호 손송방 손용석
송규정 송자문 안인환 엄종원 예광해 옥무웅
이길홍 이무근 이방소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종철 이창원 임승언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황규호

17회(38명)
감정은 강정일 권경술 김길호 김동조 김부근
김용남 김준연 김준위 김중석 김지창 남궁성
은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홍식 송유
근 송인문 신중 신희규 안국정 양성일 어윤대
오충한 윤성욱 윤수성 이수창 임우택 장길성
장호남 정두호 정량부 정용화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행

18회(44명)
강덕용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결
김경권 김경하 김기섭 김길출 김 석 김성건
김재창 김정래 김중철 류종우 박건태 박동오
박상욱 박선동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준성 서재봉 서종규 손찬규 우원호 윤봉수
이금희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조성재 차명석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홍우재 황광권

19회(51명)
강동완 김경재 김규하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순호 김영태 김용엽 김인선 김경우
김진국 남진현 노덕현 박갑진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석무관 선우일남 성낙출 성환진 손철
수 신윤철 안경모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이근
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성달 이양환 이용
흠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윤 이춘만 장성
규 전영석 정규병 정태을 진수상 최상대 함진
복 허남걸 황태경 황태원

20회(31명)
강기철 강부덕 강석근 김두영 김세준 김종민
김한원 김형오 남기석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백완곤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오경석 유근준 윤병규 이영오 정세현 정승창
조윤태 최석립 최창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환
홍순태

21회(48명)
강민우 강원태 강창수 구본능 구현수 김기현
김병수 김영삼 김우건 김조영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옥 박인협 박자인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병문
송원경 신태운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육화원 이성집 이태택 이 혁 임경범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조상호 조성근
진영천 최동완 최민석 최점수 최경림 허창수

22회(46명)
고인준 김광국 김도살 김동욱 김동원 김성재
김세곤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경곤 김종달
김진철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류명윤
박승목 박언표 박행천 박홍조 변대석 손연모
손용섭 안영수 오세길 유인조 윤성복 이민성
이병수 이상주 이윤제 이춘식 장성복 장영근
정진식 정해진 하현성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홍순욱

23회(47명)
곽상인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정록 김중훈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문창호 박재호 배종순 백창영 서승환
서한현 송영춘 신동규 안범두 안병을 유석산
유원형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태규 이덕남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수백 이영재 이준석
장백기 전상대 전재홍 정동일 정상건 정용성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허병상

24회(55명)
강동우 곽두희 구본열 구자웅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명배 김무성 김성득 김승탁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학성 김현태 노상우
문섭제 박극제 박맹렬 박홍규 배종갑 변용준
서정득 성총기 손성호 신장우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상찬
이 수 임민호 장현동 전대현 정동호 정명근
정영석 정윤상 정영태 조용화 조태홍 주점권
진병건 차한영 최진우 최현규 하 옥 한상열
황성훈

25회(99명)
강수명 고명식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광돈
김구화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동진 김상겸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명 김영수 김영호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유환 김익수
김정하 김중국 김중윤 김중현 김진우 김창욱
김창호 김태선 문재인 문창진 박거환 박건수
박경립 박광용 박맹우 박병철 박세철 박영하
박원규 박을영 박종기 박종찬 박진상 배대관
서민상 서병수 서인진 서재규 서경옥 송동준
안수영 안희석 양시욱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진태 유용기 윤병환 윤순기 윤대석 윤희승
이근만 이길현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상화
이신호 이인규 이창훈 이태식 이홍성 임상택
임창운 장대락 장세훈 전선태 정신배 제영성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한석정 한준석 한현교 허만탁
허영형 허 택 황근태

26회(56명)
강수남 강영녕 강영원 강의규 고석훈 권해국
김광대 김기표 김두천 김섭권 김영섭 김재용
김정무 김정원 김중우 김태년 김태용 김호용
박경수 박경재 박권병 박두식 박상호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재욱 성백은 성재업 손욱호
신동춘 심덕수 왕효석 윤수현 이경호 이규용
이명진 이상원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정근
이희준 장경재 장만옥 장인철 정국근 최낙준
최명해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주근 홍순하
홍형택 황광수

27회(42명)
김강호 김동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욱 김삼문
김수인 김안석 김영삼 김중욱 김중하 김진명
김호균 류재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종국
박치호 반정열 배효택 백민호 신용도 신환원
양태중 유영호 윤석건 윤종락 이민부 이성득
이양현 이종찬 이 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조용수 최인성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51명)
구영소 권기택 권수원 김명철 김부윤 김선경
김용원 김익성 김경진 김준연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준 박성곤 노영규 박종기
박진화 배효진 백영호 서기희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옥상근 유봉수 유승일 이만수 이민우
이원철 이철행 이흥오 임상규 임재덕 전광병
전진학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 정인식 정해영
조석태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허남식 황장두

29회(71명)
강대용 강성훈 금시환 김기수 김기수 김기영
김대영 김부겸 김부근 김석윤 김성률 김영훈
김영휘 김용채 김용환 김인술 김중권 김중명
김종진 김철오 김태명 김호성 박국인 박근우
박동혁 박동홍 박병를 박상길 박성근 박성철
박인균 박인평 박창언 백성욱 사공운곤 서영학
손홍근 신현수 안창홍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이남중 이범익 이병건 이상진 이석조 이준환
이충원 임무택 임상헌 장강태 장 만 전장화
전현수 정 길 정대현 정 란 정성훈 조승제 조
진수 조창영 조한욱 차의수 최문성 최영식 최
정만 하현태 한만수 허광욱 황유명

30회(51명)
강석철 권용택 김상직 김순구 김승대 김명일
김유기 김재일 김재철 김종진 김해근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문창조 박병규 박원호 박정국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신구균 신윤원 심종수 양문섭 옥유건
유재일 윤준순 이기환 이명근 이원용 이종욱
이태봉 이한수 이호준 인준순 장호영 장훈상
정경목 정성원 정영호 정해석 채영재 최우철
최진곤 최진권 하규양

31회(47명)
공종렬 김광수 김시현 김영철 김경덕 김태근
김형수 김창연 남기태 노성현 류명석 박석두
박인정 박종호 박준열 박해성 배인환 배정우
서규영 서수교 서정호 손영태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종식 안중수 오민일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민재 이병태 이승원 장재훈 정용정

조영기 천장호 최부영 최상웅 최진섭 최해영 최효식 하병관
허일현 홍 구 홍성수

32회(25명)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박상학 박운대 박종구
박진원 송기수 신국선 양문성 엄효선 이문영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임인섭 임채균 정용운 최종호 최춘호
최호영

33회(35명)
공진환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법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선
김종만 김종인 김 철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박성병 박
창완 박태중 서광기 서재영 송종현 안영훈 이등근 이석희 이
윤조 이창훈 이형근 이호인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
웅남 최홍원 황경원

34회(23명)
강승기 곽수균 김두섭 김상갑 김태하 노인선 박철웅 오송대
옥재명 이강희 이용희 이재완 이정철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홍승철 황병주

35회(21명)
김길호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박동렬 백현호 서석권 손재수
안종엽 안창돈 오문세 오시영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이성환
이원우 이효성 임성배 장인화 황용순

36회(36명)
공진식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병국 김병주 김용진 김중백
김종오 김종일 김철원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신승렬 신용덕 양석용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상준 이성호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
병기 제갈재환 최상도 최태섭

2020년 구독료 납부현황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2	0	0%	20	171	31	18%	39	118	28	24%
2	1	0	0%	21	184	48	26%	40	117	21	18%
3	11	4	36%	22	186	46	25%	41	91	31	34%
4	19	3	16%	23	219	47	21%	42	53	14	26%
5	27	9	33%	24	236	55	23%	43	86	19	22%
6	38	13	34%	25	359	99	28%	44	73	15	21%
7	50	12	24%	26	230	56	24%	45	38	41	108%
8	59	14	24%	27	214	42	20%	46	54	3	6%
9	58	14	24%	28	199	51	26%	47	60	7	12%
10	88	20	23%	29	233	71	30%	48	13	5	38%
11	124	41	33%	30	242	51	21%	49	65	6	9%
12	163	45	28%	31	132	47	36%	50	68	6	9%
13	165	56	34%	32	120	25	21%	51	121	9	7%
14	136	36	26%	33	138	35	25%	52	156	2	1%
15	142	39	27%	34	69	23	33%	53	43	17	40%
16	204	52	25%	35	128	21	16%	54	58	9	16%
17	134	38	28%	36	136	36	26%	55	11	3	27%
18	205	44	21%	37	83	25	30%	56	10	1	10%
19	184	51	28%	38	96	24	25%	57이후	32	6	19%
Sub-total(1)		491명		Sub-total(2)		833명		Sub-total(3)		243명	
총 발송부수		6452명		기타		1명		구독료납부인원		1,570명	
미상		2명		목표인원		4,000명					

37회(25명)
김기덕 김기동 김상현 김영곤 김원범 김의열 김중휘 김진영
김형기 문진형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송경철 윤태환 장원익
전인수 정익수 정재호 천웅찬 최재형 탁낙준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24명)
강금성 권두성 김경곤 김대훈 김상수 김원철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신동훈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정인철 정재형 정준기 조석태 조용철 주영록 차성철

39회(28명)
김대중 김윤홍 김종엽 김천술 김태우 문기호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곤 박해동 백기현 송영호 심왕섭 여동섭 오선호
유숙정 윤원욱 이성태 이승기 이태윤 정우영 정진해 지홍준
하성포 하순호

40회(21명)
권귀동 김근영 김동근 김창민 김춘강 박훈재 배병훈 서정민
손균호 우영환 이 기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장
정욱 최용석 최치언 한수열 황성수

41회(31명)
강병오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민수 김정태 김형을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백선민 백창봉 성종훈 안광근 여근섭 원태용
윤성보 윤종진 이광희 이명재 이양걸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조재봉 천성원 최영준 한정호 한창희 허준윤 홍석우

42회(14명)
강인호 김동수 김재용 김태구 문지성 박동식 서분규 신동복
신봉준 윤영덕 이정택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43회(19명)
강병규 강택용 김대영 김동현 김성수 김영휘 김종식 김희경
박경곤 박형규 백경운 윤상원 이성춘 이진배 이호영 정영민
정효범 최용석 허재원

44회(15명)
김찬홍 김 황 안병규 우도균 이동렬 이부교 임정훈 전광열 조
영호 조청현 탁정환 한수성 홍광호 황인주 황재훈

45회(41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종현 김찬호 김창균 김현철 김현호 나성태
박중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호 양현욱
오문찬 오승현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정일 정상희 정종훈
조청래 조태성 차명환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3명)
이성민 이태환 한영길

47회(7명)
감기환 고달우 서정민 성상용 정 신 정하윤 차기혁

48회(5명)
권태현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49회(6명)
김종배 김진용 이충현 장민건 장형철 최진영

50회(6명)
강 철 김동현 김상준 박종현 서석진 이상준

51회(9명)
감중현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권 신현식 오성진 정유석
최우영

52회(2명)
이호영 최중연

53회(17명)
강덕천 곽상훈 김경찬 김권우 김민걸 김상욱 박성영 박우진
박정진 백홍상 송승운 우재준 이원준 전세일 최동환 한동인
황선경

54회(9명)
고강인 고지현 김영빈 민병철 박신우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제재철

55회(3명) 김태련 이향림 최성원
56회(1명) 임재청
58회(1명) 김현운
66회(2명) 김덕형 김시준
67회(1명)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7회(1명) 김건우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1명) 명예회원 박희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2명

모교 설치물 재배치 심의위원회 구성

경남중 김영삼 전 대통령 흉상 설치도

모교 교정에 자리잡은 각종 설치물
들이 위치나 설치물로서의 타당성, 그
리고 주변과의 조화 등에 상당한 문제
가 있어 재배치 및 선별작업이 필요하
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한 현재 경남고
에만 건립된 김영삼(YS·3회) 전 대통령
흉상을 경남중에도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린 후배들이 꿈을 키우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 외에도
김 전 대통령의 경우 모교가 경남중과
경남고로 분리되기 전인 경남중 출신
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물론
이 작업은 각 학교 측과 깊은 논의과정
이 있어야 하고 실행에 따른 예산문제

가 걸려 있어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다.
이에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나름의
준비작업으로 ‘경남중 YS흉상 설치 및
경남고 교정 설치물 재배치 심의위원
회’를 구성기로 했다. 총동창회의 이
같은 조치는 이 작업을 보다 이른 시기
에 표면화 시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
한 구상에서 나왔다.
심의위원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
장을 비롯, 9회 정행권 총동창회 고문
에서 40회 우영환 IT담당부회장 겸 경
미회 회장까지 사회 각계의 중진으로
서 총동창회에 임원급으로 선정됐다.
◇심의위원 명단=박종찬(25회) 총

최범준(55회) 동문, 경남고에 텐탈마스크 5천장 전달



코로나19사태를 맞아 모교 재학
생 후배들을 걱정하는 선배의 마
음이 ‘마스크 선물’로 이어졌다. 최
범준(55회·변호사) 동문은 지난 3
월 25일 경남고 교장실을 방문, 텐
탈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다. 바
이러스 탓에 억눌린 삶에 한줄기
시원한 바람과도 같은 낭보이다.

동창회장, 정행권(9회) 고문, 안강태
(11회) 명예회장, 송규정(16회) 상임
고문·덕경회 회장, 남진현 자문위원장,
이용흠(이상 19회) 고문, 유재진(22
회) 자문위원, 서병수(25회) 운영위원,
이영학(26회) 용건회 회장, 김대욱 차
차기회장, 박성철(이상 29회) 차기회
장, 윤성덕(30회) 대외협력담당부회

장, 류명석(31회) 정책담당부회장·전
경남고 운영위원장, 박명진 사업담당
부회장, 류장근(이상 33회) 부회장·전
경남고 운영위원장, 조선(34회) 용마
언론인클럽회장, 장인화(35회) 부회
장, 김현민(38회) 부회장·경남고 운영
위원장, 우영환(40회) IT담당부회장·
경미회 회장.



메르세데스-벤츠의 시작, 스타자동차와 함께

The New GLE
All kinds of strength.



차량 상담및 견적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부산스타자동차(주) 회 장 유 재 진 (22회)

Mercedes-Benz



스타자동차

전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 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금 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 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울 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중로 74번길 19(삼산동)
	기 장	070-4323-2369	부산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안로 98		기 장	051-792-7410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047-10
인증중고차	금 정	051-775-9820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대 표 번 호	1688-2369(benz)		
	울 산	052-701-051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홈 페이지	www.mbstar.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E 450 4MATIC (배기량 2,999cc, 공차중량 2,395kg, 4륜구동), 복합연비: 8.8km/ℓ (도심연비 8.3m/ℓ, 고속도로연비: 9.5km/ℓ), 등급 :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 198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